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기본연구 99 - 02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 내고장 사랑운동을 중심으로 -

1999. 12

송 두 범

충 남 발 전 연 구 원

발 간 사

최근 하드(hard)한 지역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행정가들의 몫이었고, 주민들은 방관자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확실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와 주민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만들고, 가꾸자는 분위기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마을만들기이다. 마을만들기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의 의미로 생활환경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함으로써 마을환경의 개선과 주민공동체의 복원을 동시에 꾀는 주민활동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마을만들기가 일본의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를 번역하여 사용한 느낌을 주고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최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내고장 사랑운동”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내고장 사랑운동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중인 지역사회 활성화사업이며, 지역공동체 형성운동이다. 대구시와 부산시, 경상남도 등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보령시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추진중이고 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정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사랑운동은 그간의 행정주도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험적인 운동이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

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본 연구결과가 내고장 사랑운동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군 자치단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문하고 협조해 주신 충청남도 도의새마을과·보령시·예산군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성실하게 연구에 임한 송두범 박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0년 8월

충남발전연구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박사

황 용 주

차 례

■ 연구결과 요약	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제4절 용어정의	3
1. 지역공동체	3
2. 내고장 사랑운동	3
제2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5
제1절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구성요소	5
1.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	5
2. 지역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6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의 역사적 배경	8
1. 해방이전의 지역공동체 운동	8
2. 일제치하의 지역공동체운동	9
3. 해방이후 지역공동체 운동	10
4. 최근의 지역공동체운동	11
제3절 지역공동체운동 이론고찰	17
제4절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모형	19
1. 추진모형의 기본전제	19
2.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단위	20
3. 기본모형	22
4. 기본추진절차	23
제5절 지역공동체 운동과 내고장 사랑운동	27

제3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29
제1절 국내 자치단체의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29
1. 대구사랑운동	29
2. 내사랑부산운동	35
3. 대전사랑운동	41
4. 경상남도 사랑운동	43
제2절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49
1.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기본이념	49
2.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조건	51
3. 마을만들기 사례	59
제3절 사례의 비교	72
1. 내고장 사랑운동 비교	72
2. 내고장 사랑운동과 마을만들기 비교	73
제4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75
제1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75
1. 충청남도 5대 사랑하기 운동	75
2. 보령사랑운동	80
3. 예산사랑운동	92
제2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	95
제3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문제점	98
1. 행정기관이 주도	98
2. 제도적 지원대책 미흡	98
3. 행정기관 추진사업의 연장	98
4. 지역상징사업의 부재	99
5. 주민교육 프로그램 부재	99
제5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101
제1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체 및 추진방법	101
1. 내고장사랑운동의 추진주체 및 조직화	101

2.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방법	103
제2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내용	104
1. 생활문화운동	105
2. 교육운동	109
3. 환경운동	114
4. 복지운동	119
5. 지역활성화 운동	124
6. 도농 공동체운동	130
7. 미래공동체 운동	135
제3절 각 주체간의 협력방안	139
1. 행정기관의 역할	140
2. 지방의원의 역할	141
3. 언론매체의 역할	141
4. 학교의 역할	141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143
제1절 요약	143
제2절 정책건의	145
1. 내고장 사랑운동 기본계획 수립	145
2. 지역사회 주민의 공감대 형성	145
3. 내고장 사랑운동 기금 설립	146
4.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센터 설립	146
5.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조례 제정	146
6. 지역상징사업 선정	146
7. 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내고장 사랑운동의 벤치마킹	147
8.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하여 추진	147
9.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의 파트너십 형성	147
참 고 문 헌	148
부 록	151

표 차 례

<표 1> 활동중심접근방법과 조직중심접근방법의 장단점 비교	22
<표 2> 지역사회의 공동체 이루기 흐름	27
<표 3> 추진과제별 요약	46
<표 4> 경남사랑운동의 행정 및 민간단체 역할분담	47
<표 5> '경남사랑운동'의 단계별 추진	48
<표 6> 마을만들기의 8가지 테마와 소테마 유형	53
<표 7> 자치단체 사랑운동간 중점과제 비교	72
<표 8> 내고장사랑운동의 분야 및 세부사업	96
<표 9>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격	97

연구결과 요약

연구결과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충청남도 및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 분석
- 둘째, 내고장 사랑운동의 문제점 및 저해요인 분석
- 셋째, 타 자치단체의 내고장 사랑운동 추진사례 및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 넷째,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모색

2. 연구범위

- 대상지역 :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
- 자료기준연도 : 1998년
- 주요연구내용 :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 추진주체, 추진방법, 예산지원, 주민의 참여정도, 실천프로그램 등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공동체 및 지역사회운동과 관련한 학위논문 및 간행물, 연구보고서
- 사례연구 :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자치단체 및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수집하여 시사점과 문제점 파악

4. 용어정의

1) 지역공동체

공동체는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 시간적 연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용어(니스벳)로 ①일정한 지리적 영역의 공유 ②사회적 상호작용(참여와 자치) ③공동유대감 ④동일한 목적성(공공성의 실현) 등을 가진 인간집단으로 정의한다.

2) 내고장 사랑운동

본 연구에서 내고장 사랑운동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운동」, 「○○가꾸기 운동」, 「○○마을만들기(마찌즈꾸리) 운동」, 「○○되살리기 운동」, 「고향창생운동」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애향운동으로 정의한다.

제2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1.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

지역공동체의식이란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음으로 인해 받게 충만한 느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지역공동체의식은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공동체운동의 역사적 배경

지역공동체운동은 해방이전의 계, 두레, 향약과 일제치하의 국채보상운동, 금융조합, 산업조합, 농촌진흥운동, 해방 이후의 재건국민운동,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지역공동체운동인 지역품앗이운동,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을 들 수 있다.

3. 지역공동체운동 이론 고찰

지역공동체운동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의 유산’, ‘사회적 유산’, ‘집합적 소비재’, ‘공공재’, ‘영향력과 권력의 원천’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①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주민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② 행동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③ 동의된 목표의 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④ 필요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 가는 자기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4.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모형

1) 추진모형의 기본전제

지역공동체운동은 첫째, 공동체의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등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셋째,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 주민여론의 생성, 결집 및 정부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

2)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단위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단위는 ①기초추진단위 : 반 ②중간추진단위(1) : 통, 리 ③중간추진단위(2) : 읍·면·동 ④기본추진단위 : 시·군 등 4계층으로 구조화 할 수 있다.

3) 기본모형

지역공동체운동의 실천모형에 접근하는 방법은 조직중심의 접근방법과 활동중심의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본추진절차

- 지역공동체운동의 대주제 선정
-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촉매집단의 선정
- 주민조직의 결성
- 실천과제의 선정 및 추진
- 평가 및 환류
- 지원 및 협조체제

5. 지역공동체운동과 내고장 사랑운동

내고장 사랑운동은 고장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과 터전을 이루는 운동으로 지역공동체운동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실체화된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제3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1. 국내자치단체 사례

1) 대구사랑운동

대구사랑운동은 대구지킴이에서 출발하여 대구키우기로 승화하는 시민운동이다. 199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와 전통지킴이, 문화와 예술사랑하기, 녹색도시가꾸기, 지역경제키우기, 지역사회일꾼 키우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담장허물기 사업 등은 전국적인 모델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2) 내사랑부산운동

내사랑부산운동은 대구사랑운동을 벤치마킹한 운동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의 협력, 연대하는 새로운 차원의 민관협력운동으로서 시민의식 개혁과 우리고장을 사랑하기 위한 시민주체운동이다. 활력있는 부산만들기, 더불어 함께 사는 부산만들기, 맛과 멋이 넘치는 부산만들기, 푸른 부산만들기, 편리하고 안전한 부산만들기,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만들기, 훌륭한 시민, 참여하는 부산만들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3) 대전사랑운동

대전사랑운동은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건설하고 아름답고 윤택한 고장으로 가꾸어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운동이다. 대전정신키우기, 대전경제키우기, 대전인재키우기, 대전문화꽃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대전사랑운동 촉진시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4) 경상남도 사랑운동

경남사랑운동은 경남인으로서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정신함양운동으로서 경남인의 의식 및 생활개혁운동과 지역사랑운동이라는 범도민적 정신운동으로 행정에서 제도개혁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운동이다. 2대 개혁, 3대 아끼고 가꾸기, 4대 없애고 줄이기라는 2·2·4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일본의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물리적으로 주민친화적, 생활친화

적, 환경친화적으로 만든다는 의미 외에,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의식의 성장을 촉진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마을, 지역산업이 주체가 되는 마을, 자연과 공생하는 마을, 모방이 아닌 개성 있는 마을, 중심가만이 아닌 뒷동네를 더욱 소중히 하는 마을이다.

또한 마을만들기의 공동테마는 ①윤택함이 있는 마을(녹화, 친수, 에콜로지) ②도시경관이 아름다운 마을(경관, 문화) ③ 안심하고 살수 있는 마을(화재, 지진, 치수, 공해) ④정주하여 살고싶은 마을(주택, 주환경), ⑤공공시설이 정비된 마을(공공시설), ⑥활력있는 마을(상점가, 공장, 유통시설, 농지) ⑦교통이 편리한 마을(버스, 역·역 주변, 도로, 주차장, 교통안전) ⑧정감있는 마을(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외국인) 등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마을만들기의 구조는 ①종합적인 시설만들기 ②조직만들기 ③작업장 만들기, 여가공간 만들기 ④사람만들기 ⑤사업일으키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사카부 토요나카시(시민이 만드는 마을만들기 구상), 가아오현 토요나카쵸(전국 막걸리 서밋), 교토부 오에정(도깨비 전설의 마을만들기), 후쿠시마현 미시마정(고향창생운동) 등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3. 사례의 비교

1) 내고장 사랑운동 비교

4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와 문화, 환경부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발굴 및 상품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에서도 가능한 한 행정은 사업추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실질적으로 재원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대부분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의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2) 내고장 사랑운동과 마을만들기 비교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우리 나라의 고향사랑운동은 그 추구하는 목표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행정과 주민간의 역할분담과 파트너쉽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 나라의 고향사랑운동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부재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민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4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1.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1) 충청남도 5대 사랑하기 운동

충청남도의 5대 사랑운동은 예절의 고장으로서의 전통을 지키고 충남인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발휘하기 위한 범도민적 규범으로 정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운동이다. 5대 과제와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가정·마을·직장·학교·사회단체가 주체로 실천하는 운동이다.

2) 보령사랑운동

보령사랑운동은 보령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하는 시민운동으로 보령의 자연사랑, 환경사랑, 시민사랑, 문화사랑, 경제키우기, 시민정신 갖기, 고향사랑, 충·효·예정신 발양 등을 실천과제로 발굴·선정하여 추진하는 행복공동체

실현운동이다.

3) 예산사랑운동

전통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풍요한 온정이 넘치는 충효의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군민과 출향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충효의 고장 예산, 잘사는 예산, 활력있는 예산을 건설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이다.

2.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

구 분	충남사랑운동	보령사랑운동	예산사랑운동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체별로 시범과제 선정 추진 • 전 참여주체별로 1개과제 선정 추진 • 전 도민 자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이 주체가 되어 추진 • 시민모임단체를 주축으로 추진 •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마을, 직장, 학교, 사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사회단체, 군민, 출향인사
실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기회를 통한 도민운동교육강화 • 홍보활동 강화 및 실천 분위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선정하여 추진 • 시민생활운동으로 추진 • 지속적 실천운동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운동으로 승화 • 문화행사 개최 • 실천가능한 과제 지속 발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정신발양, 도의새마을운동, 고향사랑운동, 시·군단위 시책과 연계하여 도민운동의 전개 • 도단위 각급기관 및 단체에도 실천과제 한가지씩 선정하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실천사업에 대한 시상과 홍보 • 시민자율실천모임 확대운영 • 추진상황 평가 및 홍보 • 1단체 1특색사업 • 보령사랑운동 실천조례·강령 제정 • 보령사랑운동 추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주도행사로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참여열의 부족 • 군재정여건의 빈약으로 다양한 시책추진 미흡 •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 • 문화행사 지원육성

3. 내고장 사랑운동의 문제점

내고장 사랑운동의 문제점으로 ①행정기관의 주도 ②제도적 지원대책 미흡 ②행정기관 추진사업의 연장 ③지역상징사업의 부재 ④주민교육프로그램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제5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1.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주체 및 방법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주체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조직화하고, 2단계로 공공기관, 각종단체, 기업체 등이 조직화하여야 한다. 3단계에서는 개인별 자원봉사자와 단위지역별 주민모임 등이 조직화하여야 한다.

추진방법으로는 내고장 알기운동, 다짐대회와 참여행사, 교육, 토론회, 발표대회, 지역공간의 특성화, 기금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2.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내용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내용은 생활문화운동, 교육운동, 환경운동, 복지운동, 경제운동, 도농공동체운동, 미래공동체운동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 각 주체간의 협력방안

내고장 사랑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시설 및 행정정보지원,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재단 설립, 지도자 육성, 지방의원은 주민조직활동에 적극적 참여, 언론매체는 사례보도 및 모범사례 발굴, 학교는 시설제공, 전문지식 제공, 활동성과 평가 등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첫째, 내고장 사랑운동 기본계획 수립

내고장 사랑운동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계획에는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격·개념·이념, 운동의 내용, 추진방법, 자원조달방안 등 운동의 성격과 목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주민의 공감대 형성

내고장 사랑운동의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기관 주도의 운동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어 단발성이 그칠 가능성이 크고, 지속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다.

셋째, 내고장 사랑운동 기금 설립

내고장 사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기금과 같이 행정과 민간단체, 주민간의 중립성을 띤 내고장 사랑운동 기금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센터 설립

내고장 사랑운동을 행정, 주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센터를 민관공동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조례와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내고장 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헌장”이나 “행동강령” 제정과 같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여섯째, 지역상징사업 선정

지역의 특성, 행정여건, 주민정서 등을 참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징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타 자치단체의 내고장 사랑운동 및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의 벤치마킹

선진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이나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하여 추진

역사문화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내고장 사랑운동은 문화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내고장 정체성 회복운동이기 때문이다.

아홉째,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의 파트너십 형성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기업인 등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주민과 민간단체가 귀찮은 존재이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의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내고장 사랑운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내고장 사랑운동은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은 내고장 사랑운동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내고장 사랑운동이 궁극적으로 민간주도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ND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약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사회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 즉 아노미(anomie, 무규범성)의 상태에 처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무규범 현상은 사회질서의 부재와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실종, 피해의식과 이기주의의 확산을 초래하게 되고 끝내 공동체의식의 와해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공동체의식의 실종은 사회질서의 혼란과 인간관계의 불신, 소외의식과 이기주의의 확산 등 제반 문제들의 악순환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이기주의 양상들, 예컨대 교통질서의 부재, 날림공사로 인한 각종 대형사고의 발생,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상도의 부재, 공중 도의심의 실종, 불우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은 바로 우리들의 공동체의식의 결여상태를 반영해 주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김동일, 1995:20~21).

한편,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상실 또는 해체 현상에 대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온 바 있다. 인간관계의 변화·발전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이라든지(MacIver, 1924; 박순영, 1984; 송복, 1996),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운동적 접근(박서호, 1993; 김남선, 1994; 고순철, 1994; 김신일 외, 1994), 그리고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 및 조성 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계획적 접근(Bailey, 1975; Nottridge, 1972; 박호강, 1984; 권순복, 1989) 등은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하기 어렵고 진정한 주민운동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고장 사랑운동이 궁극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승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 분석
- 둘째, 내고장 사랑운동의 문제점 및 저해요인 분석
- 셋째, 타 자치단체의 내고장 사랑운동 추진사례 및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 넷째,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모색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대상지역: 충청남도과 시·군 지역
- 자료기준연도 : 1998년
- 주요연구내용: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 추진주체, 추진방법, 예산지원, 주민의 참여정도, 실천프로그램 등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공동체 및 지역사회운동과 관련한 학위논문 및 간행물, 연구보고서
- 사례연구 :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자치단체 및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수집하여 시사점과 문제점 파악

제4절 용어정의

본 연구의 전개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지역공동체

공동체는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 시간적 연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포괄하는 용어(니스벳)로 ①일정한 지리적 영역의 공유 ②사회적 상호작용(참여와 자치) ③공동유대감 ③동일한 목적성(공공성의 실현) 등을 가진 인간집단으로 정의한다.

2. 내고장 사랑운동

본 연구에서 내고장 사랑운동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운동」, 「○○가꾸기 운동」, 「○○마을만들기(마찌즈꾸리) 운동」, 「○○되살리기 운동」, 「고향창생운동」,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애향운동으로 정의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제2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제1절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동체에 대해 그동안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사학 및 역사학 등 학문분야에 따라 또한 같은 학문분야에서도 학자에 따라 각각 상이한 개념이나 이론을 펴왔기 때문에 공동체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공동체는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현실, 사회적 응집, 시간적 연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관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공동체는 사상과 감정, 전통과 헌신몰입, 소속과 의지가 하나로 융합된 것으로 지역·종교·민족·인종·직업·개혁운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공동체적 유대는 기본적으로 경쟁 또는 갈등, 효용 또는 계약적 합의를 특징으로 하는 비공동체적 관계와 반대되는 것이며, 때로는 다만 이에 대한 가정적인 반명제인 경우도 있다. 동일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는 반명제인 바로서의 비공동체적 관계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비인격성과 익명성에 의하여 공동체의 긴밀한 유대가 선명히 부각된다. (니스벳/지승중 역, 1994:103).

일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동된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평균적인 주민들에게 공통된 감정과 신념의 총체가 형성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라고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집합의식은 개인의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의 특수이익과는 별개의 것으로 오히려 개인의식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실체로서 개인의식에 대하여 규제력을 가지며, 각 세대와 더불어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는 세대들을 연결시켜 준다고 보고 있다(한상복, 1982:2).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우리 나라의 경우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하여 강한 문화적 배경 및 언어, 풍습, 생활습관 등이 범 사회적 규범으로서 정착되면서 정신적 기초로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으며, 가족중심의 연대의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이승국, 1994:6).

최근에는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사적 이익의 극단적 추구를 제어할 역할로서 희생과 양보, 참여와 주체의식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이 이해관계에만 입각한 비인간적 사회관계를 인간화시키려는 대인 의식이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의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수복, 1995: 7~8).

따라서 지역공동체의식이란 “지역사회에 소속해 있음으로 인해 받는 충만된 느낌,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및 지역사회와 구성원 상호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과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를 살펴보면 작업공동체로부터 공동체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동체라 할 수 있는 두레에서는 공동체적 구속력과 민주주의적 운영, 공동부조, 규율, 주체적 자부심과 공동체적 평등주의, 연대관념, 우리감정, 형제애 등의 공동체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신용하, 1988:438~442).

임희섭(1991)은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①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 애정, 긍지, 충성심 등, ②구성원들에 대한 동일시 감정, ③공동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정도, ④공식적·비공식적 공동체조직에의 참여 정도, ⑤구성원들에 의한 공동행동의 양과 질, ⑥공동체내 갈등조정기제의 효율성 정도, ⑦공동체규범을 지키는 규범의식 정도, ⑧ 공동체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구성원의 사기 정도를 들고 있었으며, 이 요소들의 포괄적이고 총체적 측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자세와 마음가짐을 공동체의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준, 1998. p.20에서 재인용).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Nisbet은 공동체의식에 대해 우리의식(We-feeling), 역할의식(Role-feeling), 의존의식(Dependency-feeling)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의식이란 분할이 가능한 통일체에 더불어 참가하고 있다는 공존의 감각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또한 집단생활을 영위하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나 그 이해관심이 지역사회, 지역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역할의식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가진다고 하는 역할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말아야 할 역할, 즉 결국 각자에게 부여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의존의식은 역할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사람들간의 물질 욕망은 우선 지역사회에 의해서 충족되는 것으로 물질에의 의존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개인과의 심리적 의존이 생겨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Mcmillan & Chavis(1986)는 전체적인 공동체의식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구성원 감정(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Mcmillan & Chavis, 1986:9~14).

여기에서 구성원 감정(membership)은 소속해 있다는 느낌이나 개별적인 것을 공유하고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경계(boundaries : 소속해 있는 사람들과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의미), 정서적 안정(emotional safety), 소속감 및 동일시 감정(a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fication), 개인적 투자(personal investment), 공통적 상징체계(a common symbol system)라는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속성들은 함께 작용하여 공동체 내외의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상호영향의식(influence)은 중요하다는 느낌, 즉, 구성원이 집단에 중요하다는 느낌과 집단이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욕구의 통합과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은 강화(reinforcement)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들의 욕구가 그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하여 충족되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연계(emotional connection)는 구성원들이 역사와 장소, 시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는 헌신이라고 하였다. 공유된 정서적 관계는 역사의 공유에 기초하고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있으나 반드시 그것을 공유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에 동일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유하고 있는 사건이나 그 사건의 특정 속성 내에서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공동체를 강화하거나 억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의식은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지역공동체운동의 역사적 배경

1. 해방이전의 지역공동체 운동

우리 나라 지역공동체운동의 원류는 계, 두레, 향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계는 삼한시대 변한에서 시작된 촌락사회의 공동조직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금곡(金穀) 등 계재를 모아 식리활동을 하는 조직체이다. 계는 촌락공동체 그 자체의 유지, 공동체에 속하는 단위 가족의 유지, 그리고 공동체를 저해하는 상위의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계는 촌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의 임원조직은 일반적으로 분화의 수준이 낮으며, 임원간의 위계관계도 엄격하지 않은 채 주로 유사의 봉사에 기초하여 조직운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계의 교환관계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며, 개인을 기본으로 모든 신분에서 조직됨으로써 결사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두레는 신라시대에 시작된 협동운동으로서 농촌에서 농사일을 서로 돕기 위해 부락 또는 리 단위로 조직된 작업공동체이다. 두레는 촌락을 기본단위로 촌락의 성인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을 위한 공동노동조직이다. 두레의 역원은 잘 분화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위계관계가 분명하다. 두레의 교환관계는 집단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노동력을 내지 않는 과부나 노약자의 소유토지에도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계산을 초월한다. 또한 두레는 주로 양인 농민과 노비가 참여하는 민중들의 조직으로 전형적인 공동체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¹⁾

향약은 조선시대 중기 이래 약 200년간 계속된 지역주민의 자치운동이며,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그 기본이념은 「化民成俗」으로서 주민을 교화하고 미풍양속을 선양하는데 있었으며,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의 네 가지 주요덕목이 있다. 향약운동은 농촌주민들의 복리증진보다는 주민교화에 역점을 둔 것이며 일부 학자들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발단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개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사족집단의 이해를 유지·보호한다는 차원에서의 향촌사회 안정장치로서 기능하였으며, 유교적 가치와 규범을 교화의 명목으로 향촌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입함으로서 지배의 논리·기구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약운동은 주민들의 정신적 계몽을 통하여 자립, 협동의식을 고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일제치하의 지역공동체운동

일제치하에서도 나라 되찾기 위한 항일적 성격의 민중운동이나 민족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계몽적 성격의 운동이 있었으나, 주권을 잃은 시대상황으로 인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하조직 등을 이용한 음성적인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의 지역공동체 운동은 국채보상운동, 금융조합, 산업조합, 농촌진흥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제국 말기에 일어난 항일 독립 운동사에 길이 빛날 구국 정신의 결정이다. 1907년 1월 29일, 애국계몽단체인 대구 광문회(회장 김광제)에서 서상돈 선생이 건의함으로써 첫 횃불이 올랐다. "일본 차관 1,300만원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를 맞았으니, 담배를 끊어서라도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아 국권과 국토를 보존하자"는 외침에 200여 회원들은 분발하여 즉각 전국적으로 실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월 21일 북후정에서 열린 '국채보상 대구군민대회'에는 수많은 시민이 다투어 참가했으며, 남일동의 일곱 부인은 폐물을 의연함으로써 전국 여성 국채보상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이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 이름 없는 결인으로부터 고종 황제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국운동으로 승화하였다. 이 비폭력적 항일정신은 뒷날 3·1 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으로 이어져 우리의 소중한 정신 유산이

1) 김신일 외, 지역공동체 형성운동을 통한 국민의식 대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1994, pp.16~22.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되었다.²⁾

금융조합은 조합원에게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곡물을 창고에 보관해 주는 업무 외에 조합원에게 영농자재를 분배, 대여, 위탁 판매를 하는 조직이었으나, 관제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운영이 하향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산업조합은 1927년 각 도마다 시범조합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구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 초창기의 산업조합은 농업주산품의 판매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농촌의 유통 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농촌진흥운동의 진전과 때를 같이 하여 주요 농산물의 판매·가공 및 영농자재와 생활 필수품의 구매에 적극 참여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 실시된 자작농 창정계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업공황에 대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운동이다. 그러나 내선일체 및 황국신민화 등을 구함으로써 수탈정책을 은폐하고 반항을 방지하려는 철저한 공작운동이었다. 운동이 내세운 빈부에 대한 부족식량의 충당, 부채정리, 현금 수지 균형 등을 위한 목표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3. 해방이후 지역공동체 운동

국민운동은 국가재적 국민운동을 전신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 재건국민운동이라 한다. 이때 국민운동은 '사회복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국민이 민주주의 이념아래 협동 단결하고 자립, 자조정신으로 향토를 개발하여 새로운 생활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문화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직결되는 생산활동으로서의 비중이 약했기 때문에 주민생활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정치적으로 정치기반운동, 국가공동체운동, 남북체제경쟁운동, 농촌근대화운동 등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경제로 인한 농촌인구의 대량이동에 따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 삶의 불안 등의 국가발전 저해요인에 대해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민을 동원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참여기반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2) <http://www.taeguaround.org/khome.html>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사회정화운동은 정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부정비리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방황하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밝고 바른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의지를 결집한다는 명분을 지닌 일종의 정치·사회적 통합노력이었다. 사회정화운동은 1980년 수원에서 열린 지역정화운동추진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호응을 얻어 이후 시도단위는 물론 시·군·구와 읍면 및 직장단위로 자발적인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10월 28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사회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사회정화운동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사회정화운동은 첫째, 사회정화라는 영역과 일치하고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적합한 덕목이라는 점, 둘째, 1970년대에 제창된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이라는 3대 이념은 경제적 면을 강조하는 삶의 양적 측면이 부각된 반면, 도덕적 윤리적 면을 강조하는 삶의 질적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점, 셋째, 새로운 규범체계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체계에서 얻은 고유한 유산과 얼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필요로 하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기준을 조화시키고 특히 발전지향적 덕목이라는 점 때문에 새로운 국민운동이념으로 아주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최근의 지역공동체운동

최근의 지역공동체운동은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과 지역품앗이운동,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공보처에서 추진중인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은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의식 제고가 중요한 목적이다. 이 사업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활동의 목적은 ‘정부와 시민단체간 민관협력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건강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형성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개혁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국민 각자의 실천운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형성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둘째, 공동체의식 형성과 시민사회로의 발전이 시민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성, 창의성에 중심을 둔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같이 시민운동 단체의 자발성,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국민세금)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모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은 비정치, 비영리, 공익지향의 역량 있는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신문광고를 통한 사업공모를 하며, 민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단체의 활동실적 및 능력을 감안, 민주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할 구체적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은 사업별 내용과 규모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되,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시민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품앗이운동은 지역통화(Local money)라는 이름으로 1983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밴쿠버 지역에 있는 커트니라는 인구 5만의 소도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품앗이도 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품앗이는 회원간에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돈 없이도 회원간에 물건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능력이든 갖고 있기에 돈이 없어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레,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적 상부상조체계와 지역품앗이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즉, 지역품앗이는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의 현대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부상조체계와 다른데, 첫째, 개인간에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것과는 달리 지역품앗이에서는 꼭 빌린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회원 중에 아무에게나 갚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다자간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둘째, 자원봉사와 비슷하나 봉사의 대가가 있다. 셋째,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이 네트워크에서는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을 모두 기록한다는 점이 다르다. 넷째, 은행의 예금계좌와 비슷하나 이자가 없고 거래내역을 회원에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게 모두 공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나 지역품앗이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회원간에 화폐가 순환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쓰이지 않게 된다.

IMF 체제를 맞아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품앗이를 통해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로 하여금 노동시장과 계속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역품앗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더욱 윤기 있게 하며, 자신감과 자존심을 살릴 수 있다. 또 공동체 의식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이해집단, 세대간, 계층 간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웃 간에 이름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러한 지역품앗이를 통하여 이웃을 알게 되고 정을 쌓게 되면 ‘같이 한다’는 지역공동체문화가 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셔널트러스트운동(National Trust=NT)을 들 수 있다. NT운동은 1895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현재 세계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시민운동이다. 영국 NT 운동의 정식 명칭은 ‘자연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신탁(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이다. 1907년에 제정된 ‘국민신탁법(the National Trust Act)’에 의해 NT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은 ‘토지를 양도 불가능하게 지키는 것이다’³⁾. 이는 국민의 성금, 기부, 기증으로 확보된 환경, 문화자산은 국민적 자산으로 영구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조치였다(조명래, 1999a).

NT운동의 원리는 ①보전가치가 있는 자연자산(환경 및 문화자산을 포함)에 대해, ②시민들이 회비, 기부, 기증, 모금, 출연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기탁하면, ③시민운동단체에서는 이를 가지고 매입, 취득, 임대 등을 통해 보전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여, 이를 미래세대까지 보전·관리해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

3) 그래서 토지가 NT에 신탁되면, 신탁된 토지는 의회의 특별 절차를 걸치지 않고는 NT 의사에 반하여 매도되거나 담보로 설정되며 또한 강제 취득(혹은 수용)이 불가능하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진다. 그래서 NT운동은 신탁대상, 신탁자, 수탁자 등 3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조명래, 2000a).

(1) 신탁대상 : NT운동은 보전가치가 있는 동식물과 그 서식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토지 및 시설, 자연환경, 명승지, 문화재, 사적지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절박한 훼손의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현행 국가제도나 개인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한다. 시민들의 성금, 기부 등을 통해 확보된 보전자산은 시민적 자산(civic trust)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시민적 자산이란 특정개인이나 기관, 심지어 정부도 그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민공유의 자산을 가리킨다.

(2) 신탁자 : 국가나 개인이 아닌 '제3방법(the third way)'으로 시민들이 그들의 자산을 보전을 위한 신탁으로 내놓을 때, NT운동은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신탁자로서 시민의 범주에는 개인, 시민단체, 기업 등이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정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참여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개인, 시민단체, 기업 경우는 회비, 성금, 기부, 유증, 헌납 등의 방식으로, 반면 정부는 출연, 재정지원, 국공유 자산의 귀속 및 사용권 임차 등의 방식으로 보전을 위한 신탁을 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의한 유·무형 자산 기증 및 헌납과 이것이 자연보전을 위한 신탁으로 설정되는 데 있다.

(3) 수탁자 : 보전을 위한 시민자산을 신탁 받는, 즉 수탁하는 주체는 범국민적으로 결성된 '국민신탁'이다. 국민신탁은 국가적 통제나 사적인 이익에 영향 받지 않는 순수한 시민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핵심역할은 수탁한 시민적 자산을 보전대상인 자연에 대해 신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있다. 신탁설정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①매입이나 취득과 같이 '소유권(ownership)' 설정을 통한 신탁방법, ②임대와 임차 등과 같이 '사용권(the right to use)' 설정을 통한 신탁방법, ③원소유주와의 보전(적 이용)을 위한 '서약 혹은 계약(conveyance)'을 통한 신탁방법이 있다(Harvey, 1999).

영구보전을 위한 자연신탁은 신탁설정의 일회적 행위(예, 매입)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연속적인 활동(예, 유지관리 및 활용)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NT활동에는 보전대상의 조사·선정, 모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금운동, 신탁설정 외에 회원관리, 시설의 이용과 활용, 국민교육 및 홍보, 수익사업 등의 부수적인 활동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 자연보전을 위한 자산의 신탁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해 가는 NT활동의 일체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법 상의 보장책(예, 세제혜택·사회적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 자산의 양도금지)이 부여되어야 한다.

NT운동은 환경·문화자산의 탈사적(脫私的)소유, 즉 ‘사회적 자본화(social capital)’를 지향하는 이념 운동이지만, 그 실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부와 기여란 구체적인 실천을 매개로 한다(조명래, 1999a). 이러한 운동원리를 가진 NT운동을 한국사회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사적이익의 추구 대상이 되어 버린 환경(예, 그린벨트)을 보전이란 공공적 용도로 묶어 두기 위해서는 해당 환경이 사적이익에 복속되지 않을 장치, 즉 공유화가 되어야 한다. 공유화는 국가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소유가 되는, 즉 ‘시민(혹은 국민) 자산화’를 의미한다(조명래, 2000).

시민적 자산은 시민들의 성금, 기부, 헌납 등으로 조성된 자산이며, 동시에 시민들 스스로가 관리하고 지켜 가는 자산이다. 또한 이는 미래세대에 남겨지는 자산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동안 환경보전을 그토록 주장하고 강조해왔지만 스스로가 자산과 노력의 일부를 투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실천은 해오지 못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은 환경을 시민적 자산으로 만들 수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내놓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T운동은 환경의 ‘시민적 공유화’란 이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의식적 실천’을 결합하는 ‘실천이념적 운동’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조명래, 1999a). 이제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시민운동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와 있다. NT운동이 도입·활용될 수 있는 대상과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보전적 가치가 높지만 현실 여건 때문에 그 훼손의 정도와 잠재성이 큰 지역의 생태환경, 경관, 토지, 명승지, 문화재 등의 경우는 모두가 국민들의 성금, 기부, 헌납 등을 통한 국민적 신탁형태로 전환해 이를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들어 자생적인 NT운동 사례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다. ‘대전 오정골 선교사 건물 및 부지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 ‘무등산 주변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토지 공유화운동', '태백시 변전소 건립부지 시민 매입운동'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하지만 영국의 NT운동을 표준모델로 한다면, 한국의 이러한 사례들은 운동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어, NT 운동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이고 발전적 측면이 자칫 왜곡되거나 잘못 적용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이전의 지역공동체운동인 계, 두레, 향약과 일제치하의 지역공동체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해방 이후 지역공동체운동인 재건국민운동,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과 최근의 지역공동체운동인 지역품앗이운동,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운동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코자 한다.

첫째, 지역공동체 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초해야 한다. 관주도의 강제적 발전의지는 운동의 획일성, 하향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공동체 형성운동은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구현체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교육 및 홍보사업이 요청된다.

둘째, 지역공동체운동은 경제생활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즉, 공동체운동은 단순한 의식전환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물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식 형성과 경제생활과의 관련성은 계 활동과 새마을운동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지역공동체운동은 전지역, 전 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성도 존재해서는 안되며 특히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공동체운동은 그 자치로서 의의를 가져야 하며, 지배이데올로기의 유지수단이나 특정계층 옹호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운동은 현재 각 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특정지역 주민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이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전통사회에서의 주민공동체와 정부주도 및 시민중심의 지역공동체

운동은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에 새로운 지역공동체운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해야 하며 활동결과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며, 참여과정에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그 자체로서 의의를 가져야 하며, 활동사업 내용이 지역적 상황과 지역주민 요구에 적절해야 한다.

제3절 지역공동체운동 이론고찰

지역공동체운동이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 또는 그로 인해서 파괴되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려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박서호, 1993:26). 지역공동체운동의 접근에서 공동체의식은 바로 이러한 운동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지역공동체운동이란 지역의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를 이루어 내는 일이며, 또한 공동체의식과 가치에서 지역공동체운동이 출발하는 고리를 갖는데 공동체 의식과 가치는 지역의 물적 토대에서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를 살펴보고, 그것의 변화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백옥인, 1990:23).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 운동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순철, 1994:14~15).

첫째, 그 방식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운동은 점진적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동체활동에서 제시되는 활동의 핵심은 공동체의 교육활동에 주어지고 있는데, 교육은 아무리 대중적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각 개인의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이 의도한 목적은 장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운동은 공동체 성원들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성원들간의 상호관계와 교환이 이루어지고, 공동의 문제와 목표, 공동의 이해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의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운동의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운동은 특히 지역성을 반영하는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운동은 다원화된 사회의 특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는 경우 그 운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운동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의한 내용의 선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문제, 사회집단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지역성을 강조할 때 ① 주민이 가지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으며, ②운동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동일시를 확인할 수 있고, ③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지와 승인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④공동체의 공동문제에 대처하는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풀뿌리 운동의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은 서로의 의견을 우리의 의견으로 통합, 창조되어 가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공동체운동은 시민주도적인 주민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지역공동체운동은 공동체 성원들간의 공통된 욕구나 관심사를 해결하고, 이의 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실천적 운동으로 시민주도적 주민운동은 조직의 형성, 활동의 계획, 실천, 의사결정, 혜택에 있어서 주민이 주도하는 장을 강조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동의 촉발단계, 즉 공동체 문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습득시키는 단계에 있어서는 행정기관 등과 같은 외부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는 현실적인 타협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넷째, 지역공동체운동은 무엇보다도 학습사회를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교육운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은 모든 국민들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습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로서의 학습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학습사회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을 지닌 학습공동체의 성격을 지닌다. 지역공동체 학습운동은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철학적 개념이며, 그것은 긍정적인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생활을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실현을 지향해 나가는 지역사회 과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학습운동은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일본의 공민관, 유럽제국의 민중학교, 스코틀랜드의 communiversity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①대인 접근에 기초한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평생을 통한 과정이며, ②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고,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③각계각층의 주민, 이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습교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환시장이며, ④언제 어디서든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자원 네트워크로서의 특성, ⑤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상의 지역공동체운동은 나 자신은 물론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재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계속적이고 발전적인 비전과 자신의 능력과 자질, 이웃과 함께 하는 인식에 대하여 점증적인 희망을 주는 주민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역사회운동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의 유산’, ‘사회적 유산’, ‘집합적 소비재’, ‘공공재’, ‘영향력과 권력의 원천’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①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②행동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③동의된 목표의 수행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④필요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 가는 자기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정수복, 1994:9~10).

제4절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모형

1. 추진모형의 기본전제

지역공동체운동의 목표는 민주적 공동체의식의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즉, 지역공동체운동이 추구하는 목표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있으며 그러한 공동체의식은 폐쇄적 또는 이기적인 공동체의식이 아니라 남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공동의 문제 또는 상충하는 이해 관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주적 공동체의식을 말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기능은 첫째,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문제를 포함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남과 대화의 장을 갖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동체의식이 자연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식은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주변(근린 또는 직장)을 단위로 형성될 수 있으며, 타지역 도는 타 직장의 구성원과의 교호작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로 그 외연이 확산되어 갈 수 있다.

둘째, 사회문제를 공동해결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등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때 공동의 문제라 함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생활에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의미인 바, 지역공동체운동은 그와 같은 사회의 여러 문제를 주민으로 하여금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주민들이 협동하여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웃과의 접촉을 통하여 나 아닌 이웃,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익이 공존하며 나의 이익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해결자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운동은 제반 제반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보다 협동적이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여론투입을 활성화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해 주민여론의 생성, 결집 및 정부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촉진될 수 있다. 즉, 주민들은 상호간의 접촉 및 논의를 통하여 공동의 의사를 생성하고 이를 정부과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권우위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권을 제고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여론투입기능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매우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지역공동체운동과정에서 생성되고 전달되는 여론에 기초하여 보다 민의에 지지를 얻게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단위

지역공동체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한다. 첫째, 지역공동체운동은 주민모두의 참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①가급적 추진단위의 규모가 작을 것이 요청된다. ②추진단위 내 주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할 것이 요청된다. ③참여를 위한 교통 및 통신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주민모두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위가 작을 것이 요청되지만, 결집된 힘이 발휘되고 주민이 참여를 통하여 성취감 내지는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추진단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 요청된다. 즉, 최대 추진단위는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시·군 단위에 대한 주민의 정체의식이 다른 지역단위에 대한 정체의식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지역공동체운동의 단위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되어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시·군 단위의 정체의식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지역에 대한 공동체意識의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활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운동의 추진단위는 주민의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생활권과 일치하여야 추진이 실현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최소 추진단위는 기초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반 단위, 최대 추진단위는 지역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시·군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나라 생활권 현황 및 지방자치의 단위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추진단위는 ①기초추진단위 : 반 ②중간추진단위(1): 통, 리 ③중간추진단위(2) : 읍·면·동 ④기본추진단위 : 시·군 등 4계층으로 구조화 할 수 있다.

한편 하부행정단위별로 주민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해 행정기관의 개입에 따른 운동방향의 왜곡이 우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행장기관의 직접적 개입을 차단하고 지원·협조의 역할에 국한하도록 추진모형을 설계함으로써 예방 가능하다.

3. 기본모형

지역공동체운동의 실천모형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조직중심의 접근 방법과 활동중심의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활동중심접근방법과 조직중심접근방법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조직중심접근방법	활동중심접근방법
기본변수	지역 또는 직장	활동
기본내용	지역또는 직장조직체를 먼저구성 (예, 반주민회의, ○○직장회의) →결성된 조직체가 추진할 과제 선정	지역특성에 맞는 활동(과제)을 먼저 선정(예, 교육, 환경 등) →선정된 활동수행을 위한 조직체 결성
주도세력	일반주민의 주체적 참여	활동가 주도 경향
운용방식	조직의 의사절차에 의존	자도자의 지도에 의존
참여자 성분	일반주민	중산층 위주
참여자 범위	포괄적(활동영역이 비제한적)	제한적(특정 활동에 관심있는 주민만 참여)
성 격	대중적 참여모형 상향적 모형	엘리트 모형 하향적 모형
활동영역	포괄적, 비제한적, 융통적	선택적, 제한적, 경직적
기본목표	민주적 공동의사결정 관행의 확립에 관심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
동원의 용이성	곤란(단, 관심있는 활동의 발굴로 극복가능)	용이(단, 활동에 관심있는 자에 한정)
활동강도	덜 적극적(활동에 대한 관심이 덜하므로, 단, 활동의 다원화로 극복가능)	적극적(관심활동에의 참여이므로)
확산범위	넓음(활동의 내용이전에 조직의 민주적 구성여부에 의존)	좁음(활동에 관심있는 자만 참여)

자료: 김신일 외. 지역공동에 형성운동을 통한 국민의식 대전환 방안에 관한 연구, 199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P.77.

첫째, 조직중심 접근방법은 운동을 추진할 지역별 주민조직의 결성 또는 의사절차를 먼저 결정하고 활동과제는 조직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추진하는 접근방법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둘째, 주민운동을 통하여 추진할 활동 또는 과제를 먼저 선정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한 조직의 결성 또는 의사절차의 결정을 도모하는 접근방법으로 여하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한 활동고제를 추진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양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나, 조직중심접근방법이 운동의 확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

4. 기본추진절차

1) 지역공동체운동의 대주제 선정

지역공동체운동은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기관이 동기를 유발을 위해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지역공동체운동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공동체운동은 특정의 주민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각 지방의회는 「○○운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이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의 내용은 시민운동 일반에 관한 것을 포괄하되, 특히 지역공동체운동이 조장될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둔다. 의원입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행정부의 중립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바람직하다.

3) 촉매집단의 선정

지역공동체운동을 위한 주민조직을 결성하기 이전에 지역공동체운동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존 주민조직 연합체가 모임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운동의 촉매집단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자발적이 과정이어야 하지만,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및 언론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역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공동체운동의 추진과정에 이와 같이 기존시민단체의 참여를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한 경험을 살리는 한편 일반주민에 의한 주민조직의 운용과정에서 이들이 지도자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운동은 새로운 시민운동이면서도 기존의 시민운동과 연계를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보다 단기간에 효과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게 된다.

4) 주민조직 결성

주민조직은 앞에서 제시한 지역의 범위에 기초한 추진단위를 기준으로 계층적으로 구조화한다.

첫째, 현행 반상회를 반 주민회의로 개칭하여 진정한 주민의 자율적 협의공동체로 운용한다. 반주민회의 의장인 반장은 현재와 같이 주민총의로 선출한다. 반주민회는 지역공동체운동의 기초활동단위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반 주민회의는 공동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활동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단위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이때 반간의 상호경쟁을 유도하여 지역공동체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촌일품”형식, 즉, 각 반별로 한가지씩 특색 있는 활동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통·리 단위로 반장으로 구성된 ‘주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동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주민이 원하면 위원장은 통장 또는 이장직을 겸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리별 주민위원회는 관할 구역내 각 반 활동을 협의 및 조정하고, 제반 활동상황을 취합하여 차상급 단위에 보고하는 한편, 반별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반 단위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관할 구역 내 복수 반간의 협동을 주선하거나 또는 통 단위로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읍·면·동 단위로 통·리별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읍·면·동별 주민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라 칭하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읍·면·동 단위의 주민위원회는 외관상 현재 읍·면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유사하다. 그러나 읍·면개발자

제 2 장 지역공동체운동의 이론적 기초

문위원회는 주민의 자생조직이 아니며, 읍·면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각종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속행정기관위주란 점에서 구분된다.

넷째, 시·군단위로 읍·면·동별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주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읍·면·동별 주민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라 칭하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군 주민위원회에서 주민대표인 위원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위원을 두도록 한다. 특별위원은 해당 시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및 지역유지로 위촉하되, 그 위촉은 주민대표인 위원의 결정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위촉권을 주민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운동이 일반시민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이들 시민운동단체의 참여 및 지원, 지역유지의 경륜과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단위는 시·군단위로 하되 기본추진단위를 넘는 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의 협의기구의 설립은 인위적으로 사전 설계하지 않는다. 그러한 시도는 지역공동체운동을 시민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향적 운동이 아닌 일부 엘리트주민집단에 의한 하향적 시민운동으로 전락시킴으로서 운동의 관료화 내지는 경직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의 결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공동체운동에 보통시민을 참여시켜 그들이 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상적인 근린단위에서의 시민운동은 대개 남성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주로 부녀자 층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왔다. 이를 감안한다면 시민운동의 장에서 소외되어온 남성, 학생, 노년층을 포괄하는 운동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실천과제의 선정 및 추진

각 지역단위별 주민조직은 촉매집단이 제시한 활동영역목록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활동과제를 선장하고 추진한다. 활동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촉매집단이 제시한 활동과제목록은 참고자료이며 주민조직은 이와 전혀 다른 활동과제를 선장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지역공동체운동은 조직원리가 상향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과제 선정절차 역시 상향적이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지역공동체운동의 초기단계에는 활동과제를 이익갈등의 소지가 많은 활동을 추진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한 과제를 강행하는 경우, 추진단계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는 이익갈등의 소지가 적은 과제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마다 특색 있게 추진하도록 하여 추진단위간 상호경쟁을 촉발함으로써 운동의 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분기별 추진단위간 운동사례보고 경진대회나 워크숍 등의 개최는 추진단위의 사기진작이라는 일차적 효과와 아울러 수범사례의 확산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다.

지역공동체운동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마을회관(시민회관, 군민회관 등), 관청의 회의실, 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청소년복지관, 각급 학교시설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조례에서 공공기관의 시설제공의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스스로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경제적 부담이 참여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스스로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회비 외에 활동수입,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을 충당한다.

6) 평가 및 환류

지역단위별 주민조직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비교·평가함으로써 주민활동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위한 주민조직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이러한 기능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주민조직 운영의 수준 및 내용의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7) 지원 및 협조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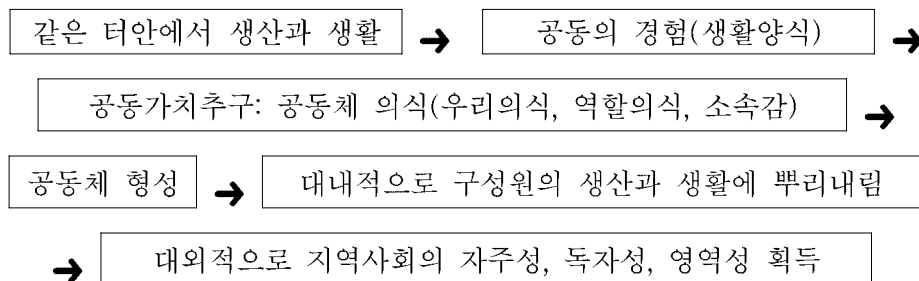
지역공동체운동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이나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하다. 예컨대 활동을 위한 시설, 지

식, 정보, 자원 등은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충족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언론 및 학교의 지원 및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5절 지역공동체 운동과 내고장 사랑운동

지역사회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성에 근거하는 현장에서 공통의 삶의 양식(또는 공통경험)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공동의 유대와 가치를 지향함에 따라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공동체의식이란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해 우리의식, 역할의식, 소속감을 느끼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다. 이런 공동의식이 사회활동의 바탕이 되어 공동가치를 지향함에 따라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물질적 사회관계를 통해 삶의 자리를 조형하여 현장으로서 공동체인 지역사회를 이룬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이 살고 싶은 뿌리내림이 일어나고 대외적으로 주체성과 한편 독자성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는 공동체로서 재생산을 되풀이한다.

<표 2> 지역사회의 공동체 이루기 흐름



내고장 사랑운동이란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삶과 터전을 이루는 일이다. 더불어 사는 삶이란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깔려있음을 의미한다. 곧 높은 정도의 인격적 친밀, 정서적 깊이, 도덕적 헌신, 사회적 응집력, 시간의 영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관계가 포괄되어 있는 것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이다. 이런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실체화된 공간으로서 터전이 이루어진다.

공동체운동의 지향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토대로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울러지는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며, 미래에 그 공동체의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공동체운동의 목표로서 다섯을 든다(김칠준, 1999).

첫째, 개인변화와 사회변화의 주체로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제도화된 민주주의는 굳어 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행정이란 이름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권력이 국가, 언론, 재벌 등의 독점으로써 국민들은 국가적 의사결정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민주주의는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훈련되고 시행될 수밖에 없다.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축적된 공동체의 힘이 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변화의 힘이 될 것이다.

공동체는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공동의 선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도 역시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나눔과 협동, 연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며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동체운동의 또 하나의 지향이다. 경쟁의 논리로 도태가 일어나 인간을 소외하고 자본의 독점, 능력의 독점이 일어 경쟁의 효율성마저 모두 잠식한다. 그러므로 경쟁의 논리를 협동의 논리로 대체하고 나눔과 연대의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가치관, 삶의 형태, 사회구조의 주체로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산력의 증가는 환경파괴를 가져왔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모델로서 공동체운동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미래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운동은 후손에게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 후대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완성되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도 지금부터 참여할 운동이어야 한다. 청소년문제와 공동체 미래상을 전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제1절 국내 자치단체의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1. 대구사랑운동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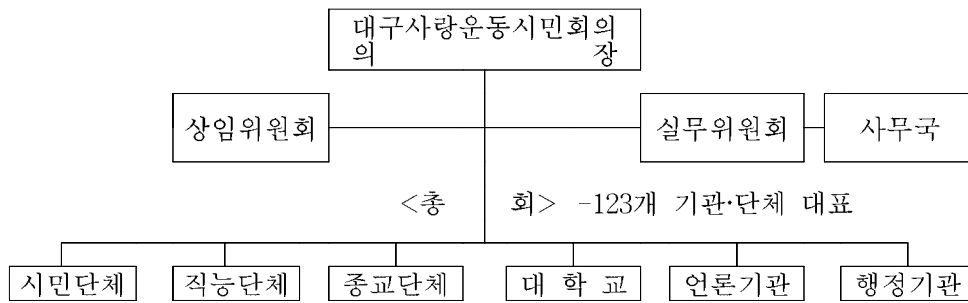
대구는 신라와 가야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국가 동량을 배출해 왔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온 자랑스런 고장이다. 국채보상운동 등 민족사에 빛나는 시민 운동을 통해 형성된 올곧은 시민정신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미풍양속, 그리고 품격 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구는 다른 도시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 침체되어 있으며 시민적 구심력마저 약화되는 등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250만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구를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대구사랑운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구사랑운동'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을 선언한 것이며, '대구지키기'에서 출발하여 '대구키우기'로 승화시키는 시민운동이다.

2) 대구사랑운동 추진체계

대구사랑운동의 추진체계는 대구사랑시민운동의장 산하에 상임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123개의 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단체, 대학교, 언론기관, 행정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3) 추진경과

96. 1. 3	대구사랑운동 주창
96. 1. 18	대구사랑운동 기본계획 수립
96. 3. 8~10. 22	대구사랑운동 추진기획단 구성·운영(6개팀 82명)
96. 4. 23	유관기관·단체설명회(115개 기관·단체)
96. 5.~9	기관·단체별 실천결의대회 및 캠페인
96. 9. 23~	대구사랑 시민(직불)카드 발행
96. 10. 22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창립(115개기관·단체 참여)
97. 3. 11	'97 계획확정 및 지역현안 결의안 채택(상임위원회)
97. 4~10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전국 1위 달성
97. 4~	대구사랑 시민 아카데미 운영(15회, 20,000명)
97. 5. 30	대구사랑운동 시민 대 토론회(200명)
97. 11. 25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단체장 결의대회
97. 12. 23	'97 대구사랑운동 평가보고회 겸 총회
98. 1. 8	『장릉속 금모으기 운동』기관·단체장 결의대회(160명)
98. 5. 18	『이웃사랑창구』개설
98. 5. 30	실직자『IMF 텃밭』무료분양(170명, 3,000명)
98. 7. 18	토요일뜰장터 개장(22회, 42,000명)
98. 9. 11	『一流시민, 偉大한 대구』운동 추진
98. 12. 22	'98 대구사랑운동평가보고회 겸 총회
99. 1. 19	'99 대구사랑운동추진방향 설명회(123개 기관·단체 실무관계관)
99. 5~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추진
99. 6. 21	2.28청소년공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99. 6. 22~9.27	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설립 및 손금인정단체 지정
99. 9.1~10.23	대구사랑운동 캐릭터·심벌마크 현상공모
99. 11. 26	대구사랑운동상임위원회
99. 12. 14	'99 대구사랑운동 평가보고회 및 총회
2000. 2.1~2.3	2000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위원 합동작업
2000. 2.10	실무위원회 개최(2000년도 추진계획 종합검토)
2000. 2.16	상임위원회 개최(2000년도 추진계획 확정)

4) 사업내용

대구사랑운동의 사업내용은 크게 역사와 전통지키기, 문화와 예술사랑하기, 녹색도시가꾸기, 지역경제키우기, 지역사회 일꾼키우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부문마다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역사와 전통가꾸기는 ①문화유산 실태조사와 그 보존방안 모색 ② 우리 고장에서 활동한 역사적 인물, 예술인 선양 ③향토 전통음식 육성 ④올바른 결혼예식 문화 정착 사업 등

둘째, 문화와 예술사랑하기는 ①무형문화재의 발굴 및 전승 ②대구의 상징거리 조성 ③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활성화 ④청소년 문화육성과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셋째, 녹색도시가꾸기는 ①푸른 팔공산, 앞산, 비슬산 가꾸기 ②낙동강, 금호강, 신천 살리기 ③쾌적한 교통도시 만들기 ④숲의 도시 만들기 사업 등

넷째, 지역경제키우기는 ①좋은 상품, 좋은 건축물 만들기 ②우량 기업 육성 및 저축 증대 ③소비자 주권운동 전개 ④산업평화 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다섯째, 지역사회일꾼키우기는 ①인력은행을 설치, 운영 ②지역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③우수 학생과 인재 지원, 육성 ④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세부사업내용

(1) 역사와 전통지키기

- 문화유산(유적)실태 조사 및 보존방안 모색
 - 지역문화유산 탐방 및 관련자료 수집 정리, 약령시 변천사 발간, 대구감영 400년사 사적 조사, 문화재, 기념물 주변 성역화, 지역일제잔재 청산,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 추진
- 주제별 박물관 건립
 - 섬유, 한약재, 무속, 역사박물관 건립
- 향토출신 역사적 인물, 예술인 선양
 - 예술인 동산 조성, 문화유적지 정비, 대구를 빛낸 인물 선양운동 전개
- 대구상징 조형물 설치
 - 서대구 및 동대구 IC 조형물 설치, 시조 독수리상 설치,
- 향토 전통음식 육성
 - 전통음식점 지정 육성, 먹거리 골목조성(홍보책자 발간등)
- 바른결혼예식문화 정착
 - 유형별 건전결혼예식 및 혼수모델 마련, 전통 결혼풍속 보존 및 보급확대

(2) 문화와 예술사랑하기

- 무형문화재 발굴 전승
 - 날피북춤, 비산농악, 고산농악등 보전
-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및 주제별 축제 활성화, 달구벌축제, 동성로 거리축제등 활성화
 - 특색 있는 섬유축제추진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 컴퓨터축제, 약령시 축제, 봉산문화거리 축제 활성화, 전국체전 상위입상, 2002년 월드컵대회 지원
- 활발한 해외문화 교류
 - 한·중·일등 아시아 미술·사진교류, 예총 공연단 해외공연 추진, 해외학술 및 청소년 교류
- 청소년 문화육성과 문화공간 조성
 - 야외공연장·현대식 미술관·음악당 건립, 공연전시행사, 합창제 등 개최, 도덕성 회복을 위한 청소년 예술제 개최,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청소년 생활예절 및 의학강좌 실시
- 자연생태 및 문화 유적과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
 - 관광루트 및 심신수련 코스 개발,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판 정비
- 대구상징거리 만들기
 - 동성로, 약령시, 봉산동 문화거리 가꾸기, 색깔 있는 거리, 도로 만들기(특색 있는 조형물, 가로화단 조성)

(3) 녹색도시가꾸기

- 푸른 팔공산·앞산·비슬산 가꾸기
 -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군락지역 조사·보존, 등산로 휴식공간 개발 및 편의시설 정비, 산불안내기 시민운동 및 산 쓰레기 되가져 오기
- 낙동강·금호강·신천 살리기
 - 환경오염(수질)실태 측정·체계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연생태계 정기적 조사, 시민출자 환경조합 설립, 철새도래지(흑두루미, 철새)보호, 낙동강·금호강·신천 자연정화
- 쾌적한 교통도시 만들기
 -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철로변 및 고속도로변 가꾸기, 경음기 사용 안하기 운동 전개
- 숲의 도시 만들기
 -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환경보호관련 이벤트 행사 개최, 나무심기운동 전개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4) 지역경제 키우기

- 좋은 상품, 좋은 건축물 만들기
 -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내고장 우수건설업체 우선시공 지원, 불량상품 줄이기 운동, 지역상품 공동 애프터서비스망 구축, 기업체 우수사원 해외연수
- 우량기업, 우수상품 키우기
 - 지역특산품 공동브랜드 개발, 지역상품 품질보증제도 도입, 신용보증조합 설립, 향토상품 판매 전용코너 설치 확대, 향토상품 사주기 운동 전개, 우수디자인 상품 전시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
- 소비자 주권운동 전개
 - 소비자 고발센터 활성화, 가격조사·품질검사·과대포장 등 정기조사 공개
- 산업평화기반 구축
 -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노·사·정 대화 활성화, 우수사원 발굴 격려

(5) 지역사회일꾼 키우기

- 인력은행 설치 운영
 - 분야별 전문인력 정보수집 관리, 출향인사 지역봉사활동 참여, 출향인사 고향사랑 전하기, 자랑스런 대구인 선정 포상
- 지역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 대학졸업시기 활용, 중소기업체 연합개최, 지역출신 우수인재의 지역 내 취업 유도, 지역기업과 지역대학(학과)연계 지원
- 우수학생·인재지원 육성
 - 역내(진학)우수학생 지원, 21세기 일꾼 키우기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무료진료, 무료개안 수술사업
-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통합네트웍 구축
 - 향토를 빛낸 사람 격려, 각급 행정기관, 민간단체 합동대책기구 구성·운영, 학교주변 폭력추방운동 전개, 먼저 인사하기 운동 전개
- 종교계 및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전개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 언론사와 연계 현장 봉사활동 기획 보도

6) 2000년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1) 추진방향

- 새천년 새시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 21세기에 걸맞는 대안적 가치를 창조하는 진원지로 발전
- 인간화, 생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민·관간의 새로운 Partnership 형성
- 대구사랑운동 지원기금 적극 조성으로 시민운동 인프라(Infra) 구축

(2) 사업내용

- ① 선도과제 : 젊은 도시, 품위 있는 대구만들기 운동 전개
- ② 기획과제 :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확산,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현장 확인의 날』 운영, 헌옷으로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 자연과 역사순례 코스 완주시민 문화시민메달 수여, 『아름다운 10대거리 선정』 발표, 대구사랑운동지원기금 조성, 시민의식의 선진화 강좌개설, 토요일뜰장터 운영, 이웃사랑창구 운영, 『Green-Friend』 운동 전개, 『내집 앞 쓸고 인도 물뿌리기』 운동 전개, 『가로변 공한지 가꾸기』 시민운동, 『작은권리 찾기』 시민운동, 대구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자료집 발간, 시민의식수준 한 단계 높이기 운동, 회원단체간 상호연대 및 지원, 대구사랑운동 유공자 및 단체 포상, 시민이 참여하는 대구사랑운동 홍보

2. 내사랑부산운동

1) 추진배경

부산은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이 땅의 근대화를 개척하였으며 일제 하에서도 민족운동의 굳건한 맥을 지켜왔고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백척간두의 한국전쟁 중에는 조국을 수호한 보류였다.

고도성장 시기에는 산업화의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부마민주항쟁과 6월 시민항쟁으로 이 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각종 도시지표가 전국 대도시중 가장 낮은 뿐만 아니라 IMF관리체제의 여파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 실업률 증가로 도시발전은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부산 재창조를 위하여 400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향토사랑운동인 「내사랑 부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2) 내사랑부산운동의 의미

내사랑부산운동은 범시민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부산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산사랑의 숭고한 시민정신으로 21세기 「부산재창조」를 위한 400만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향토사랑 운동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의 협력, 연대하는 새로운 차원의 「민·관 협력운동」으로서 시민의식 개혁과 우리고장을 사랑하기 위한 시민주체 운동이다.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내사랑부산운동은 단순히 우리고장만을 사랑하는 배타적 지역사랑운동이 아니라 부산사랑을 바탕으로 범국가적 애국 운동을 펼쳐나가는 운동이다.

3) 기본이념과 목표

(1) 기본이념

- 모든 시민이 직접 동참하여 만들어 가는 참여사회를 조성하고
- 서로 돕고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화합을 이룩하며
-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도시번영을 추구한다

(2) 기본목표

- 범시민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부산의 당면위기를 극복하고
- 부산사랑의 숭고한 시민정신으로 공동체 사회를 확립하며
- 21세기 「부산재창조」를 위한 자주적 도시개혁을 실천한다.

(3) 추진방향

-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도시개혁운동으로서의 「부산시민운동」
- 시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질 개선운동」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사랑의 「공동체 운동」
- 부산의 정체성과 발전 주체를 만들어 가는 「향토애 운동」
- 21세기복지시민사회를 시민정신으로 만들어 가는 「의식개혁운동」
- 제안·입안·추진·평가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주체운동」
- 시민과 행정이 협력, 연대하는 「민·관 협력운동」이다.

4) 사업내용

(1) 기본과제

- 경제·산업 : 활력 있는 부산 만들기
 - 건전한 소비생활 하기, 부산상품 애용하기, 지역공동 브랜드(테즈락)이용하기, 지역 벤처기업 지원운동, 향토기업지원을 위한 「내사랑부산통장」 갖기 운동, Monday-Tie(월요일 지역브랜드타이 착용의 날)운동
- 사회복지 : 더불어 함께 사는 부산 만들기
 - 실직이웃 및 결식아동 돕기, 부산 품앗이 운동(십시일반운동), Food Bank (잉여식품 나눔은행)운동, 노숙자 돕기, 아파트한가족(공동체)운동
- 문화·관광 : 맛과 멋이 넘치는 부산 만들기
 - 부산 문화유적지 가꾸기, 내고장 문화 체험하기, 부산상징 조형물 만들기, 부산상징 기념품 개발하기, 부산전통마당 확대발굴 및 참여하기, 지역별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향토음식 알리기
- 환경·녹지·어메니티 : 푸른 부산 만들기
 - 시민 나무심기, 시민 꽃 심기, 도로변 수벽 조성하기, 내집 앞 가로수 내가 가꾸기, 낙동강 살리기, 온천천·수영천 및 소하천 살리기 운동, 폐수 배출감시운동, 바다가꾸기,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시범학교 운영
- 교통·도시안전 : 편리하고 안전한 부산 만들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 부제 운행 참여하기, 자전거타기 활성화, 가까운 거리 걷기, 차량정시선 지키기, 버스전용차선 감시하기, 경적 안울리기, 어린이 보호구역 지키기, 보행자 우선운동, 차 없는 거리 조성하기, 우리 동네 길 제모습 찾기 및 길이름 갖기
- 국제교류·통상 : 세계로 뻗어 가는 부산 만들기
 - 해외에 부산 알리기, 외국인·외지인에게 친절하기, 세계화 의식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부산국제영화제 참여하기
- 시민주체·시민의식 : 훌륭한 시민, 참여하는 부산 만들기
 - 부산정신 갖기 운동, 부산역사 바로 알기, 향토인물 발굴 고양, 자원봉사 참여하기, 무궁화 및 동백 심기운동, 훌륭한 시민 발굴 표창, 학원폭력·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성폭력 추방하기, 시민단체 지원 및 시민운동 참여하기

(2) 2000년 중점과제

① 담장허물기 및 쌈지공원 조성하기

○ 추진대상

- 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 및 국가기관, 학교 등의 폐쇄된 담벽, 공공 건물이 아니더라도 간선도로 등에 위치하여 추진 시 파급효과가 큰 건물 담벽, 공한지 등으로서 쌈지공원의 조성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곳

○ 추진내용

- 추진협의회 시범사업으로 담장허물기 1개소 선정 추진

② 내사랑부산상품 애용하기

○ 운 영 : 매주 월요일을 부산상품 애용의 날로 지정

○ 내 용 : 부산상품 리스트 발굴, 부산상품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우수상품 바자회 개최

③ 내사랑부산 교통지킴이 운동

○ 운 영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 장 소 : 범내골 로터리 등 10개소

○ 내 용 : 생활교통 개선 스티커 배부, 교통지킴이 현장 캠페인 활동 전개

④ 꽃의 도시 부산만들기

○ 추진대상

- 시내일원 공한지, 도로여유지, 자투리 땅, 외곽지역으로 강·하천변, 철도변, 국도변, 건물앞·건물옥상, 시장·상가 앞, 주유소 앞, 직장, 업소, 사무소 내

○ 추진내용

- 대단위 꽃 단지 조성 : 회원단체, 행정기관과 연계 시범 추진, 공한지, 여유지 꽃길, 화단조성 : 지역별로 시범지 설치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⑤ 사랑의 청소년문화공간 가꾸기

○ 추진대상

- 사직운동장 광장 등 청소년문화안전지대로 선정된 8개소, 기타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곳 추가

○ 추진내용

-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 2회(상·하반기 중), 시, 구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유관단체 합동 캠페인 전개

⑥ 한 줄로 차례 지키기

○ 추진대상 : 다수인이 차례를 지키면서 함께 사용하는 창구, 시설(매표소, 대중전화박스, 각종 민원창구, 공중화장실 등)

○ 추진내용

- 한줄서기 시범지 선정, 정기적인 현장캠페인 전개, 언론매체 등과 합동으로 기획이벤트 개최 및 시민캠페인 전개

⑦ 장애인 노약자석 비워두기

○ 추진대상 : 노약자·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설치한 좌석 등(지하철, 시내버스 등)

○ 추진내용

- 지하철역(구내 및 전동차 내), 시내버스 차내 계도방송 반복 실시, 스티커 제작, 장애인·노약자석에 부착, 언론매체와 유관단체 등이 연계, 합동으로 사업추진

5) 추진방법

내사랑부산운동은 범시민 운동으로 과거처럼 관이 민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닌 민이 스스로의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운동이다.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내사랑부산운동이다. 즉 내사랑부산운동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협력

하는 민관협력운동이다. 민의 창의성과 자발성, 관의 조직력과 집행력이 결합될 때 개혁이 더욱 가속화되고 그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대전사랑운동

1) 추진배경

1995년 6.27선거 후 선거로 이완된 시민정서를 하나로 결집시켜서 지방자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론 속에 시정차원에서 ‘대전사랑운동’이 출범하였다. 이 운동은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과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자랑스런 대전의 미래를 창조해 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대전시민의 의식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협조적인 의식구조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대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대전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 정신을 길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어서 대전사랑운동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2) 추진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의 삶의 터전 대전을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꾸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대전사랑운동은 모든 시민의 뜨거운 애향심과 자주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자치실천운동으로써 다 함께 참여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개되는 일상생활 속의 운동으로 또한 일시적으로 실천하고 끝내는 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운동으로 그리고 자신이 바로 실천 주체가 되는 자기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천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한마음 한뜻으로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건설하고 아름답고 윤택한 고장으로 가꾸어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3) 사업분야

대전사랑운동은 대전정신세우기, 대전경제 키우기, 대전인재키우기, 대전문화 꽃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인 5대 분야에 걸쳐 이를 구체화하는 6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대전정신 세우기
 - 대전정신 교육교재 발간 등 6개 사업
- ② 대전경제 키우기
 - 과학기술도시 인프라구축 등 13개 사업
- ③ 대전인재 키우기
 - 자랑스런 대전인 선정 시상 등 8개 사업
- ④ 대전문화 꽃피우기
 - 세시풍속 재현사업 등 14개 사업
- ⑤ 밝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 대전사랑 3대 하천 가꾸기 운동, 우리 꽃 식재운동, 초록환경도시 기반 조성, 전 시민이 함께 하는 국토대청결운동, 화장실 개방 및 수준높이기 운동,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생활화, 전시민 녹색운전자되기 운동, 미소왕 선발대회 개최, 시내 진입 외곽도로 기점표지판 설치, 소비자보호 및 경찰제 이행 캠페인, 푸른 숲 가꾸기 운동,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주택지 소공원 조성, 공중이용시설 청결운동, 시민이 함께 하는 환경보전, 전시민 물사랑 운동, 대전사랑 거리환경순찰대 운영, 친절서비스 경연대회 개최, 생활민원 즉시처리팀 운영
- ⑥ 대전사랑운동 촉진시책
 - 이웃 칭찬하기 릴레이운동 등 8개 사업

이 운동이 지방화·세계화시대의 경쟁 속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의식을 제고시키고 민주적 생활양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며, 어느 특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정집단이나 계층만의 참여가 아닌 전 시민의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시민운동으로서 '다함께 참여하는 운동', '일상생활운동', '자기실천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4) 추진방향

- 대전정신 세우기
 - 「창의·화합·개척」의 대전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위대한 대전을 건설하고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운동으로 시민이 하나되는 공동체의식을 높임.
- 대전경제 키우기
 - 우리고장 상품을 애용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지역개발에 우리고장의 업체를 우선 참여시켜 지역기업을 키우고 세계를 무대로 하는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
- 대전문화 꽃피우기
 - 대전을 빛낸 자랑스런 대전인과 우리고장 인재를 찾아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는 노력과 출향 인사와 그 자녀들에 대하여 고향사랑프로그램을 운영.
- 대전인재 키우기
 - 전통·현재·미래가 함께 하는 대전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문화·예술기반 시설확충과 수준 높은 이벤트 사업 개발로 지역문화의 향기를 골고루 누림.
- 밝고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 도심을 흐르는 3대 하천을 살리고 푸르름이 넘치는 생태·환경시범도시를 만들며 질서·친절·청결의 생활화로 밝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

4. 경상남도 사랑운동

1) 경남사랑운동의 필요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낡은 의식과 국가체제로는 능동적으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로 대응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국가사회 체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과 연계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수한 입장을 감안하면서도 보편 타당한 전개방식이 요청된다. 경상남도는 국민의 정부가 주창하는 기조와 궤를 같이 하면서 경남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남사랑운동'을 전개한다.

2) 경남사랑운동의 기조

경남사랑운동은 인간·환경·문화의 21세기를 맞아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도민의식을 함양하고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의식개혁과 지역사랑운동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경남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하여 풍요와 사랑이 넘치는 세계일류수준의 경남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비약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도민들이 기상과 미래상에 일치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계획으로 이 시대의 경남에 요청되는 것이다. 참여기업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향상과 합리적 경영에 따른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도민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증대와 여가의 고급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애향심과 애국심을 향유케 한다.

이 운동의 성과는 지역성장에 있어 절적·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적 이미지의 향상시키고 가까운 장래에 도민의식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키고 보다 격조 높은 품위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3) 경남사랑운동의 개요 및 추진체계

(1) 경남사랑운동의 개요

'경남사랑운동'은 경남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정신함양 운동으로서 경남인의 의식 및 생활개혁운동과 지역 사랑운동이라는 범도민적 정신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운동의 추진은 전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고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실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천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파급효과 및 확산효과가 전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데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경상남도는 범도민적인 추진체계 구축, 제도개선, 업무조정 역할과 함께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운동의 확산·파급을 위한 도민홍보 강화를 통해 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 추진체계

경남사랑운동은 지방적 실천운동으로 행정에서 제도개혁 분야를 담당하고 민간단체에서 '경남사랑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 경남사랑운동의 과제선정기준

경남사랑운동은 지방적 실천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랑운동으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사랑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경상남도는 경남사랑운동의 추진방향에 있어 2대 개혁하기, 3대 아끼고 가꾸기, 그리고 4대 없애고 줄이기라는 '2·2·4운동'으로 잡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2·3·4운동'을 근간으로 33대 세부실천 과제를 선정해 놓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축인 민간단체는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범도민운동으로 확대하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과제를 분담하여 추진한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경상남도는 '경남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3·4운동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해 놓고 33대 세부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그 중에서 우선 실천이 쉽고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 수 있으며 파급·확산효과가 크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5) 경남사랑운동 추진과제 및 계획

경상남도는 경남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다.

<표 3> 추진과제별 요약

추진 전략	9대 중점과제	33대 세부실천 과제	10대 중점추진과제
2대 개척하기	의식과 형태개혁	친절, 정확, 청결운동 도민 생활의식 선진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흔레문화개선운동
	지식과 두뇌개혁	신지식인 발굴 1인 1외국어 습득 퓨터 생활화 독서 많이 하는 도민 1인 1기 갖기 문화·예술의 생활화	신지식인 발굴
3대 아끼고 가꾸기	내 고장 일꾼 아끼기	지역인재 육성 경남을 빛낸 우리 고장의 인물' 선정 경남의 최고 찾기 불우한 이웃 돌보기	사랑나누기 운동
	경 남 기 업 가꾸기	기업인 근로자 세계일류 제품 만들기 지역 건전기업 육성 지역산품판로 개척	지역산품 판로개척
	전 통 문 화 가꾸기	경남인의 기상과 얼 되살리기 경남의 역사 복원 경남의 문화유산 탐방 지역 문화거리 조성 생활주변 가꾸기 경남 CIP, 경남찬가 제정	생활주변 나무심기 경남 CIP추진
4대 없애고 줄이기	부 정 부 패 없애기	뇌물 안주고 안받기 부정·부패 공무원 추방 부실공사, 불법건축물 추방	불법건축물 추방
	쓰레기·음식물 줄이기	쓰레기 종량제 정착(분리수거) 건전 식탁 확산 불법폐기물(배출물) 없애기	불법폐기물 없애기
	재난·교통사고 줄이기	음주운전 안하기 재난 취약시설 점검·확인 교통질서 확립	교통질서지키기
	노 사·지 역 간 갈 등 줄 이 기	노사 한마음 되기 지역간 갈등 줄이기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경남사랑운동 추진에 있어 10대 중점추진과제별로 행정과 민간 단체의 역할 분담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표 4> 경남사랑운동의 행정 및 민간단체 역할분담

과 제 명	행정의 역할	민간단체 역할
혼례문화 개선운동	· 혼례업소의 서비스 개선유도 · ‘건전한 혼인모형’ 개발보급	· 민간단체·종교건물 등 예식장 제공 · 결혼식 평일과 야간시간 활용
신지식인 발굴	· 신지식인 선정 - 경상남도 신지식인 공무원 · 신지식인의 활동지원	· 단체별 신지식인 선발 · 신지식인 경진대회 개최 · 신지식인 포럼개최
사랑나눔 운동	· 이웃돕기 성금모금 분위기 확산 · ‘사랑의 손잡기’ 추진협조 · Wheel Chair Taxi 시범운영	· 이웃돕기성금·모금운동전개 · 독거노인 안부 확인하기 · 어려운 도민과 사랑연결하기
지역산 품 판로확대	· QC특별기획전 개최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QC상품우선구매운동 · 선물·기념품 구매시 QC상품 활용
생활주변 나무심기	· 생활 주변 중점 나무심기 기간설 정 운영 · 개인기념 식수 장소마련	· 1가정 1그루 이상 나무심기 · 개인별 기념일(생일, 결혼)
경남CIP 추진	· ‘메뉴얼’ 제작 · 경남상징마크의 적극 활용 (도기 조례개정)	· 시내버스, 택시 등에 홍보 · 경남산품 제조업체 마크활용
불법건축물 추방	·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 ·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 불법건축 감시단 자율 운영 · 도민건축대학 개설
불법폐기물 없애기	· 환경의식 교육강화 · 환경신문고 운영	· 쓰레기 되가져 오기운동 · 신고 네트워크 구성운영 · 불법폐기물시민감시단 운영
교통질서 지키기	· 운전자 및 교통불법신고센터 - 도 및 시군 설치 · 주·정차 금지구역 지속단속	· 거리 교통질서유번제 제도 · 교통불편신고 요원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 ‘산업평화상’ 운영 활성화 ·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개최	· 근로자 수련대회 · 산업현장 신노사문화 창출

또한 경상남도는 민간단체가 경남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별로 성과별 행정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추진상황 평가 보고회 개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6) 향후 추진계획의 방향

경상남도는 경남사랑운동을 단계별로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단계(1999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도민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점화단계, 2단계(2000년)로 민간단체별 자체 실천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확산단계, 그리고 제3단계로 민간위주로서 사업을 추진하며 도민이 실천을 생활하는 정착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표 5> '경남사랑운동'의 단계별 추진

구 분	추진 단계	추진 방향
1 단계(1999)	점화 단계	사업 계획 확정,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
2 단계(2000)	확산 단계	단체별 자체 실천계획 추진
3 단계(2001)	정착 단계	민간위주로 추진, 실천생활화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

단계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올해는 기반조성 단계로 도민이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각각의 역할에 대한 조직정비로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한 해였다. 2단계 전략으로 경남사랑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33대 세부실천 과제 추진을 행함에 있어 1단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의 구체성과 실천성을 강화하는 등 그 개선점을 발굴하여 계속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경남관광, 문화유적정비, 자랑스런 경남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매스컴 등에 중점 홍보하면서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가야문화 복원을 통해 '조상의 얼 찾기' 등 경남사랑 운동의 정체성 확보가 요청된다.

3단계 전략으로는 앞 단계에서 경남사랑운동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필요했던 관의 참여를 초대하 배제하고 관위주에서 민간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 단계부터는 경남사랑운동이 도민의 실천생활화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2절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

1.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기본이념

1) 개념정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하나의 붐(boom)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것을 '마을만들기의 파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만들기는 일본어로 町づくり라고도 쓰이지만, 히라가나만으로 쓴 「마찌즈꾸리 (まちづくり)」란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과 유사한 용어로서 '도시만들기', '지역만들기', '농촌만들기'가 있고 '지역세우기', '농촌세우기', '섬세우기' 등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신들이 살며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재확인하고, 지역에 부합되는 거주하기 쉽고 생기있으며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지금까지의 '마을'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 나가 버릴 것 같든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갈 뿐이라는 뉘앙스가 강했다. 자신이 '마을'에 살고는 있더라도 '만든다'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마을만들기'는 그것이 아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자신의 문제로서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기본이다. 타인에게 맡겨 두어서는 바람직한 '마을'이 될 수 없다. 주민이라 마을의 '뜨내기'가 아니라 '주인'이고, 마을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고 하는 자각의 표현이다.

마을만들기의 '만들기'란 물적인 환경정비 뿐 만 아니라 이를 추진하고 리드해 갈 인재의 육성·역사·문화·세미나 등의 각종 이벤트 등과 같이 주체형성 또는 주체형성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사용되는 경향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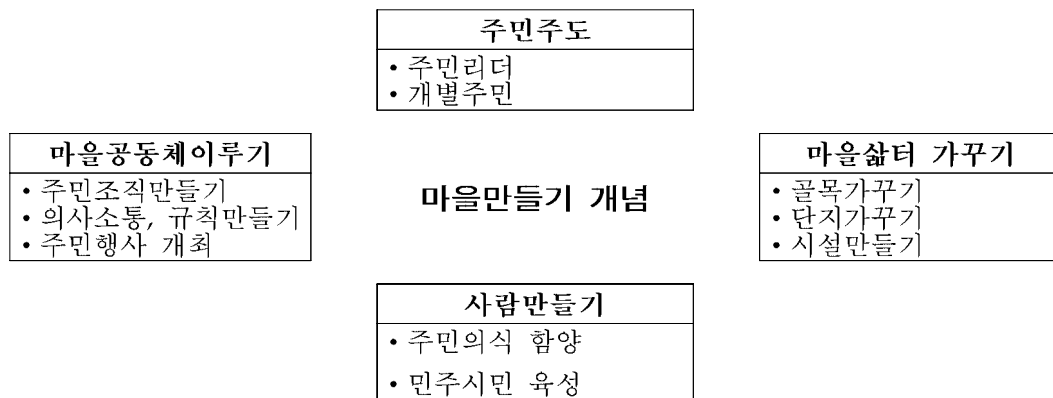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정의하면, ①각각의 지역이나 도시에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환경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를 추진해 나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각종의 노력과 운동, ②환경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제도 및 틀의 형성, ③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다양한 물적, 사회적 환경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 및 이들을 유지·활용해 가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①은 추진주체를 주민참가에 의함을 뜻하며 ②는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 행정, 기업의 역할, 지원, 협동시스템을 ③은 사업의 시행과 운영을 일컫는 말이므로 결국 마을만들기란 주민참가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와 틀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물리적으로 주민친화적, 생활친화적, 환경친화적으로 만든다는 의미 외에, 주민들의 공동체적인 의식의 성장을 촉진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념

마을이란 시민전체가 공유하는 곳이라는 자각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활용하는 장소의 총칭이다. 마을만들기란 그러한 공동의 장소를 시민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의 장소란 ①공동공간 ②공동시설 ③공동시스템 ④공동서비스 ⑤공동이벤트 ⑥공동문화 등의 총칭이다.

이러한 공동의 장소를 만들고 움직여 가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으며, 마을만들기를 생각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① 토탈의 이념 : 마을은 개개로 나눌 수 없고 전체로서 하나이다.

- ② 시스템의 이념 : 마을은 복잡한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 있다.
- ③ 공유환경의 이념 : 마을은 시민들이 환경을 공유하는 장소이다.
- ④ 시민공유·공익의 이념 : 마을은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전체가 이용하고 공동이익을 위해서 있다.
- ⑤ 시민공존·공생의 이념 : 마을은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모순을 가지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생활하는 장소이다.
- ⑥ 시민협동·공동책임의 이념 : 마을은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시민의 공동작업을 통해 공동책임으로 만드는 것이다.
- ⑦ 시민공감·공애의 이념 : 마을은 시민이 공통된 자랑거리와 애정을 가지는 곳이다.
- ⑧ 상호교류의 이념 : 마을은 시민 상호간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까지 포함된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 ⑨ 내발성의 이념 : 마을은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시민이나 자치단체의 내발적인 발상과 행동을 주력해서 만드는 곳이다.

2. 마을만들기의 목표와 조건⁴⁾

1) 마을만들기의 목표

(1)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마을

지역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지역공간은 연령, 성별, 소득, 장애자 등 다국다양한 사람들로 성립되어 있는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복지면에서 고령자나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에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더불어 평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 환경 속에서 건강과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개호가 지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4) 문승국, 일본의 주민참여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마찌즈꾸리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1998, pp.12~19에서 정리.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거주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적절한 부담으로 적절한 규모의 주택을 적절한 장소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거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고령자와 저소득자들이 그 지역에서 언제까지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적이나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한 도시에 사람들의 생활, 살림살이가 재해에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천재, 인재를 포함하여 재해로 생계에 위협이 있을 지역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달라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장이 달성되어야 비로소 지역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성립이 가능하다.

(2) 지역산업이 주체가 되는 마을

다음으로 들 수 있는 목표는 지역사람들이 그 지역의 산업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 또는 최소한 지역산업의 육성을 지역활성화의 중핵으로 위치시켜 마을만들기의 목표로서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연과의 공생

자연은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자원임과 동시에 거주환경의 질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연은 대도시, 농어촌을 불문하고 개발을 위한 소비재인양 개발에 수반되어 차례로 파괴되어 왔다. 그 결과 대도시에서는 녹지와 물이 고갈되어 사람들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어촌에서는 제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능을 상실하여 산업쇠퇴 악순환을 가져왔다. 앞으로는 자연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와 동시에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감을 마을만들기의 공동 테마로 해야 할 것이다.

(4) 모방 아닌 개성 있는 마을

이것은 歐美에서 느끼는 마을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일본의 마을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는 전후의 전재복구에서 시작된 정부의 전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국 일률화, 획일화 국토계획에서 비롯되고, 이어 1968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이 이를 부추켜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5) 중심가만이 아닌 뒷동네를 더욱 소중히 하는 마을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는 지역 중심부와 변화가 등 중심가를 정비하는 데에 힘을 쏟아 왔다. 이는 시장경제에 의한 도심부의 독점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나 자치체 당국도 이에 협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때 마을만들기 모델적 자치체라고 평가받았던 요코하마시에서 1970년대 부터 '80년대에 걸쳐 중점적으로 행한 것은 요코하마 항구에 면한 도심부의 정비였고 그 결과 이들 지역은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나 요코하마시의 도심부를 벗어난 뒷동네의 지역정비는 매우 뒤쳐져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본의 공통적 마을만들기의 수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만들기의 중점이 뒷동네에 주어져야 함은 그곳이 사람들의 생활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같은 5가지의 이념적 목표아래 분야별로 구체화된 목표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이다. 이는 東京都 23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의 기본 목표를 종합하여 이중 공통된 테마를 정리한 것으로서 다음의 8가지로 요약된다.

<표 6> 마을만들기의 8가지 테마와 소테마 유형

테 마	소 테 마
1. 윤택함이 있는 마을	녹화, 친수, 에콜로지
2.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경관, 문화
3. 안심하고 살수 있는 마을	화재, 지진, 치수, 공해
4. 정주하여 살고싶은 마을	주택, 주환경
5. 공공시설이 정비된 마을	공공시설
6. 활력있는 마을	상점가, 공장, 유통시설, 농지
7. 교통이 편리한 마을	버스, 역·역 주변, 도로, 주차장, 교통안전
8. 정감있는 마을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외국인

자료 : 東京都 足立區 「まちづくり 総合指針」

2) 마을만들기의 조건

위에서 거론한 5가지 목표가 실현된 마을이란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기본적인 기반과 시스템을 갖춘, 이른바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을을 실현시켜가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리한 보편적, 개념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동네 이미지의 확립

우선 필요한 것은 각각의 지역이 장래 어떤 마을, 어떤 도시를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이미지를 정하여 그것을 확정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都道府縣, 市町村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계획 내지는 장기 계획에서, 공통적 테마로 제시되고 있는 「모두가 풍요롭게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마을」과 같은 이미지와 이념을 지역의 실태에 맞도록 구체화, 상세화 하는 것이다. 그것은 행정당국이 행정상의 과제로서 정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주민이 원하는 이미지로 해야 한다. 당국은 이것을 축적함으로서 과제를 정리하고 지역장래 이미지를 확정해야 한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캐치플레이즈적 의미가 아니며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경관이나 환경 등 공간적 이미지 또는 面적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생활수준 그 자체의 구체적 개선목표, 말하자면 시빌미니멈(Civil minimum)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란 단순히 도시계획적 또는 물리적 계획에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 건강을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한 시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시빌미니멈을 핵으로 한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을 실현해 가기 위해 정부의 법, 제도, 구조 자체의 개혁도 필요하다. 그리고 都道府縣이나 市町村의 역할 자체도 수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2) 도시가꾸기의 목표를 전환할 필요

우선 도시가꾸기 목표, 수단을 산업기반 중심에서 주민생활에 충실하는 바

탕으로, 즉 일시적인 경제효율 지향에서 지속적인 생활중시로 전환해야한다. 가령 물적 정비를 주로한 공공투자 배분을 수정하여 사회보장, 사회보건, 생활 관련 사회자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것은 주민의 인권, 참가, 연대, 공평등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인 것이며, 방향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은 다시금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3) 지방 분권

행·재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었음이 지역독자의 마찌즈꾸리에 얼마만큼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문제는 지방의 시대에 있어 쌍방간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고 전국자치단체가 개성적, 자주적 마찌즈꾸리 추진을 위해 합심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4) 주민참가의 원칙화와 정보공개

마을만들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제 일차적으로는 市町村 자치체라 하더라도 마을만들기는 행정만에 의해서는 될 수 없다. 행정과 주민이 마차의 수레바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계획작성 및 추진 과정에의 주민참가는 불가피 하다 하겠다.

예로서 시즈오카현 가케가와시(静岡縣 掛川市)의 토지조례제정과정과 동 조례에서의 주민참가 조항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동시에 그 계획에 기초하여 실제 마을만들기의 과정에 주민이 관여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공람, 공청회 제도는 형식화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재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실질적 참가」인 것이다.

그 전제로서 정보공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치체중에는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요구에 응하여 공개를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보장하고 있는 곳이 많으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주민이 지역의 정보, 그 중에서도 정책정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실태에 즉응한 마을만들기에 참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보관계는 주민에 의한 마을 가꾸기의 대전제인 것이다. 자치제 역시 이를 위하여 정보를 시민의 평상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5) 주민의식의 전환

자치체가 마을만들기를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해도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자주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마을만들기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간적으로는 지금까지, 私的空間만 관심을 가질 뿐 公的空間에 무관심했던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권, 연대, 공정 등 사람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상관관계, 상호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마을(도시)이란 시민의식과 문화수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시민의 知的태만 상태에서는 시민 자치는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은 마을만들기에 있어서의 주민의식과 참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여기에서 리더의 존재가 큰 의미를 갖게끔 된다. 즉 어떤 지역에서든 한사람의 리더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리더에 의한 문제제기, 학습을 통하여 주민의식이 변형되어 가는 것을 지금까지의 마을 가꾸기의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 자치의식이 국정 선거에서도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투표행동으로 나온다면 마을만들기의 상황은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해 갈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가」는 좋은 마을만들기만이 아니라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마을만들기의 구조

(1) 종합적인 시설만들기

우리들 마을은 도로, 건축물, 수목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시

설이 뿔뿔이 흩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만들기가 필요하다.

하나 하나의 개별시설은 반드시 주변이나 다른 시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인 전체가 마을을 만든다. 따라서 시설을 만들 때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시설, 주변에 있는 시설, 그리고 녹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설과 극단적으로 다른 시설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2) 조직만들기

마을만들기는 개인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 조직에는 ①미래를 향한 계획이나 구상을 생각하는 조직 ②계획이나 구상을 종합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는 관심이나 힘을 모으고 조합하며 장애를 뛰어 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직 ③이러저러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가 조직 ④생활의 모순이나 충돌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조직 ⑤완성되어 있는 시설이나 제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직 ⑥사람들을 교류시키고 교육시키는 조직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만들기를 위해서는 시민과 자치단체의 신뢰회복, 자치단체의 변화, 공무원의 참가, 협정이나 현장과 같은 마을만들기 규칙, 자치단체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조직결성 등이 요구된다.

(3) 작업장 만들기, 여가공간 만들기

작업장 만들기는 일하고 수입을 얻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고, 여가공간 만들기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지는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일상생활의 알맹이가 있는 충실도 지역의 최종목표이다.

따라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의 생활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사람만들기

마을만들기는 사람만들기이다. 즉,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의 특성을 알고, 마을을 사랑하는 향토애를 가지고 협동하여 노력할 때 가능하다. 사람만들기는 향토애를 키우는 것이고, 마을의 아름다움, 온화함, 친절함 등이 마을에 호소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나 노인도 항상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마을을 보다 잘 만들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입장에서 마을만들기를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즉,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나아가 모범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능한 현장리더가 요구된다.

(5) 사업일으키기

사업이란 이벤트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매몰되었던 것, 눈 밖에 벗어나 있던 것을 다시 부흥시키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다음 행사나 시설만들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여 협동으로 작업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만들기도 가능하게 된다.

심포지엄, 마라톤 대회 등의 스포츠 이벤트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일으키기이다. 이외에도 음악제, 연극제, 영화제 등도 있으며,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고향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사업일으키기는 대개 즐겁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단점이다. 행사를 하는 그 당시만 에너지가 발산되는데 그쳐 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일으키기는 그 당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연결되기 위한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그것이 사업을 발전시켜 다음의 사업을 촉발시키

고 나아가 시설만들기를 효과적이게 하고 조직만들거나 사람만들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

3. 마을만들기 사례

1) 시민이 만드는 마을만들기 구상 : 오사카부 도요나카시⁵⁾

(1) 시의 개요

도요나카시는 오사카시의 북쪽에 위치한 면적 36.6km², 인구 약40만 명의 도시이다. 원래는 오사카시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도시로써 발전해 왔지만, 교통의 요충지로써 교통이 편리할 뿐아니라 일본 신문사의 전국 조사에서도 「가장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마을」로 최우수 도시에 뽑히는 등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5년 1월의 한신·이와지(阪神·淡路) 대지진으로 15,000세대가 넘는 피해를 입었지만, 그 교훈을 살리면서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에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 시의 마을 만들기 특징

도요나카시는 1996년도 「윤기와 활력이 넘치는 마을 ~ 주민참가의 마을 만들기 부문」에서 「우량 지방공공단체·자치대신표창」을 받았다. 시내 각지에서 시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동과 「마을 만들기 조례」를 비롯하여 시민의 지원책을 받아온 시의 노력이 표창의 대상이 되었다. 도요나카시의 마을 만들

5) 자치제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시민이 만드는 마을만들기 구상: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미리내 제16호, 1998.9에서 발췌.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기는 「시민 모두의 계획, 관청의 지원」이라는 발상 위에 행하여 졌으며,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의 지원하는 방법을 철저히 지킨 것이 큰 특징이다.

(3) 시민주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시작

10년 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마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요나카시역 근처의 침체된 상가에 대하여 위기감을 가진 젊은 상업자들이 판매 촉진 활동을 위한 이벤트를 행하기 시작하였으나, 끊임없는 교통혼잡과 마을의 중심 변화에 의한 「쇠퇴의 조짐」을 느낀 그들은 「마을 창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판촉활동에만 멈추지 않고 마을 창조의 활동리더로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요나카시에서 「도요나카시 산업진흥 비전」을 책정하였는데 이것은 「산업진흥과 마을 만들기의 일체화」를 제창하고, 시민·사업자·행정의 「제휴와 분담」이라는 方策을 중시하였다.

시는 이 비전의 추진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시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의 노력은 그 이외의 地域에도 발전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상업지 7지구, 주택지 6지구로 확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주적인 연구회와 이벤트, 공개토론 등의 활동과 함께 (후에 조례로 제도화되었지만) 협의회 등의 조직 구성, 마을 만들기 구상 정리 등 적극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4) 마을 만들기 조례

시는 이러한 시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 실적에 입각하여 1993년 1월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도화하였다.

조례의 기본이념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시민 상호 및 시민과 행정의 신뢰와 이해 및 협력에 의한 시민의 자발적인 발상과 시민과 행정의 제휴 및 분담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창의와 연구이며, 행정은 「지원」하는 입장이라는 자세가 조례에 명확히 명기되어 있다.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의 범위는 사업개시까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지의 단계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을 만들기 협의회

스스로 지역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시민 조직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시장의 자문기관인 「마을 만들기 전문가 회의」의 의견을 들어 시장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인정할 수가 있다.

- 해당 지역주민(거주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도 포함)으로 구성된다.
- 「마을 만들기 구상」의 책정을 내용으로 한 활동을 행하고 있다.
- 활동이 지역주민의 다수 지원을 얻고 있다.

현재 조례에서 인정된 조직은 「도요나카역 주변 마을 만들기 협의회」 등 2개가 있다.

② 마을 만들기 구상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마을 만들기 구상을 책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에게 공표함과 동시에 시장에게 제안할 수가 있다. 지역주민은 해당 구상에 근거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전념해야 하며, 시장은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책정·실시에 있어 해당구 상을 배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2개의 협의회로부터 구상이 제안되고 있으며, 도요나카역을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민 독자의 활동거점으로 「마을 만들기 센터」가 개설되어 있다.

③ 조성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협의회와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한 지역 주민의 조직(마을만들기 연구회)에 대해 시는 기술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마을 만들기의 진행 방법(조례의 수비 범위는 ①~⑤까지)
①마을 만들기의 發意→②마을 만들기 연구회의 결성→③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결성→④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인정→⑤마을 만들기 구상의 제안→⑥구상·실현을 위한 활동→⑦마을 만들기의 실현

(5) 마을 만들기 지원실

도요나카시 정책추진부「마을 만들기 지원실」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이다. 마을 만들기 초기에 관한 종합상담을 하는 이외에 마을 만들기 지원팀(시의 마을 만들기 담당의 각 분야 직원으로 구성) 및 어드바이저, 컨설팅(전문가)의 파견과 마을 만들기 포럼(현재까지 100회 이상)과 마을 만들기 실천대학의 개최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다.

(6) 맺음말

시는 도요나카역 주변에서 시작된 마을 만들기 운동 및 협의회가 내놓은 마을 만들기 구상을 받아들여 작년 5월「도요나카역 주변 마을 만들기 기본 방침」을 책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거리의 區別에 따라 상세한 방침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 전제는 행정과 시민이 교통혼잡의 해소, 안전한 보행자 공간의 확보, 재해에 강한 마을의 확립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통인식하고 있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에 따른 행정과제가 하나하나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 행정측의 일방적인 지침이 아니라(여기에 이르기까지의) 시민의 마을 만들기 활동과 행정지원에 근거하며, 시민간 혹은 시민과 행정간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공통이미지가 생겨, 마을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도요나카시의 시민과 행정이 일체가 된 마을 만들기는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만하다.

2) 전국 막걸리 서밋 : 가가와현 토요나카초(香川縣 豊中町)⁶⁾

(1) 두루마리 2권, 비전(秘傳)의 양조법

토요나카초(豊中町)는 일본열도의 배꼽부분에 해당하는 가가와현(香川縣)의 서쪽 일본열도 남북의 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기후는 온난하며,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막걸리 제조의 마을이며, 탁주를 신들에게 봉납하고, 축제에 모인 사람들에게 향응을 베푸는 「막걸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토요나카초는 「막걸리 서밋」의 개최를 위해 한창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신은 술제조의 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만들어진 神酒(신에게 올리는 술)는 고대의 神酒釀造法에 의해 300여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1900년에 自家製酒造가 금지된 후에도 이 우가신사 등 전국 40여 개소에서 막걸리 양조가 허가되고 있다.

도요나카초의 釀造는 春酒와 秋酒의 연2회, 春酒는 이세(伊勢)신궁에 봉납하고, 秋酒는 일반 참배객에게 대접하고 있다. 秋酒는 9월 중순경에 빚어, 완성까지는 약 20일 정도 걸리며, 양조법은 두루마리 2권에 총정리되어 있어, 술을 만드는 직공 이외는 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

소쿠리를 이용하여 술 빚는 제조법은 비밀중의 비밀로 여기고 있고 이것에 따라 맛과 향이 결정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6) 자치제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막걸리 서밋 : 가가와현 토요나카초(香川縣豊中町), 미리내 제23호, 2000.8에서 발췌.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2) 커뮤니케이션의 유대관계

축제를 지탱해 온 조직은 봉납회(奉納會)이며, 戰時中 막걸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지역 유지들이 모여 존속시키고자 나선 것이 이 봉납회의 시작이었다.

회의 구성인원은 약 30명으로 인접 자치회에서도 참가하고 있다. 막걸리 축제 이외에 소규모 축제까지 포함하면, 연간 12회의 축제가 있고 축제마다 준비, 접대, 미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막걸리축제 때가 되면 양조기술자 시중을 드는 사람은 집에서 편안히 지낼 시간이 없다. 대표간사인 주도미츠요시(十島光義)씨는 「전시중인 식량난 시대에 자신들의 먹을 양을 줄여서라도 축제를 존속시키려고 쌀을 가지고 왔던 점, 그리고 젊은 양조기술자가 육성되어졌던 점, 이 두 가지가 현재에도 막걸리 제조와 축제가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완고하게 지켜온 전통과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의 토요나카초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3) 리더 육성

10월 서밋의 키워드는 「흔타하지 않는 마음」, 캐치프레이즈는 「마음속의 토요나카, 술의 고향」입니다. 토요나카초도 최근 노령화, 少子化가 진행되어 젊은이의 지역이탈이 눈에 띄고 있어, 「사람에게 다정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보육소의 보육시간 연장, 재택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어린이 양육 지원서클 개설, 보육소 아동과 중학생도와의 교류회 등의 少子化 대책과 주택개호 지원 센터 개설 등의 노인복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노인클럽이 주체가 되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노인을 방문하여 노인끼리의 환담이나 간단한 가사를 돕고 있다. 흔타하지 않는 마음, 「마음의 한 가운데」라는 말은 「사람에게 다정한 마을 만들기」의 정신을 「마음」

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서밋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지로부터 온 손님을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다. 서밋의 개최는 지역의 리더가 되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서밋의 실행위원회로서 町 商工會 女性部, 女性會議 등의 각종 단체만이 참가했었는데 이번 서밋에서는 지금까지 사람 앞에 나서지 않았던 여성과 청년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중에 이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실행위원회의 준비단계에서 인재 발굴과 육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밋을 지역의 새로운 리더만들기의 출발점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결실을 맺을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축제는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혼탁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막걸리축제를 토요나카 마을의 중심축으로서 주민과 일체가 된 지역가꾸기, 인재육성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지역문화를 숙성하여 자량과 보람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지역만들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마을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 결 성 시 기 : 1997년 10월, 오이타현 大田村에서 1회를 개최
- 목 성 : 전국 막걸리의 유래가 있는 지역이 함께 모여, 막걸리 문화의 계승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일본술의 뿌리를 찾고, 지역 간 교류를 추진하며, 지역 진흥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 개 최 방 법 : 매년 참가 市町村을 돌아가며 개최
- 참가자치단체 : 6市町村(1999년 10월 현재)

3) 도깨비전설의 마을만들기 : 교토부 오에정(京都府 大江町)⁷⁾

(1) 오에(大江)町の 개요

大江町은 京都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토시에서 100Km, 오사카시

7) 자치제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도깨비전설의 지역만들기 : 교토부 오에정(京都府 大江町), 미리내 제14호, 1998. 3에서 발췌.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에서 115Km 지점에 있습니다. 인구 약6,000명, 총면적은 96.81km²이고 그 중 약 80%가 삼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町の 중앙에는 유라가와(由良川)강이 흐르고 있고 북부에는 도깨비 전설이 많이 남아있는 오에야마(大江山)가 있다.

(2) 마을만들기 활동 경위와 현황

1982년 町内に 철도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을 계기로, 町에서는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계획 정비에 착수했다. 검토 단계에서는 다수의 지역정비 전문가를 받아들여 「지역 만들기 연구회」를 설치하고, 2년에 이르는 검토 끝에 지역 자원을 살린 개성의 연출과 지역문화의 재생을 앞으로의 지역 만들기의 중심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도깨비 전설에 새로운 창조적인 면을 더해가며 소프트, 하드양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 넘치는 지역만들기가 전개되었다.

① 大江山 슈텐(酒呑) 동자 축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전 주민의 축제「大江山酒呑童子 축제」였다. 酒呑 동자는 유명한 도깨비 전설에 등장하는 도깨비의 이름이지만, 町이 의도하는 것은 이 이벤트를 통해 도깨비는 악역의 대명사가 아니라, 大江山의 도깨비가 지역 주민에게 있어 얼마나 친근감 있는 존재인가



를 깨닫도록 하고, 다음 사업의 발판이 되는 자신감과 의욕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축제에서는 도깨비 무사행렬(같은 도깨비 전설이 남아있는 일본 각지에서도 참가), 도깨비 가장 콘테스트, 도깨비와 관련한 예능대회, 스포츠 대회와 전시 판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 내의 모든 조직이 참가하는 성대한 이벤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축제 전체 참가자는 약1만 명이고 이중 약 6,500명이 외지인이다.

② 大江山역 정비

하드웨어적인 사업의 중심은 驛前정비 사업이다. 大江町の 현관인 驛前に 총사업비 14억 6,233만엔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상업시설을 집적(集積)시켜 1987년에 모든 시설을 완성하였다. 大江驛前 시설은 ①종합회관 ②역사병설(並設) 상공물산 회관 ③도깨비 기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회관은 RC건축방식의 2층 건물로써 총 면적은 약 3,897㎡이고 町 청사와 커뮤니티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커뮤니티센터에는 음악홀(350명 수용)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도 1층에는 도서관, 건강상담실, 창작 활동실이 있으며 2층에는 시청각실, 성인교실 등 문화센터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역 빌딩과 상공물산 회관은 연결된 건물로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이고 총 면적은 932.7㎡이다. 역내에는 관광 토산품을 판매하고, 상공물산 회관에는 지역산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으며, 2층에는 도깨비 기와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장이 있다. 大江山 도깨비 기와 공원의 면적은 1만772㎡이고 ①축제광장(지붕이 있는 도깨비 회랑, 도깨비 얼굴이 있는 기둥회랑, 도깨비의 술분수, 도깨비 등잔, 로터리 등) ②이벤트 광장(수로, 식재) ③도깨비 산책로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원의 볼거리는 도깨비 회랑과 도깨비 얼굴 기둥 회랑으로 특히 전국의 도깨비 기와 제작자에 의해 손수 만든 도깨비 기와 72개가 한곳에 모여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전시물이다. 또 인접해 있는 도깨비 얼굴 기둥 회랑은 20개의 돌기둥에 개성적인 도깨비 얼굴이 새겨져 있다.

③ 도깨비 교류 박물관

세계의 도깨비 문화를 전시, 표현함과 함께 교류를 통하여 도깨비 문화의 이미지를 더욱더 창조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다. 일본 각지에 전해지는 도깨비에 관계되는 것, 도깨비 전설에 관계되는 것이 전시되어 있으며 내부의 교류홀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④ 도깨비에 관한 네트워크의 강화

- 일본 도깨비 기와를 보존하는 회의 설립(1988년 2월 설립, 회원 일본 전국에 30명)
 - 일본 문화 상징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도깨비 기와의 진흥과 후세 전승, 전시 보존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 설립, 수집한 도깨비 기와의 일부를 도깨비 얼굴 기둥 회랑에 영구 전시하고 있다.
- 일본 도깨비師(도깨비 가면 제작자)의 會 설립(1991년 2월 설립, 회원 일본 전국에 84명)
 - 도깨비師 서밋 1991이 개최되고, 여기서 전통적 도깨비 기와의 제작 기술 보존과 기술향상, 후계자 육성, 도깨비 기와의 발전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전국최초의 조직인 「도깨비師의 會」가 발족되었다.



⑤ 도깨비 서밋 개최(1993년 10월 일본 전국 12개 지역에서 40인 참가)

- 도깨비 전성을 살려 지역 일으키기를 행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제1회 서밋을 大江町에서 개최하였다.

⑥ 세계 도깨비 학회 설립(1994년 12월 설립, 회원 일본 전국 약600명)

- 전 세계의 도깨비에 흥미·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고대의 인류가 도깨비와 함께 즐겨온 유머와 사고방식을 접하면서 문화의 심층적인 면을 생각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넓힘과 동시에 풍요로운 미래 건설을 목표로 발족했고, 일본 도깨비 교류 박물관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3) 마을만들기에 있어서의 효과

지금까지 문화와 교류를 기본으로 하는 도깨비전설이라는 독특한 지역 자원을 살린 개성적인 지역 만들기를 소프트 사업으로 광역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들 일련의 사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 산촌지역,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어두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도깨비 전설을 통해 지역 만들기를 행하는 개성적인 町으로 지역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였다.
- 언론매체를 시작으로 외부의 전문가가 주목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외부방문객이 사람이 증가했다.
- 이벤트에 지역 주민이 참가함으로써 지역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다양한 지역조직이 결성되는 등 지역 만들기를 담당하는 인재가 육성되었다.
- 전국 규모의 휴먼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4) 활동에 있어서의 금후 과제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과를 지역산업의 육성, 젊은 층의 정착을 위한 시책과 연결시켜 지역 전체의 정비 전략에 어떻게 파급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도깨비 전설에 의한 이미지 전략」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곳에 있기를 잘했다고 실감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넓혀가면서 주민 스스로가 「우리들이 사는 지역을 우리가 좋게 만들어 가자」라는 의식을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4) 후쿠시마현(福島縣) 미시마정(三島町)⁸⁾의 고향창생운동

미시마정은 원래 쓰야마정(津山町)과 같은 산촌이었지만 이町의 최대 특징은 심각한 과소지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구는 1940년 당시 3,000명이었지만 1950년도에는 7,700명으로 증가했다. 그것은 奥只見 강줄기에 발전용 댐 건설 공사가 시작되어 많은 공사관계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완성을 앞두고 외지로부터 몰려온 공사관계자들이 떠나고 뒤이어 농사일을 가족들에게 맡기고 공사에 참여하여 현금수입으로 생활하

8) 미시마(三島)町 : 후쿠시마縣 서부에 위치. 면적 89.8km², 인구 3,047명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던 주민들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 도시로 전출하였으며, 동북전역에 몰아닥친 파소의 회오리 바람속에서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마저 町을 등지게 되자 1980년도의 國勢調査에서는 인구가 3,400명으로 번성기를 누렸던 때의 절반이하 수준이 되어버렸다.

특히 1965년도부터 1970년대에 걸친 5년 간의 인구감소율은 17.3%로 후쿠시마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오(佐藤)町長은 직접 인구의 유출을 막는 노력을 계속하기보다는 남은 주민들의 마음이 인구유출에 따른 황폐화를 막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결심하였다

고도성장시대의 대도시권에서는 고향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 고된 일을 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역시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미시마정은 그들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많은 도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고향으로 만들어 남아있는 주민들의 긍지를 높이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고향을 찾고자 하는 도시사람들은 미시마정에 연회비 1만엔을 지불함으로써 특별정민이 된다.

町은 고향公社를 만들고 이 회비를 재원으로하여 町에서 가장 아름다운 美坂高原에 산책로, 휴게시설을 정비함과 동시에 도시민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을 한 주민을 「고향집」으로 지정하여 숙박을 희망하는 특별정민을 알선해준다.

이른바 고향창생운동의 구상은 이렇게 하여 구체화된 것이다. 고도성장말기였던 1973년 일본경제신문이 이 구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전화나 편지를 통해 7,000건의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하였으며 東洋信託銀行은 이자를 연회비에 충당하는 고향창생신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처음에는 自治省이나 縣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 데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 운동에 대한 이러한 호응이 町에게 용기를 주어 실행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1974년도 이 운동을 시작하자 600세대가 특별정민이 되었으며, 그 다음 연도에는 이 숫자가 850세대로 늘어나 특별정민이 町에 떨어뜨린 돈은 회비, 숙박비, 토산품 구입대금 등을 합쳐 연간 7,000만 엔이 되었다.

“인구의 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町에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만은 어떻게 하든 막아야한다”고 하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던 일종의 정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신운동이 고향창생산업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것이다.

미시마정의 고향창생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름다운 자연과 소박하고 친절
절한 마음이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소재를 단순히 조합해서 나온 아이디어
하나가 침체해 있던 소도시 미시마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전국 각지에
이와 유사한 운동을 확산 시켰다.

이제는 고향창생운동끼리의 경쟁이 격화되어 미시마정의 경우도 회원이 430
세대로 한때 번창했던 시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나 고향창생운동의 최초 발상
지로서 전국에 봄을 불러 일으켰던 자신감이 새로운 산업을 이 고장에 잇달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町이 현재 특히 힘을 쏟고있는 것은 생활
공예품 만들기이다. 거의 1년 중 절반을 폭설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 동안 가마니를 짜기도 하고 농부의 옷을 기우는 등 눈이 녹음과 동시
에 시작하는 농사일 준비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농업이 기계화되고 농업자재로 화학제품이 나오는 등 준비기간이 필
요 없어지자 동절기가 가져다 준 고통만이 커졌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발상이 발단이 되어
현대에도 통용되는 농기구와 민예품을 만드는 주민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성
과를 발표하기 위해 매년 1회씩 개최하는 생활공예전에는 예나 지금이나 100
명 이상의 주민이 출품하여 계속 우수한 작품을 모으는 전시즉석판매회를 동
경에서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어렵고 고된 나날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기술자 양성에 성
공한 결과 지금은 町의 중심부에 22개의 오동나무장을 상시 전시하는 판매시
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오동나무장은 이제 町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산업으로까지
성장했다.

미시마정의 과소현상은 여전히 지속되어 1985년도 國勢調査 결과 3,200명으
로 5년 동안 200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사도오(佐藤)町長の 자랑의 하나는 노
인을 중심으로 주민의 표정이 평소에 비해 근래에는 더욱 밝아졌다고 하는 점
이다. 고향창생운동으로 시작한 일련의 지역만들기의 시도가 황폐했던 주민들
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했기 때문인 것이다.

제3절 사례의 비교

1. 내고장 사랑운동 비교

지금까지 국내의 고향사랑운동인 대구사랑운동, 내사랑부산운동, 대전사랑운동, 경남사랑운동의 사례와 국외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4개 자치단체 모두 경제, 문화·예술, 환경·녹지부문은 공동적으로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반면, 관광과 사회복지, 국제교류는 1개 자치단체만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4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와 문화, 환경부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발굴 및 상품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의 세부사업내용은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대구의 경우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담장허물기·섬유축제·약령시·지역특산품 공동브랜드 제작, 부산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참여·담장허물기 등이 상징적인 사업이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7> 자치단체 사랑운동간 중점과제 비교

구 분	대구사랑운동	내 사 랑 부 산운 동	대전사랑운동	경남사랑운동
경 제	●	●	●	●
문화·예술	●	●	●	●
역사·전통	●	●		●
인 재	●		●	●
환경·녹지	●	●	●	●
사회복지		●		
교통·도시안전		●		●
도시만들기	●		●	
국제교류		●		
정신·의식		●	●	●

제 3 장 내고장 사랑운동 사례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에서도 가능한 한 행정은 사업추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실질적으로 재원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대부분의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패는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용 및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한 사업의 대부분은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노력과 행정의 적극적인 후원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고장 사랑운동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협력하는 민관협력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때만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내고장 사랑운동과 마을만들기 비교

마을만들기는 물적인 환경정비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형성을 위한 각종 노력과 운동이며 추진주체는 주민참가이다. 마을만들기는 인권의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과의 공생, 개성있는 마을, 중심가 만이 아닌 뒷동네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고향사랑운동과 그 추구하는 목표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마을만들기는 그 자체가 행정기관의 공식조직 내에 녹아들어 주민의 발의에서 출발하여 조직화단계, 주민활동단계, 계획구상단계, 시행계획작성단계, 사업실시 단계의 수준을 거쳐 이루어지면서 이 과정에 행정기관은 컨설턴트 파견,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단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 또는 그 이후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고향사랑운동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부재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민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향사랑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점, 주민조직들이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까지 행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정기관에서 사업수요로 책정하고 있는 점, 지역의 특징이나 개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지 않은 백화점식 사업나열,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지원부재, 기본계획 미작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4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제1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1. 충청남도 5대 사랑하기 운동

1) 추진배경

무질서, 비능률, 부조리 등 과거 후진적 의식 행태의 굴레를 되풀이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침체·이완되고 있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건설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절의 고장으로서의 전통을 지키고 충남인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발휘하기 위한 범도민적 약속과 규범으로 정해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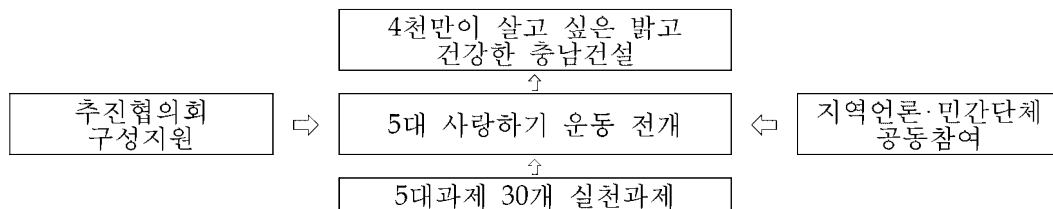
2) 기본방향

새로운 21세기 선진도민이 지켜야 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각 계층에서 손쉬운 것부터 한가지라도 실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한다.

민간단체 주도로 지역언론과 연계하여 파급효과를 확산함으로써 모든도민이 『5대 사랑하기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한다.

3) 추진계획

(1) 추진흐름도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2) 추진전략

5대 과제	30개 실천과제
①가정 사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정 1가훈 갖기 • 고향부모 찾아보기 • 가족과 문화행사 참여하기 • 과다혼례 비용 줄이기 • 쾌적한 가정 만들기 • 가족과 자주 대화 나누기
②이웃 사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이웃·장애인과 결연하기 • 이웃간 상호 칭찬·격려하기 • 독거노인 안부확인하기 • 애경사 참여하기 • 실직자,소년소녀 가정돕기 • 내가먼저 인사하기
③직장 사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직장동료 도와주기 • 직장가꾸기의날 운영하기 • 직장동아리 참여하기 • 모범사원선발 표창하기 • 1일 대표사원제 운영하기 • 1일 1동료 칭찬하기
④지역 사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고장 특산물 애용하기 • 불법 쓰레기 안버리기 •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하기 • 생활주변 나무심기 • 자원봉사 생활화 하기 • 지역문화 선양하기
⑤나라 사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열유적 찾아보기 • 국가유공자 돌보기 • 지역갈등 조정 안하기 • 부정·부패 추방하기 • 국경일 태극기 달기 • 나라꽃무궁화 가꾸기

(3) 추진방법

1단계(점화)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마을·직장·학교·단체 등 참여주체별로 시범과제 선정 추진 - 캠페인, 사례발표 등
2단계(확산) 200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참여주체별로 1개 과제 선정 추진 - 대대적 실천운동 전개 등
3단계(정착) 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도민 자율참여 실천분위기 대대적 전개 - 범도민운동으로 승화 발전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4) 참여주체별 실천방향

가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훈, 가풍 등을 고려하여 실천과제 선정 • 가정주부의 선도적 역할로 가족의 실천 촉구
마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전통계승 차원에서 실천과제 선정 •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
직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원의 총의에 의한 화합 실천과제 선정 • 간부급 직원 솔선참여, 노조(종업원) 주관 추진
학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중점으로 선정 • 학교운영위, 교사회, 학생회를 통한 실천 강조
사 회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별 설립목적에 적합한 실천과제 선정 • 소속단체 회원 중심 동참분위기 확산 전개

4)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1) 가정사랑하기 운동

- 1가정 1가훈 갖기
 - 지역유림회, 노인회 중심 가훈 써주기운동, 가훈전시회 전개
- 과다혼례비용 줄이기
 - 주중·야간결혼식하기, 과다혼수 안하기 운동 등
- 고향부모 찾아보기
 - 안부전화하기, 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부모생일상 차려드리기 등
- 쾌적한 가정 만들기
 - 쓰레기분리수거하기, 정례집안청소하기, 집안일 서로도와주기 등
- 가족과 문화행사 참여하기
 - 한달 한번 이상 영화, 공연관람, 미술관, 음악제 등 참여하기 등
- 가족과 자주 대화하기
 - 매주 토요일 가족대화의 날 운영, 부모, 자녀의사 존중하기 등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2) 이웃사랑하기 운동

- 불우이웃·장애인과 결연하기
 - 불우이웃 서로 돌봐주기, 사랑의 음식 나눠먹기 등
- 애·경사 참여하기
 - 마을단위 친목회 활성화하기, 애사시 내일처럼 돌보기 등
- 이웃간 상호 칭찬·격려하기
 - 작은일에도 관심갖기, 마을단위 경사 전파하기 등
- 실직자, 소년소녀가정 돕기
 - 마을청년회, 부녀회 등 중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활동 전개 등
- 독거노인 안부 확인하기
 - 마을 리·통장, 반장 수시 방문 거동 살펴 드리기 전개 등
- 내가 먼저 인사하기
 - 이웃간 아침 인사하기, 마을방문 외래객에 먼저 인사하기 등

(3) 직장사랑하기 운동

- 불우 직장동료 도와주기
 - 불우직장동료를 내가죽처럼 생각하기, 위안의 말 전하기 등
- 모범사원 선발 표창하기
 - 선행사원, 근무실적 우수사원 등 선발 표창하기 등
- 직장가꾸기의 날 운영하기
 - 매주 사무실, 작업현장 대청소실시, 공용물품 내것처럼 아끼기 등
- 1일 대표사원제 운영하기
 - 직(사)원의 직장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간부직원의 고충 체험 등
- 직장동아리 참여하기
 - 1인 1취미클럽 참여하기, 동아리활동 적극 지원 등
- 1일 1동료 칭찬하기
 - 직장동료 릴레이 칭찬운동 전개, 남의 말 좋게 하기 등

(4) 지역사랑하기 운동

- 내고장 특산품 애용하기
 - 지역특산물 팔아주기, 선물하기 등
- 생활주변 나무심기
 - 가족생일, 마을, 지역단위 행사시 1그룹 나무심기 운동 전개등
- 불법 쓰레기 안버리기
 - 쓰레기 되가져오기, 규격봉투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하기 등
- 자원봉사 생활화하기
 - 지역행사 참여, 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동참하기 등
-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하기
 - 지역문화제, 체육대회, 백일장 등 솔선 참여하기
- 지역문화제 가꾸고 선양하기
 - 위인·열사 바로알기, 지역 위협선양물 가꾸기 등

(5) 나라사랑하기 운동

- 선열유적 찾아보기
 - 충신, 효자, 열녀 등 문화유적지 순례, 답사하기 등
- 부정·부패 추방하기
 - 불법공사, 부정행위, 무질서 현장 등 신고의 생활화하기 등
- 국가유공자 돌보기
 - 일손돕기 전개, 공적내용 바로 알고 선양하기 등
- 국경일 태극기 달기
 - 태극기 보급운동, 이웃에 권고하기 등
- 지역갈등 조장 안하기
 - 지역갈등 말 삼가하기, 이웃을 고향 가족처럼 생각하기 등
- 나라꽃 무궁화 가꾸기
 - 생활주변, 가로공원 등 무궁화 심고, 가꾸기 등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5) 실천방안

(1) 각종 교육기회를 통한 도민운동 교육의 강화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 공무원교육원, 운수연수원, 청소년수련원 등
 - 운수연수원, 복지농도원 등 각급 민간교육시설에도 참여 권유
- 사회교육을 통한 교육
 - 생활문화 강좌, 주부·시민대학, 노인대학, 도의교육 등
- 각종 시책교육을 통한 교육
 - 예비군·민방위교육, 집객·식품업소 종사자 교육
 - 동계 농민교육, 경제교육, 시·군정보고회 등 활용

(2) 홍보활동 강화 및 실천분위기 확산

- 실천다짐대회 및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개최
 - 실천다짐대회 : 민간단체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추진
 - 사례발표대회 : 계층별, 수범사례 발굴 시상 등
- 지역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우수·수범사례 발굴 지역언론 활용 적극 보도
 - 도정신문, 시·군정 소식지, 광고지 등 게재 활용 홍보
- 캠페인, 홍보물 제작 활용
 - 지역별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현수막, 플래카드 게첨, 홍보전단, 팸프렛 제작 배포 등

2. 보령사랑운동

1) 추진배경 및 의의

- 민선2기 시정 출범과 함께 위대한 보령시민의 시대 개막선언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자율과 참여, 화해와 협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 노력 요구
 - 애항심을 바탕으로 한 내고장 경제살리기 총력 경주
- 자연환경 보전과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시민 우상제고 필요
 - 시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차원 높은 문화도시 창조

2) 성격

- 뜨거운 애항심과 자주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자율실천 운동으로서 모든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운동」, 언제 어디서나 전개되는 「일상생활운동」,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운동」, 자신이 실천주체가 되는 「자기 실천 운동」이며
- 모든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만세보령 행복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운동임

3) 실천방향

(1) 실천주체

- 보령사랑운동은 보령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하는 시민운동으로 보령사랑운동의 실천주체는 「보령시민」 모두임.

(2) 실천방향

- 보령사랑운동 8대 분야별(보령의 자연사랑, 환경사랑, 시민사랑, 문화사랑, 경제키우기, 시민정신갖기, 고향사랑, 충·효·예정신 발양) 실천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역동적으로 추진
- 실천과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여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민생활운동으로 추진
- 일과성 운동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요로운 만세보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령 건설을 위한 지속적 실천운동으로 추진

- 보령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슬기를 모아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보령시민 행복공동체 실현

4) 실천계획

(1) 추진방침

- 보령시장의 모든 시책을 보령사랑운동과 연계 추진하되 분야별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실천과제 위주 선정 추진
- 우수실천사업에 대한 시상과 홍보로 범시민적 실천 유도
→ 모든 시민의 참여와 화합 속에 범시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승화

(2) 실천계획 개요

- 추진주체
 - 제1단계로 행정이 주체가 되어 보령사랑운동을 추진하되 보령사랑 시민모임 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모든 시민모임, 회원단체 동참 유도 ⇒ 모든 시민 참여속에 보령사랑 실천
- 추진기간 : 연중
- 실천과제 : 8대 분야 87개 과제 176실천덕목

분 야 별	실 천 과 제	실 천 덕 목		
		계	시본청,사업소	기관단체
계	87	176	111	65
자 연 사 랑	생활주변 나무사랑등 8개	22	7	15
환 경 사 랑	환경보전운동전개등 15개	33	24	9
시 민 사 랑	시민만족 봉사행정 21개	61	34	27
문 화 사 랑	봉 수 대 복원추진등 10개	19	12	7
경제 키우기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등 13개	16	14	2
시민정신갖기	보령사랑옹변대화등 12개	14	12	2
고 향 사 랑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등 4개	4	3	1
충·효·예정신발양	어린이 예절교육등 4개	7	5	2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3) 시민 자율실천모임 확대 운영

- 그 동안의 모임 구성체
 - 보령의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99. 9. 10)
 - 물사랑 어머니회 ('99. 11. 4)
 - 보령사랑 4개 분과위원회 구성 ('99. 9. 10)
- 시민자율실천모임 확대방안 강연
 - 기존의 기능단체를 보령사랑 자율실천단체로 참여 유도
 - 시본청 및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보령사랑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시민 자율실천모임을 적극 유도

(4) 추진상황평가 및 홍보계획

- ① 추진상황 평가
 - 시 자체평가 : 각실·과 소관별 추진상황 평가 분석
 - 자체 평가 후 보고회 개최 : 반기별
 - 정 합 평 가 : 8대 분야별 연말 종합평가
 - 평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실
 - 평가결과 조치
 - 우수실천사례는 지속적인 실천운동으로 계승 발전
 - 추진상 문제점으로 돌출된 사항은 보완 및 개선
 - 파급효과 거양을 위한 우수사례 적극 홍보
- ② 홍보계획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령사랑운동 실천사례 적극 홍보
 - 유선방송, 지방신문, 보령사랑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파급효과 거양
 -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 강구
 - 보령사랑운동 홈페이지 시민 참여란 신설
 - 홍보아치, 현수막, 표찰, 홍보전단 제작 배포 등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③ 시상계획

- 연말에 우수기관·단체, 시민모임 등에 대한 표창
- 자랑스런 보령시민상으로 선발 자긍심 고취

5)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1) 자연사랑운동

○ 친자연환경조성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친자연환경조성 생활주변나무사랑	뉴밀에니엄 나무심기 새천년맞이 기념식수운동 전개 감나무가꾸기 2000년맞이 묘목나누어 주기 마을동산가꾸기	산림과, 보령의 숲과 나 무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천항 번영회
푸른산가꾸기 운동	범시민 식목행사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숲가꾸기 육림행사	보령의 숲과 나 무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야생동식물보호 운동	자연생태계보호 야생화보호 야생동물보호	보령의 숲과 나 무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물사랑운동	물사랑 캠페인 전개 물사랑 교육 수장원 선진지 견학실시 물지키기 및 물사랑 운동	물사랑 어머니회
다시찾고 싶은 관광 지 조성	성주산휴양림 시비공원 조성 내고장 공원화 사업 장미거리 조성 피크닉장 조성사업	산림과 새마을부녀회 육장경영사업소 육장경영사업소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2) 환경사랑운동

○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환경보전운동전개	환경보전 월별주제 설정 운영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전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활동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보호실천운동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 환경되살리기 운동 내고장 물살리기 운동 용수로 뚝건기 운동	환경보호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환경보호학습장운영	1일 환경체험학교 운영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환경보호 환경보호
환경보호봉사대 운영	농촌사랑 환경파수꾼 운영 환경안내소 운영	미산농협 새마을부녀회
바다살리기 운동	바다(항·포구)쓰레기 청소 폐유 불법처리 근절 김·유기산 공급 및 사용지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방치폐어선 처리	해양수산
바다환경 정화	수중정화활동 대천항 바다청소	대천항 번영회

○ 맑고 푸른 친환경 조성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수질정화식물 식재	대천천 부레옥잠 식재 남포방조제내 부레옥잠 식재 웅천천 미나리밭 설치	환경보호
쾌적한 보령환경가꾸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업체 환경관리인 교육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보호
환경친화적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건설과
심원소하천시범정비	환경 친화적인 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관광 명소 조성	건설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12개 마을(읍면당 1개소)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 저공해 비누 공동제도 활용 마을꽃길 조성 화단가꾸기 시범농가 환경사랑 실천요원화	농업기술센터
슬러지 농가보급	생육실험 실시 시험재배 육묘용 상토대체실험 실시	환경사업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공동주택 미관개선	도색 등 자체 정비시 미관고려 채색 적극 검토 공동주택별 디자인 매뉴얼 제작, 배부 활동토록 유도	도시주택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의 단계적 정비 불법광고물 관리 예방활동	도의새마을과
체육공원조성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등	웅천읍 개발위원회

(3) 시민사랑운동

○ 정성을 다하는 시민봉사 행정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시민만족 봉사행정	시민만족을 위한 A/S제 운영 자랑스런 보령시민 100인 선발 1일 34통·리 안부전화제 운영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실
현장봉사행정	시정기동 순찰제 운영 사랑의 119봉사대 운영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 119해변구조대 운영 119소년단 수련캠프운영	종합민원실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
민원상담제운영	전문민원 상담실 운영	종합민원실
노인건강진료실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경로당 순회진료	보건소
도시계획사업(공사) 통합관리	시가지내 각종공사 일원화로 시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도시주택
상수도 누수예방	옥내 무료 누수탐사 누수신고자 보상제 실시	수도사업
세무상담운영 활성화	현장출장 세무상담 이동 세무상담실 운영 중소기업 세무상담자 지정운영	세무과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사회건설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저소득 시민의 자 립능력 배양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저소득층 취로사업	사회복지
지역인재 양성	보화장학금 지원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급	보령화력 사상실은 교통 봉사대
사회복지 담당공무 원의 의식혁신과 업무능력 배양	사회복지시설 현장봉사 실시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연찬회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장애인 등록범위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회복지
암검진사업 추진	모성암 검진 저소득층 암검진	보건소
불우이웃 사랑의 손길 나누기	사랑의 밑반찬 제공 결식아동과의 사랑나누기 수능고사 수험생 급수봉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사랑의 껌팔이 운동	시설관리사업소 새마을부녀회 모령시여성단체 협의회 보령화력 모범운전자회
노인건강돌보기	경로당 무료 이미용 서비스 무의탁노인 생활보조 불우 무의탁 노인돕기	시설관리사업소 교통봉사대 새마을부녀회
복지시설 위문봉사 활동	1일 부모되어 주기 보령사랑, 이웃사랑 시설아동과의 만남의 장 운 영 보령사랑, 이웃사랑 미용교실 운영 사회복지원 위문활동 전개	교통봉사대 주부들의 모임 여성자원봉사대 보령화력
이웃사랑 화합행사	보령사랑, 이웃사랑 사랑의 부부교실 보령사랑, 이웃사랑 어머니 한마당 개최 보령사랑, 이웃사랑 제1회 신가정 실천대회 군관민 위문 및 화합체육 행사 청자봉 사랑의 열매나눔터	여성단체협의회 주부교실 청년회의소 시설관리사업소
더불어 사회조성	노인효도관광 모범학생 및 우수졸업생 표창 보령사랑, 이웃사랑 시범학교 운영 효도관광 실시 이·면장 산업시찰 사랑의 가정만들기 합동결혼 영광의 보령인상 시상	새마을부녀회 청년회의소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보령화력 청년회의소 청년회의소
농업인 육성	4-H회 조직, 농촌청소년전문교육, 시범영농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농업인단체 한마당 축제	농업기술센터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 수요자 중심의 열린시정 운영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열려있는 시정	만남의 광장(시민휴식공간)조성 시설물 개방	회계과
납세자 봉사행정 및 권리보호	세무행정의 사전예고 공개 과세정보 비밀보호	세무과
보상편람 제작배포	시민재산권에 대한 사전안내, 설명으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정신뢰 제고	도시주택

(4) 문화사랑운동

○ 전통문화유산발굴 보전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봉수대복원 추진	5개소에 봉수대 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	문화공보담당관
독립유공자묘역정비	4개소의 묘역정비 및 진입도로 포장	문화공보담당관

○궁지높은 정신문화함양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만세보령문화제	한내국악제, 보령사랑 작은 음악회, 도미부인 경 모제, 시조경창대회, 민속경기 등	문화공보담당관
호국정신 계승	백야 김좌진장군 추모행사 김성우장군 추모행사 김성우 장군묘역 진입로 포장	문화공보담당관
도미부인정절정신 신앙	경모의식, 백일장 등	문화공보담당관
보령문화유적 총람 CD제작	보령의 문화유적 및 관광자료를 총망라한 CD 제작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분야 위원 회정비 및 운영활 성화	만세보령문화비전 2000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지명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
보령머드축제개최	머드체험이벤트 및 연계행사	관광교통
문화예술창작활동	보령화력 사진전 보령화력 사생대회 지역예술 창달 춤 공연 문예작품 공모전 개최	보령화력 대천어머니회 청년회의소
음악회 개최	보령사랑 신춘음악제 개최 무창포사랑운동 보령사랑 송년음악회	웅천주부합창단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5) 경제키우기

○ 우리공장 상품 애용운동 전개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우리고장상품 팔아 주기 운동	물품구입시 지역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도급 유도 지역중소업체 육성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제도 확대 실시	회계과
보령사랑상품권 유통확대	지역유통자금의 타지역 유출 방지 및 보령사랑운동으로 승화	지역경제
시재정수입 확충	담배애용에 따른 시재정 수입액 홍보	세무과
농산물 반짝시장운영	농산물 직거래 반짝시장 운영으로 판로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	산업과
대도시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관내 생산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장기적인 판로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생산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산업과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보령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내 생산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과

○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농촌여성소득원개발	한과, 콩나물, 포도즙, 청정목 등 자가생산된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제고 디자인개발 및 보완으로 제품이미지 개선	농업기술센터
남포간척지 쌀시범농장운영	벼우량 종자 증식보급 만세보령특미를 통한 보령쌀 홍보	농업기술센터

○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지역물가안정관리	물가관리추진체계 확립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물가자율 감시기능 강화	지역경제
고용안정 적극추진	고용촉진훈련 내실화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경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충남신용보증조합 기금 수출설명회 개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지역경제
농공단지 분양촉진	미분양 토지분양 촉진	지역경제
재활용품 사용 생활화	재활용품 경진대회 재활용센터 운영	새마을부녀회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6) 으뜸 보령시민 정신갖기

○ 으뜸 보령 시민정신 고양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보령사랑옹변대회	보령시장배 보령사랑옹변대회 개최	기획감사담당관
보령사랑실천수기공모	보령사랑운동 실천 감동과 훈훈한 이웃사랑 이야기	기획감사담당관
모범음식점 육성	시설청결, 특색음식 조리, 친절서비스 우수	사회복지
부창포 해수욕장 바닷길 열림상징탑	부창포해수욕장과 석대도간 바닷길 열림현상을 기념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	육장경영사업소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자원봉사활동지원체제 구축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현황조사 자원봉사지원체제 구축	도의 새마을과

○ 도덕과 인정이 넘치는 예절의 고장 재건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시민예절 교육	여성도의교실 운영외	도의새마을과
각급기관단체별 실천과제지정 및 다짐결의	친절, 국제매너, 직장예절 지키기 기관, 직능·사회단체별 다짐결의 대회 개최	도의새마을과
예절지도자 육성 및 시범마을육성	예절지도자 16명 예절시범마을 16개마을 예절시범업소 5개업소	도의새마을과
예의바른 이웃찾기 운동 전개	지역사회 각 계층에서 맡은바 도리를 몸소 실천한 자(학생, 여성, 직장인, 노인, 일반주민 등 계층별 발굴)	도의새마을과

○ 시민질서의식 함양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교통질서 확립 범시민대회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관광교통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안내 및 홍보물 배부, 교통통제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홍보	관광교통 모범운전자회
도덕, 질서지키기 캠페인	질서, 친절, 청결운동, 국기달기, 무궁화 심기, 예절 교육, 학원폭력, 충효사상, 거리질서	새마을부녀회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7) 고향사랑 운동

○ 내고장 애향정신 함양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	주민등록 일제조사 자진전입신고 유도 주민등록 직권 말소	자치행정
시정현장 시찰제	관내 주요시설 및 개발현장을 시찰하여 애향심 고취	기획감사담당관

○ 특색있고 개성있는 보령홍보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사업용차량 보령시마크 제작부착운행	사업용차량 보령시 이미지제고 및 시민의 애향심 고취	관광교통
무창포 시민의 바닷길 및 쭈꾸미 축제	천혜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에 대한 홍보로 관광이미지제고	웅천청년회의소

(8) 흥·효·예 정신 발양

○ 전통미풍양속 앙양 발굴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어린이 예절교육	충효예교실 운영 예절비점학교 운영 꿈나무 교실운영	사회복지 보령교육청 미산농협
경로효친앙양사업	어버이날 행사 경로의 달 행사	사회복지

○ 충남정신 발양

구 분	세부실천계획	추진기관
충남정신발양 웅변대회 개최	충남 5대정신을 소재로 한 웅변대회	
효자, 효부발굴표창	모범가정, 효자, 효부, 모범청소년 6명	도의새마을과

3. 예산사랑운동

1) 추진배경

- 제2기 민선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 도모
- 새로운 천년을 맞아 우리고장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전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
- 전통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풍요와 온정이 넘치는 충효의 고장 육성

2) 의의

- 고향사랑운동은 뜨거운 애향심과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운동, 언제 어디서나 전개되는 일상생활 운동, 일시적인 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운동,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실천운동임.
- 전군민과 출향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충효의 고장 예산, 잘사는 예산, 활력이 넘치는 예산을 건설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루고자 하는 운동임.

3) 실천방향

- 군민정신을 새롭게 정립하는 지역발전 운동으로 전개
- 수준 높고 성대한 문화행사로 문화군민 자긍심 고취
- 모든 군민이 쉽게 실천 가능한 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

4) 실천과제

- 우리고장 충효정신 바로세우기 : 충효와 애향정신 정착
- 예산경제 살리기 :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산건설
- 우리고장 전통문화 꽃피우기 : 전통 고유문화 계승 발전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 쾌적한 예산 가꾸기 : 자연을 보존하는 쾌적한 고장 건설

5) 추진방침

(1) 세부추진계획 수립

-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읍·면장은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각 실과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
- 고향사랑운동은 출향 인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실천운동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2)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고 : 적극적인 홍보
 - 군 : 소식지, 유선방송, 지역언론사 자료 제공
 - 읍·면 :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각종 회의시 홍보
-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활동)에 고향사랑운동을 포함하여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군민의 자율참여 유도

(3)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추진실적은 매월 5일까지 군 기획감사실로 제출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6)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업
우리고장 바로세우기 충효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효정신 고향 • 효실천 범군민운동 추진 •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생활수준 향상 • 효실천 참여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 효행자 표창 및 효행록, 효만화책 발간 • 문화유적지 견학
예산경제 살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고장 상품 구입하기 •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추진 • 자동차 차적옮기기 •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아파노 이동장터운영 • 우리지역 발주공사 용역시 지역업체 선정
우리고장 꽃피우기 전통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헌문화재 거군적 추진 • 추사문화재의 내실운영 • 내고장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 정감어린 고향사랑운동 전개
쾌적한 예산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고장 가꾸기 꽃심기운동 전개 •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 기초질서확립 추진운동 전개 •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 • 관광지 주변 정비로 관광루트화

7) 고향사랑운동 평가

(1) 총평

- 고향사랑운동 추진은 개인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효실천 운동과 더불어 전통적인 지역특성을 살려 풍요와 온정이 넘치는 충효의 고장 예산군의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2) 주요성과

- 우리고장의 충효정신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생활수준 향상과 식품접객업소 효실천운동 전개, 효도시범마을 육성 등 적극적인 효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실천운동 추진으로 충효와 애향정신 정착 및 효의 고장 예산 이미지 제고

- 농특산물판촉 기획팀운영으로 생산자, 소비자간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주공사 및 용역시 관내업체로 제한 실시, 중소기업체 홍보팜플렛 전산화 등 예산경제살리기에 앞장서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산건설 기반 구축
- 매현문화재, 추사문화재 등 각종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과 임존성 및 김한중 생가복원, 덕산향교 보수 등 문화유산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전통고유 문화계승 발전에 기여
- 도로변 꽃길조성 관리, 가로화단 조성정비, 절개지녹화사업 등 내고장가꾸기 꽃심기운동과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쓰레기 종량제 정착,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등 기초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예산가꾸기에 선도적역할 수행

(3) 미흡한 점

- 관 주도적 행사로 인식한 일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참여열의 부족
- 대형 할인점의 출현으로 지역상권 경쟁력 약화
- 군재정여건의 빈약으로 다양한 시책추진 미흡

(4) 향후 추진방향

- 모든 군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지속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군민의 자율참여 유도
- 수준 높고 성대한 문화행사 지원육성으로 문화군민 자긍심 고취
-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내고장 상품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예산사랑 분위기 확산

제2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사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랑운동은 5개 분야(가정사랑, 이웃사랑, 직장사랑, 지역사랑, 나라사랑),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령사랑운동은 8개 분야(자연사랑, 환경사랑, 시민사랑, 문화사랑, 경제키우기, 시민정신 갖기, 고향사랑, 충·효·예정신 발양), 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예산사랑운동은 5개 분야(우리고장 충효정신 바로세우기, 예산경제 살리기, 우리고장 전통문화 꽃피우기, 쾌적한 예산 가꾸기),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8> 내고장사랑운동의 분야 및 세부사업

구 분	충남사랑운동	보령사랑운동	예산사랑운동
분 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사랑 • 이웃사랑 • 직장사랑 • 지역사랑 • 나라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사랑 • 환경사랑 • 시민사랑 • 문화사랑 • 경제키우기 • 시민정신갖기 • 고향사랑 • 충·효·예정신발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 충효정신 바로세우기 • 예산경제 살리기 • 우리고장 전통문화 꽃피우기 • 쾌적한 예산 가꾸기
세부사업	30개	87개	21개

한편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방법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면서 주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시민단체나 전체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추진주체는 사회단체와 기관, 출향 인사 등을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포함한다.

셋째, 실천방안은 교육기회 강화, 홍보강화를 통해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생활운동 및 지역발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넷째, 기타 내고장 사랑운동을 시·군 단위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시상 및 홍보하며, 실천을 위한 조례 및 강령제정·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실천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있다.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표 9>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격

구 분	충남사랑운동	보령사랑운동	예산사랑운동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체별로 시범과제 선정 추진 • 전 참여주체별로 1개과제 선정 추진 • 전 도민 자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이 주체가되어 추진 • 시민모임단체를 주축으로 추진 • 모든시민이 참여하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추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마을, 직장, 학교, 사회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사회단체, 군민, 출향인사
실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기회를 통한 도민운동교육강화 • 홍보활동 강화 및 실천 분위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선정하여 추진 • 시민생활운동으로 추진 • 지속적 실천운동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운동으로 승화 • 문화행사 개최 • 실천가능한 과제 지속 발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정신발양, 도의새마을운동, 고향사랑운동, 시군단위 시책과 연계하여 도민운동의 전개 • 도단위 각급기관 및 단체에도 실천과제 한가지씩 선정하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실천사업에 대한 시상과 홍보 • 시민자율실천모임 확대 운영 • 추진상황 평가 및 홍보 • 1단체 1특색사업 • 보령사랑운동 실천조례·강령 제정 •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주도행사로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참여열의 부족 • 군재정여건의 빈약으로 다양한 시책추진 미흡 •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 • 문화행사 지원육성

제3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문제점

지역활성화를 위한 내고장 사랑운동은 경제·사회·문화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1. 행정기관이 주도

내고장 사랑운동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정신의 바람직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의 성패는 주민들이 참여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내고장 사랑운동은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주민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운동의 동기유발 및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주도는 필연적이지만, 행정기관은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이 운동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도적 지원대책 미흡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즉 조례나 규약제정이 미흡하다. 보령의 경우 “보령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충남도나 예산군은 조례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원조례에는 내고장 사랑운동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사업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행정기관 추진사업의 연장

내고장 사랑운동은 사업의 연장이 아니라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즉,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례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참여가 요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성취가능한, 다시말해 운동차

제 4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원에서 접근하면 목표달성이 용이한 과제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내 집앞 가로수 내가 가꾸기, 우리 동네 알기 등과 같이 주민들이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여 운동의 성숙단계에는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선정한다. 이와 같이 내고장 사랑운동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연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 예산투자 없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역상징사업의 부재

내고장 사랑운동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지역 내의 동원가능한 인적·물적자원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가장 적합한 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내고장 사랑운동에 포함된 사업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성과평가 시에도 내용중심이 아니라 건수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5. 주민교육 프로그램 부재

내고장 사랑운동은 1회에 끝나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의식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지속적 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에는 주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제5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체 및 추진방법

1. 내고장사랑운동의 추진주체 및 조직화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주체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주민조직, 기업체, 외부전문가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주체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힘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운동의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들은 조직화함으로써 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추진주체의 조직화도 단계별로 접근해야 하는데 1단계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조직화되고, 2단계로 공공기관, 각종단체, 기업체 등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개인별 자원봉사자와 단위 지역별 주민모임 등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1단계	→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번영회
2단계	→	• 공공기관(경찰서, 학교, 보건소, 교육청, 병원, 언론, 금융기관 등) • 각종단체(부녀회조직, 새마을조직, 시민단체 등) • 기업체
3단계	→	• 자원봉사자, 시민모임, 일반시민 등

지역주민들이라 하더라도 거주하지만 땅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지만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다.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투자한 주민, 거주하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지만 돈은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주민들도 있다.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조직화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내고장 사랑운동의 조직화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조직의 수직 및 수평구조를 형성하는데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행정구역에 따라 조직화 즉, 동·읍·면, 통·반 단위의 조직화이다. 향후 동읍면 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면 동·읍·면 단위가 지역 사회개발 및 지역사회운동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주민들의 자연적 모임단위의 조직화이다. 마을범위, 이웃관계, 생활권을 기초로 한 자연공동체로서 모임이다. 여기에서 집을 벗어난 공공영역으로서 이웃 간의 마을을 다니는 관계의 공간범위에 의한 모임을 활성화하여 고향 사랑운동의 주체로 조직화한다.

셋째, 주민들의 기능적, 비공간적 모임단위의 조직화이다. 여기에는 활동중인 시민단체의 하부지부 또는 하부지역별 기구, 같은 취미나 동호인의 동아리, 그리고 네티즌으로 일컫는 사이버동아리를 조직화한다.

이와 같이 내고장 사랑운동은 지역의 특정조직만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운동이 아니라 행정구역별 조직, 자연모임, 기능모임 등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추진해가야 한다.

한편 내고장 사랑운동에 참여하는 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개개인과 주민조직, 리더

내고장 사랑운동은 주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점화되기도 하고, 주민조직 차원의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전개되기도 하며, 때로는 역량 있는 리더의 헌신적인 역할에 힘입어 결실을 맺기도 한다.

둘째,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역할

내고장 사랑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외부 전문가의 역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이나 주민조직을 보완해주고 이끌어 가는 외부의 지원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생적인 역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앞서거나 강조될 경우, 내고장 사랑운동은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거나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민과 행정 사이의 중재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자로서의 역할도 외부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담당할 몫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역할

행정의 대응방식 및 지원 역할 또는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내고장 사랑운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같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역할도 강조되지만, 작게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실무자들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방식이나 태도가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

2.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방법

내고장 사랑운동은 내고장을 이해하고 아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야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지역알기 운동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일기쓰기, 자서전 쓰기, 옛어른 전기쓰기, 옛문집 발간, 새로운 집안족보 만들기, 마을 또는 이웃, 생활권별 소식지 내기, 신문만들기, 마을지지 작성하기, 정기적으로 소단위 지역별 자료수집, 분석 및 자료배포, 자연모임 또는 행정구역에서 마을만들기 제안서 등을 통해 지역알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짐대회와 참여행사는 대중동원에 그침이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사회행동, 정부활동에 개입하는 시민참여,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대중대변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짐대회는 주민의 선거로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행사하는 돈, 정보, 땅, 관계설정에 관한 정책결정에서 바르게 하고 부패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직원, 각종단체의 임직원, 시민단체의 임직원, 그리고 기업가들이 공개된 행정, 투명한 경영 등에 대한 다짐대회가 되어야 하나. 마찬가지로 참여행사에서도 동원된 불특정다수인의 행사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운동으로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열린교육, 홍보는 상호 소통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고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고장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며 그것은 바른 교육과 올바른 홍보에 있다. 내고장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육,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 개척, 화합 아나가 겨레의 일을 심고 지식과 정보산업의 밑바탕이 될 지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도자를 키우려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위시하여 참교육, 열린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에서 교육은 지역에 대한 것을 교육과 소재로 하되 생각의 깊이와 높이를 키울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루어야 한다.

초·중등학교, 대학간에 서로 공개적으로 어울리는 잔치를 마련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이웃하는 학교끼리 교육활동에서 어울려야 한다. 토론대회, 발표대회를 비롯하여 체육회 등으로 잔치를 만들어 간다.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중등학교간, 또는 같은 특성을 가지는 학교간에 잔치를 만들어 간다.

지역의 각 공간을 특성화한다, 특화거리를 마련하는 만큼 그 나름의 토지이용을 살려나가야 한다. 먼저 학교주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초·중등학교 주위에 교육환경 이외에 놀이환경 등 학습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주변에는 대학촌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 한다.

내고장 사랑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첫째, 직접출연으로서 지방정부출연, 공공기관의 출연, 기업의 출연, 주민들의 출연 등이 있다. 둘째, 내고장 사랑운동의 사업계획을 만들어 국내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는 것이다. 셋째, 내고장 사랑운동이 수익성사업을 전개하여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다. 넷째, 무료 개방되는 문화시설 일부를 가능한 입장료를 받도록 하고 입장료에 내고장 사랑운동기금 몫으로 일부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제2절 내고장 사랑운동의 추진내용

내고장 사랑운동의 내용은 다양하게 분류해 볼 있지만 이미나 교수는 생활문화운동·교육운동·환경운동·복지운동·경제운동·도·농공동체운동·미래공동체운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내용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상징적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의 강한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 동원망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⁹⁾

9) 이미나, “공동체 시민운동의 주제 모형”, 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의 이론과 실제 : 한국형 복지공동체의 건설, 공보처, 1996, pp.219~237에서 인용 및 보완.

1. 생활문화운동

생활문화운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 삶을 개선하고, 과거 공동체의 유산인 문화적 삶을 향유하자는 운동이다. 일상의 삶을 개선한다는 의미는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인간관계를 회복하자는 취지도 포괄하고 있다. 즉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들 상호간의 연대감을 깊게 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공동체운동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도 따지고 보면 불신의 인간 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 그 핵심적인 관계들 중의 하나로 주민과 공무원들 사이의 불신이 있다. 주민은 공무원들이 벌리는 각종 사업을 자신들의 이해와 대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NIMBY와 같은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서 행동한다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

삶의 수준과 편리성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류의 집단이 자체학습과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삶의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도 있다. 가정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자녀의 교육문제·노인을 모시는 문제·각종 생활에서의 불편 해결·노후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다든지, 청장년이 주축이 되어 지역과제를 관련 당사자·지역 내 단체·행정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밖에 공동체 집단이 절실한 현안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공동 탁아활동이나 교통안전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여행·다과회와 같은 소규모 사교모임·각종 레저를 위한 소집단 규모의 사회교육(예: 비디오 촬영 기법 학습, 서예, 꽃꽂이 등)을 추천하는 것도 일상의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하면서, 정신건강과 공동체 정신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일상의 삶을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건강이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표이며, 동시에 건강은 전체적인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의 건강문제는 실상 개인 자신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개인이라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이 정치·경제·사회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인의 건강은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본의 기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동체 운동은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공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건강가꾸기 운동을 포괄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운동에는 지역문화를 꽃피우자는 또 다른 큰 줄기가 있다. 우리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역사적 축적으로서의 지역문화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서민의 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보존·발전시키는 일은 지역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이 운동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학교(특히 대학)가 학문적 지원을 해주며,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지역의 기업·주민 등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재정적 후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내고장 사랑운동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고급문화로 한정시키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운동의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오늘까지 서민의 정서와 미적 욕구를 담고 있는 대중문화 역시 다원적 문화관에서는 중요한 문화영역이기 때문이다. 고전예술과 대중예술, 순수예술과 실천예술의 벽을 깨고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면, 지역공동체 주민 모두가 문화예술인들이다. 문화의 장르를 열게되면, 문화운동의 참여자도 주민들 모두가 될 것이다. 주민예술제가 보다 활성화되어,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 추진위원회에서는 작품이나 출연진을 선정하고 표창하며, 그 지역 출신의 저명한 예술인들을 부각시키는 사업 등을 한다.

지역공동체 구성원 가운데는 지역문화에 대해서 열정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구성원들이 이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후원해준다면, 그 지역의 사라져 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유산보존운동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운동의 내용으로는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관념이나 행동과 생활 습관 같은 무형의 문화, 사라져 가는 지명이나 구비문학, 부문별 역사(예 : 여성사, 산업사 등), 지역사회 생활인들의 평범한 삶의 모습을 문자나 영상기록물과 현물 등으로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 유산이 '지역사회 박물관'에 남겨진다면, 우리가 몸담고 살고있는 공동사회의 기반이 보다 튼튼하게 조성될 수 있으며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전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교과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공동체의 문화유산보존운동을 펼치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교육하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다.

사례 [1]

거북선프로젝트 1 - 대천수양관 보존운동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약칭 역사모)"에서는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3면이 바다인 우리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받들어 "거북선 프로젝트(Turtleship Project)"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해안선 보존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거북선 프로젝트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장소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천수양관'이다. 이곳은 근대 시대에 한국에 온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풍토병을 피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조성한 지리산, 원산, 화진포, 대천의 휴양지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남아 있는 곳이다.

대천수양관은 일본의 외국인 선교사 휴양촌인 가루이자와(輕井澤)를 계획한 건축가 윌리엄 메렐 보리스가 한국인 강운과 함께 1880년대 경에 계획한 휴양지이다. 이곳에는 처음에 6만여 평의 부지에 약 100여 채의 캐빈과 로지(lodge)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천해수욕장의 개발로 인해 약 절반의 면적과 193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 45동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

현재 해송 숲으로 뒤덮인 28,560평의 면적에는 주로 195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특히 1930년대에 언더우드 3세에 의해 준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변원'을 비롯해 57동의 캐빈과 로지가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이다. 게다가 무수히 많은 해송으로 둘러 쌓여 있고, 일부 구간은 해안의 절벽과 접해 있어 풍광 또한 아름답고 수려한 곳이다. 따라서 역사모에서는 해안 보존운동의 하나로 대천수양관의 '땅 1평(3.3㎡) 사기 운동', '별장 1채 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매입된 건축물과 부지 등은 사회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거북선프로젝트 2 - 철새들의 낙원인 서산농장을 국민의 힘으로 매입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하 역사모)"에서는 제2차 『거북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서산농장의 일부 농지를 국민 성금을 모아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매입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일대의 서산농장은 우리 나라만을 위한 자연유산이 아니다. 황새, 저어새, 큰 고니, 흑두루미 등 20종의 천연기념물과 가창오리, 검은 머리갈매기 등 7종의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 그리고 노랑 부리백로, 원앙 등 세계 희귀조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종수만 13종이나 서식하는 새들의 낙원이다. 그리고 청둥



오리와 고방오리 등 약 20종의 오리류를 비롯해 매년 30~40여만 마리가 집단적으로 둥지를 틀고 있는 이곳은 이동철새를 보호하는 국가나 환경단체들이 모여 만든 환태평양 국가간 네트워크에서 선정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월동하는 가창오리의 경우는, 지난 10월 19일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관계국가 및 학자, 환경단체 등이 모여 오키나와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5년(2000~2005년) 동안 중점적인 보호대상종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서산농장이 이동철새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서식지인가를 반증해주는 주요한 징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상당 면적이 일반 매각 대상지인 우량농지와는 달리 관개수로가 잘 안 돼 있고 척박한 토양 등의 불량토지이고, 매각 가격도 주변 농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피해 농·어민이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들이 향후에 절대농지지만 창고를 포함해 200평 규모로 농가주택을 짓고,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 무분별하게 비닐 하우스 등을 설치할 경우 철새들의 서식환경이 줄어들어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다양한 습지가 사라지고, 건전하게 유지되어 오던 먹이사슬도 끊기고, 민간인의 출입이 지금과는 달리 자유롭게 보장되어 새들의 서식지는 형체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동북아시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이 매각계획을 발표하자, 역사모에서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서산농장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 철새 서식지를 보존하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서산농장의 주요한 철새서식지는 서산 A지구(간월호) 일대에 8개소, B지구(부남호) 일대에 5개소 등 총 13개소에 달한다. 이중 농지가 있는 육지부에 서식지가 있는 곳이 총 11개소이고, 간월호 수상에 2개소의 대규모의 서식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단기간 내에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역사모에서는 노랑부리저어새 등 대부분의 철새들이 서식하는 "해미천 상류지역 일대의 약 10만평 정도" 면적을 매입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2001년 4월말까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 한국토지공사의 분양가 기준으로 약 20억 내지 25억원의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키 위해 역사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범국민적 차원의 "땅 1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입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역사모에 완전히 이전되면 갈대밭을 조성하여 버드존(Bird Zone)을 만들고, 소규모의 방문객안내소와 교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에코뮤지움(eco-museum)을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는 람사협약에 가입된 일본의 와카야나기정에 있는 "이즈누마 습지 교류관(伊豆沼 Wetland 交流館)"이나 프랑스의 마르케즈에 있는 "그랑드 란드 에코뮤제(Ecomusee de la Grande Lande)" 등과 유사한 생태박물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농지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다는 조건 아래 임대계약을 체결한 농민에게 위탁영농을 실시하되, 반드시 조생종 벼만을 심도록 유도하고 매년 철새가 도래하기 이전에 수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구상이 모두 실현된다면 이곳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의 하나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간월호의 해미천 상류지역과는 별개로 환경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흑두루미와 기러기가 서식하는 일부 논과 노랑부리백로, 뜸부기, 장다리물떼새 등의 희귀조들이 번식하는 지역을 매입해 보존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즉, 서산농장 중 총 300~400만평 정도는 국비로 매입해 철새서식지로 보존해야 한다.

2. 교육운동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생존의 욕구보다 존재의 욕구가 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욕구가 학습에 대한 욕구일 것이다. 학습의 욕구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와는 그 양상이 달라졌다. 학교교육의 경우 사람들은 자녀에게 취학의 기회를 주겠다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는 질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내고장 사랑운동의 교육주제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운동을 벌인다면 대단히 호응도가 높을 것이다. 지역주민 가운데 교사나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공동체에서 자녀들이 받는 학교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받고 싶은 교육의 방향을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안하며, 자녀들이 처한 교육의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결하며(예 :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 마을문고 운영), 지역주민 자신들이 학교의 보조교사나 급식제공 노력봉사자·방과후 학생지도원·학생들의 상담자 등의 자원봉사자들로 활약하며; 지역사회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특수한 교육주제를 선정하고 개발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시설을 학교교육자원으로 제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역사의 단축이라고 부를 만큼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적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삶의 여유가 생긴 성인들은 사회교육기관을 찾고자하는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사회교육운동은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과 정보제공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주민들은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느낀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고장 사랑운동에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사회교육은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한 주제영역이 될 수 있다.

주민공동체는 주민공부방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습주제를 찾아 강연회를 열던가, 학습연구회를 운영한다든지, 외부기관에서 열리는 연수회에 참여한다든지, 견학을 가는 등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주민들 가운데 사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면, 주민공부방의 운영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센터가 있어서 교사들의 인력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센터가 지역공동체 별로 희망하는 사회교육 분야의 강사를 파견해 준다면, 사회교육운동은 더욱더 용이해진다. 물론 평생교육센터를 지역 단위 별로 (특히 농촌지역)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설립하여, 각 지역공동체가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한다면 공동체운동은 물론이고, 교육기회의 재분배에까지 공헌할 것이다. 현재 대도시 문화센터나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회교육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대상이어서, 혜택의 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시간대도 직장인들과 가정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달리 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부부나 가족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가족의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며 가정의 화목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내고장 사랑운동에서 추진하는 사회교육운동은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형식까지 뛰어아된다. 즉 지역사회의 인재와 시설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동’ 이상의 보다 큰 상위조직에서 가르치고 싶은 욕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하는 일,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시설(예 : 시민회관, 공립도서관, 체육관, 각 초·중등·대학교, 종교단체, 박물관, 이용이 적은 공공회의실, 퇴근 후의 기업)을 학습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인재 풀(pool)을 작성하고 유희시설과 이용가능 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사회교육운동의 여건을 행정적으로 마련해준다면, 우리 사회도 사회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을 많이 갖고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이시재 외, 1991).

사회교육의 영역은 주민들의 관심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교육문제(부모교육, 장난감 교실, 태교 등)·인간관계 교육(대화법, 자기주장 훈련, 유모어 화술, 부부관계, 현대의 매너 등)·가사문제(요리법, 육아법 등)·환경교육·여성문제·건강문제(수지침, 성인병의 예방과 진단, 에어로빅 등)·소비자문제·정치문제(국제정세, 인권문제, 통일문제 등)·차명교실(피부미용, 화장 등)·예술(서예, 동양화, 시의 역사, 소설작법 등)·여가교실(테니스 등의 스포츠, 댄스, 영화감상, 사진촬영, 공예 등)·경제교실(소비자 교육, 증권투자법, 산업구조 변화 전망, UR의 정제와 그 영향 등)·직업기술(워드프로세서, 외국어 등) 등 생활주변의 공동관심사와 문제가 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각 지역공동체는 자주학습 연구회로 발전할 수도 있다. 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양, 취미, 동호인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교육은 내고장 사랑운동 지탱하는 사회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저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특히 사회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교육프로그램으로 택한 경우에는 지역과제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확대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의회나 중앙정부에게 이러한 단체들은 광역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추진체가 될 수 있다.

사례 [2]

충청남도 도의새마을교육

충청남도에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형성과 「전국 제일의 예절의 고장」 재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이 살아있는 선진 시민의식 함양, 지역주민과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갈 참다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지도자, 지역사회봉사자, 단체임원 및 일반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중앙 및 도주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인원은 중앙새마을교육 17개 과정 1,038명, 도주관 도의새마을교육 10개 과정 5,30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교육부문	교 육 과 정
중앙교육	지역봉사자교육	새마을사업 시책연찬, 새마을지도자과정, 새마을관리자 과정, 새마을경영자과정, 지역활성화과정, 우리고장 환경지킴이 과정, 직장 지도자 과정, 문고지도자과정, 지역사회공직자합동연수, 공직자경쟁력 강화연수과정
	민주시민교육	민간사회안전망교육, 통일지도자교육,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청소년수련	대학생특별수련, 고교생특별수련, 중학생특별수련, 21세기 청소년 리더쉽교육
도의새마을교육	지역사회지도자	충남정신발양 추진협의회회원 예절반,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회원 예절반, 예절지도자 양성반
	단체원 및 일반시민	4H회원 예절반, 자원봉사자 예절반, 예절도민반, 예절시범마을 대표
	청소년	새마을장학생예절반, 중학생도의반, 고교생도의반

각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구 분	교 육 내 용
새마을사업 시책연찬	2001년도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 및 역점사업,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사업 추진 기법, 지역필요사업 개발
새마을지도자과정(기본)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봉사자로서의 자세, 마을사업의 개발, 주민조직 기법과 리더쉽
새마을지도자과정(중견)	조직관리 기법 및 민주적 회의진행법, 사업관리 및 회계관리 기법, 읍면동 단위사업 개발
새마을경영자 과정(고급)	지방자치와 지역사회개발, 조직관리 및 사업관리, 지역활성화와 사례교환
지역활성화과정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를 위한 지역모델 개발, 유통구조 개선과 우리농산물 살리기, 주민화합과 마을단위 발전전략
우리고장 환경지킴이 과정	환경보전과 우리의 역할, 우리 나라 환경문제의 실상과 대책, 국민생활과 환경보전
직장 지도자 과정	직장의 직업윤리,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직장새마을운동활성화 방안
문고지도자 과정	국민독서운동 활성화, 문고활동을 통한 대민봉사, 독서지도기법 및 독후감 작성요령
지역사회봉사자 및 공직자 합동연수	지역사회발전과 민관 협동체제 확립, 지방화시대 주민자치와 참여유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구상
공직자 경쟁력 강화연수과정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 세, 지역사회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자세
민간사회안전망 교육	우리 나라 사회복지현황, 민간사회안전망의 기능과 역할, 민간사회안전망 구성방법과 사업
통일지도자교육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북한의 실상, 통일대비 바람직한 가치관의 정립, 국가통일에 대한 국민의 자세와 역할
사랑을 가꾸는 가족교육	건강한 가정가꾸기, 가족 구성원간 역할인식과 사랑만들기, 부모 자녀간 커뮤니케이션
대학생 특별수련	자아성찰을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미래 주인공으로서의 진취적 기상 함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제고
고교생 특별수련	자아성찰을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미래 주인공으로서의 진취적 기상 함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제고
중학생 특별수련	자아성찰을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미래 주인공으로서의 진취적 기상 함양,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제고
21세기 청소년 리더쉽 교육과정	21세기 미래지도자 육성, 지역인재 육성, 새천년 교육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구 분	교 육 내 용
충남정신발양추진위원회 예절반	공중도덕과 생활예절, 전통예절의 의의와 현대사회의 예절, 봉사하는 삶의 일상화 방법
바르게살기운동협	전통예절의 의의와 현대사회의 예절 및 봉사하는 삶의 일상화 방법, 무례한 현대 한국사회 실정에 관한 VTR상영, 지역사회 부조리 문제와 해결방법 토론 간담회
예절지도자 및 시범업 소 양성반	전통예절의 의의와 현대사회의 예절, 전통예절의 절차와 현대화 방향, 청소년 지도·예절상담 방법 및 실습, 손님맞이 예절 등 행사대비 기본예절
4-H회원 예절반	전통예절의 의의와 현대사회의 예절, 봉사하는 삶의 일상화 방법
자원봉사 예절반 교육	전통예절의 의의와 현대사회의 예절, 대주민·대외국인에 대한 봉사자의 기본예절
예절도민반	전통예절의 의의와 현대사회의 예절, 봉사하는 삶의 일상화 방법
새마을장학반 예절반	충남정신이란 무엇인가, 이웃에 대한 예절 및 지켜야 할 공공질서, 밝은 심성과 자기개발, 기본예절·통신예절·학교예절·성교육 및 VTR상영
고교생 도의반	조부모·부모·형제자매의 의의와 기본예절, 이웃에 대한 예절 및 지켜야 할 공공질서, 충남정신이란 무엇인가, 밝은 심성과 자기개발, 기본예절 VTR상영 등
중학생 도의반	조부모·부모·형제자매의 의의와 기본예절, 이웃에 대한 예절 및 지켜야 할 공공질서, 충남정신이란 무엇인가, 밝은 심성과 자기개발, 기본예절 VTR상영 등

3. 환경운동

우리사회 역시 오랜 세월동안 지향하고 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지역환경의 파괴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시민단체들의 환경운동은 환경파괴의 역설적인 지수이다. 그리고 우리국민들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과 생활을 복구하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줄이려는데 관심이 높다.

환경운동은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사회의 형성을 위한 최후의 방법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라는 점에서 내고장 사랑운동의 본질적 정신과 일치한다. 환경은 생활 속에서 보전되어야 되며, 발전과 성장위주의 모델에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산과 경제를 추구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정치적인 선택이면서 삶의 가치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지역공동체에서의 환경운동은 환경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교육은 생태계 파괴와 공해 등에 대해 민감성을 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환경교육은 기본적으로 환경문제가 생겨나는 메커니즘·환경문제로 빚어지는 피해·환경문제의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교재를 채택하여, 주민들끼리 세미나나 토론 등의 형식으로 자주학습을 하거나 영화나 비디오를 관람하거나 강연을 듣고(토론하거나) 환경학습을 위한 체험담·수필 경연대회 등을 열어 환경의식을 심화시키며 지역에 있는 학교 등에 협조를 의뢰하여 환경실험을 실시하고 깃벌·매립지·쓰레기 처리장·자원의 리사이클링 산업체 등 환경시설을 견학하며 공해정보를 담은 간략한 책자를 배포하여 매월 같이 읽거나 공해관련 전시회·연극·음악 등의 교육용 행사를 참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바탕 위에서 지역공동체는 환경운동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주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기에 가장 용이한 것 중의 하나는 폐기물 처리이다. 주민들은 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며, 일단 발생한 폐기물은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된다. 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내용물만 파는 상품(refill)의 활용·포장의 간략화와 포장이 간단한 상품의 구입·장바구니 활용·쓰레기 감량화·쓰레기 가운데 가정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철저히 재사용하기 등의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과 도로청소·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공동회수와 판매 등의 공동체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자원재생을 위한 리사이클링도 지역공동체에서 해볼만한 일이다. 우리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는 알뜰시장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밖에도 자녀들의 옷을 지역공동체 안에서 돌려가며 입는다든지 헌 옷을 모아 교회 등의 봉사단체나 구호기관에 보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리사이클링 운동이라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고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에서 수집한 대형가구·가전제품·의류 등을 중고 물품점에 넘겨서, 수리하거나 재생하여 원하는 사람들에게 값싸게 제공한다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리사이클링 운동은 단순히 물건의 재활용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원의 보호와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물건이나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을 육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결망이 활성화된다.

환경운동은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일상행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 1회용 물건사용을 자제하기, 합성세제 사용의 억제, 쓰레기와 건전지의 분리·폐지나 빈병·우유팩 등의 수집, 재생용품의 구입, 에어로졸 등의 스프레이 사용 억제, 환경오염기업의 상품불매, 유기농법의 농사와 농산물 구입 등을 실천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며 비경제적인 측면도 감수해야 하는 운동이며, 인내심과 끊임없는 주의가 요구된다. 당연히 공동체 성원끼리 끊임없이 격려하며 피드백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환경운동은 공동체시민운동의 좋은 주제가 되기도 한다.

환경운동을 지역전체의 낭만과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벌여볼 수도 있다. 일본의 후쿠이시(福井市)에서는 ‘개똥벌레 고을’ 만들기 운동을 벌였다. 고향의 여름 풍물을 주민들 스스로 복원하자는 취지로 주민들 각자의 집에서 개똥벌레를 사육하여, 개똥벌레 축제를 열었다. 그들의 개똥벌레 운동은 농약에 오염된 농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뒤덮인 도시에서 사라져버린 풍물에 대한 꿈의 실현이며 자연사랑의 행동이다.

다카야마시(高山市)의 ‘길모퉁이 공원 조성운동’도 환경조성운동의 좋은 예이다. 이들은 도로와 도로가 교차하는 곳·교량부근·자연과 주거지의 접점을 길모퉁이로 정하고, 그 성격 별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예를 들면 중후한 분위기는 큰 나무와 조명등으로 돋보이게 연출하였고,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꽃과 분수대를 설치하였다. 분위기 조성에 그치지 않고,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구조·자동차가 속력을 낼 수 없는 선형·인도와 차도의 분리 등 기능적인 고안도 하였다. 공원화의 중요한 도구로는 길안내판·조명·식수대·벤치 등을 사용하였다.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환경운동은 지역공동체 운동의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공동체에서의 삶의 질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힐 뿐 아니라, 더불어 살기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례 [3]

대구시 담장허물기 운동

추진배경

전국적인 반향을 얻고 있는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운동이 민·관협력의 시민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해 5월부터다. 물론 95년도에 서구청이 담장을 허문 이후 96년도에 경상감영공원의 담장을 허물었으며, 98년도에는 대구YMCA 시민사업 국장 자택의 담장을 허물었으나 담장철거 정도로 인식되는 등 일시적 반향에 그쳤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민·관협력의 시민운동으로 시작하게 된데에는 99. 5월 대구사랑운동 실무위원회에서 실천과제에 대한 논의중 보수적인 시민기질을 개방적인 기질로 바꾸고, 이웃간에 서로 터놓고 지내는 인정어린마을 복원과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담장허물기 운동을 기획과제로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추진전략

도시환경중 조경의 역할은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쾌적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담장을 허물고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용기있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행정기관부터 담장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사랑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각계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담장철거쓰레기의 무상매립과 조경설계 무료지원, 조경수지원, 인도 및 주변도로 정비, 우수시민 발굴표창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민간시설의 경우 시설당 3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백만원의 시비로 담장철거 및 조경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참여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신축건물의 경우 담장 대신 조경을 할 경우 포상제를 도입하고 있다.

추진상황

이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와 시민운동단체 사무처(국)장 등 12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대학 조경학과 교수 6명과 조경업체 대표 9명등 1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및 조경업체, 시민 등 5자 협력체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으로 조성한 곳을 보면 행정기관으로 서구청과 남구청, 동사무소, 파출소, 교도소, 한국은행대구지점 등 39개소이며, 공공시설로는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학교등 29개소, 시민으로는 대구YMCA시민사업국장 자택, 중구 남창수 자택, 현직경찰서장 자택(16개소) 등 총 84개소, 6km의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2000년 하반기에도 MBC방송국, 구청,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개인주택, 교회, 유치원, 학교, 기업체 등 50여개소(4km)에서 참여신청을 하는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담장허물기 운동이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건교부, 중앙경찰청, 각 자치단체 등 각지에서 자료요청과 현장방문이 잇따랐으며, 지난 7월에는 타 시도 공무원 및 시민단체 사무처장들이 담장허물기 현장에 대한 버스투어를 실시한데 이어 KBS, MBC 등 각 언론사에서도 수차례 기획보도 및 특별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시민들도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대구시 서구청

4. 복지운동

우리사회도 산업사회가 됨에 따라,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그들이 질병·사고·해고·노령·장애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소득조달의 방법이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에 복지의 기능을 수행해주던 대가족은 붕괴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개인 생활의 어려움은 회복하기가 힘들다. 이에 국가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가 과거 대가족제도가 행하던 관심과 배려를 대신 수행해야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사회복지 기능이 추상적인 제도의 수준이라면, 지역사회가 행하는 복지기능은 구성원의 이웃들이 베푸는 가시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개인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주는 정서적 지원까지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운동의 복지운동을 ‘이웃 한 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웃 한 몸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복지교육을 주기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복지교육은 복지강좌·복지 강연회·좌담회·주민자주 연구회·사회봉사기관의 견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공동체 주민들이 복지실태에 대한 정보를 들음으로써, 그들의 봉사활동과 이해·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회봉사기관을 견학하면서, 주민과 소외받는 사람·복지기관 근무자와 주민 간의 만남을 통해 복지의식과 공동체 정신의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

우선 복지운동의 일환으로 노인문제를 공동체시민운동에서 다룰 수 있다. 공동체운동에서 가장 손쉽고 의미 있게 지역주민들이 노인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노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운동이다. 혼자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을 맞아도 이웃에서는 알 길이 없다. 그들이 이웃과 차단되어 쓸쓸히 살거나 죽음을 맞는 일이 없어지기 위해서, 이웃이 아침마다 노인에게 안부를 묻는 ‘안녕하세요’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 형식은 지역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야쿠르트·우유 등을 공급받아 이웃들이 아침마다 배달해주면서 안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배달원이 안부를 묻도록 지역공동체에서 의뢰를 하고 상품비는 부담을 한다. 만일 건강상태나 안부 등에 이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공동체에서 관련자에게 연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락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안부묻기 운동은 간단한 일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노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 운동이라고 보여진다.

노인에게 사는 보람을 마련해 드리고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실버인력은행을 만든다. 인력은행에서는 지역공동체 내의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단기·임시 일을 제공하기 위한 리스트를 만든다. 이러한 인력의 풀을 이웃 지역과 연계하여서 작성하며, 민간기업이나 가정으로부터 간단한 목수일·청소·아이돌보기·제초·장담그기 등의 일을 주선해주는 일을 한다. 만일 해당지역이 관광지라면, 노인관광 안내원도 좋은 발상이다¹⁰⁾. 그들은 그 지역에 몸담고 살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자신의 입장에서라도 관광객들과 교류를 하면서, 인간관계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노인안내원들에게는 안내원 양성교육을 간단히 시킨 후, 순번제로 적절한 분야에서 안내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문화재나 전설 등을 간단히 설명해주고 역사자료관 주변에서 안내나 음료수 등을 대접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안의 노인클럽을 만드는 것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휴가를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인원 규모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근 지역공동체와 연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노인클럽에서는 교양강좌 중심의 고령자 교실·건강체조·사교 댄스 등과 같은 레크레이션·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 노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좋다. 노인의 스포츠활동은 그들의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고독과 소외감을 덜어주는 부대효과도 있다. 그들이 인근 클럽과 시합을 벌일 수 있도록 주선한 뒤에, 가족들이 나아가 응원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노인들과 유대를 다지는 길이다.

그밖에 노인과 어린이·학생들이 서로 의존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공동체 내에서 중학교·유치원·노인정(혹은 양로원)이 함께 붙어있도록 만드는 운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시설의 일부를 청소해주는 등 삶의 보람을 느끼며, 그들의 생명력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문화행사에, 유치원 어린이들은 재롱잔

10) 노인관광 안내원 제도는 일본 群馬縣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치에 노인을 초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관계는 서로가 정서적·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주는 좋은 관계일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도 공동체복지운동의 좋은 테마이다. 장애인 수용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활동이지만, 장애인 가정에 봉사원으로 가서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좋은 복지활동이다. 장애인들이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여가와 스포츠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그들이 타인과의 인간관계 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그들과 대면할 기회를 가지는 것(장애인 수용기관 방문, 일일 봉사활동 등)도 공동체 복지운동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장애자들을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기르는 활동이다. 지역공동체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활동을 직접 펼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이시재 등, 1991). 예산 부족으로 공공 수용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으려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역공동체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들을 위해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자가 되어주며, 식사·세탁·청소·목욕·물건 사기·말상대 되어주기·외출돕기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지역공동체 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문제점을 토론하며, 문제해결이나 질 높은 봉사활동을 위한 자주학습도 개최하여 피드백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내고장 사랑운동의 '복지운동'에는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복지도모까지 포함하기로 한다. 복지의 일반적인 대상은 사회에서 혜택 받지 못한 자들이어서 복지운동에 일반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체 운동의 성격상 공동체 성원 모두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그 의미를 광의로 해석하기로 한다. 그 사업으로는 자녀돌봐주기·(공동체 모임에서)음식 나누어 먹기·의류나 장난감과 책 등을 물려주기·장난감과 책 돌려보기·관혼상제시 도와주기·병간호·헌혈 등이 있다. 그밖에 '시간저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시간저축제도는 평소에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간을(은행에 저금하듯이) 저축하여, 후에 자신이 공동체 내의 타인으로부터 그 시간만큼(혹은 대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바쁜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현대생활에 어울리는 현대적 의미의 공동체 시간 나눠쓰기라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공동체의 복지운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노인·장애자·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여성·빈곤층·실직자 등 복지운동을 통해 관심과 배려를 해야되는 사람들은 많다. 그 대상이 누가 되든 복지운동은 공동체 운동의 더불어 살기 정신을 본질적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진다.

사례 [4]

V-타운 21세기 운동

「V-타운 21C」 운동이란?

V-타운 21세기 운동은 97년 3월 21일 전국 34개 지역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협력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시작된 지역사회 조직운동이다. 이 운동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네 지역사회를 V(volunteer)-타운, 즉 '자원봉사 마을'로 만들어 가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즉 주민들이 봉사활동을 산발적으로 하기 보다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연합 활동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자는 것이다.

‘V-타운’ 운동의 개념

오늘날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 아동, 노인, 장애인문제 등 한국사회의 사회복지문제와 문화복지 욕구를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처, 해결하고, ‘복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밑으로부터의 범 국민적 자원봉사 운동이다(예: 60년대 미국의 Community Action Program, Model City 운동, 최근 일본의 Voluntopia, 우리마을 가꾸기 운동 : 특히 92년 Carter Center가 앞장서 전개한 The Atlanta Project - TAP).

어느 행정단위(예: 市, 郡, 區, 洞)든 해당지역 주민, 혹은 기존 단체가 앞장 서 자원봉사 연합(공동체)운동을 벌이면 ‘V-타운’ 소속운동이 될 수 있다(예, 00지역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V-타운’프로그램/또는 00지역 봉사회등 신규 조직도 가능).

‘V-타운’ 운동의 특징

- 활동 중심 : 새로운 ‘단체’ 설립대신, 주민 연합 활동에 초점
- 연합복지운동 : 사회복지·문화복지 연합운동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 전문가 개입 : 전국의 대학교수(사회복지학과,관광학과등) 및 현장 사회복지사 들에 의한 조직
- 주민주도 :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원봉사 계획, 실천, 자체 운영기금 마련 등 주민 자발운동
- 순수 민간운동·일체의 비정치적, 비영리적 순수 민간운동

전개과정

- 1단계 - 시범지역의 대학교수(사회복지, 문화복지) 및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주민들을 조직해 나감.
- 2단계 - 시범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협조.
- 3단계 - 지역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 4단계 - 지역사회 공청회 실시.
- 5단계 - 자원봉사 욕구조사 및 활동기획.
- 6단계 - 주민 단체별 자원봉사 실천.
- 7단계 - V-타운 운동 기금 자체마련, 지속 실천.

'V-타운' 운동의 목적·목표

- 지역단위에서 민간자원 결집(Resource Pool) :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범주민 연합 운동체 결성
- 조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관심, 참여도 증진 :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조직적 개입,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교육 훈련
- 국민복지 민·관 복지 파트너십 체계 형성: 지역 민·관 전산망 체계 확립, 자원봉사 센터, 사회복지회관 등 건립

'V-타운' 운동의 활동과정

V-타운 운동은 마을회의 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모형의 전개과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X지역에서 주민들이 V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연초 범주민 공청회를 갖고 그 지역에 가장 두드러진 구체적인 사회문제 5-10개를 정한다. 이때 범주민 공청회가 어려우면 어느 특정문제 1개를 가지고 분야별 공청회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 공청회 자리에선 문제의 파악 외에 주민들이 1년 간 가족, 단체, 직장, 학교단위로 각자 자원봉사를 통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토의한다. 이어 각 문제분야별로 참가 봉사팀 및 단체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실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정기 마을회의 자리에서 이를 발표, 타 단체들과 정보를 교환한다. 이 마을회의 자리에는 해당 문제를 다루는 군청, 시청의 담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당 공무원들도 함께 참가, 관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호 협조를 논의한다. 이와 같은 공동노력 후 연말에 가서 각 해당 문제들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함께 평가해 보고 시상과 함께 마을축제를 갖는다.

V타운 21세기 운동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

첫째, V타운 운동은 민이 주도하는 운동이지만 지역사회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면에서도 큰 유용성을 갖는 운동이다. 즉, 이 운동은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체계 있게 조직화하고 그 맥락에서 민관 파트너쉽을 논하는 보다 입체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 운동에 지역 주민 외에 기존의 기관, 단체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새마을협의회, 경실연, YMCA,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등 각종 기관단체들의 이해와 참여를 구해야 한다.

셋째,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소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개방화하여야 한다.

넷째,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확보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생명존중, 생활실천활동을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실현 되도록 해야 한다.¹¹⁾

5. 지역활성화 운동

우리 농촌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소외되고 UR 타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지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경제를 자립시키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맛볼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주체는 지역공동체 성원 자신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맥락적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주민들이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운동을 전개시켜야겠다. 따라서 지역활성화 운동은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 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미래의 세대들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안목

11) 송정부, “V타운 21세기 운동과 지역사회자원 연계방안,” 원주시 V타운 21세기 운동 공청회 자료, 1999.12.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에서 지역의 미래상을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한다.

둘째, 지방마다 기후·토질·자연경관·문화재나 사찰 등의 문화시설·향토애·농수산자원·경제상태·주민성과 인적 자원·문화·역사적 맥락이 다양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독창적인 지역가꾸기를 해야겠다. 특히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독창적인 발상의 대전환을 갖고 주제를 선정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된다. 이 운동의 성공사례로 일본 구마모토 현 주오정에서 벌어진 ‘일본 제일의 돌계단 쌓기’ 사례가 있다. 이 지역의 산에 있는 유서깊은 사찰까지의 참배길에 3333 계단을 쌓았으며, 사용된 돌은 일본 각지의 유명한 돌과 외국(한국, 중국, 인도, 소련 등)에서 수입한 돌들이다. 이 돌계단으로 인해 이 지역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으며, 덕분에 특산품의 제조와 판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운동은 독창적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이 돌의 산지이며 유명한 석공을 배출해낸 점을 활용한 것이었다.

셋째, 지역가꾸기는 주민들의 경제활동·여가생활·그 밖의 일상생활과 유기적 관련을 맺으며,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눈축제와 눈치우기 대회로 눈을 관광자원화 할 뿐 아니라, 시민축제로 만들어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주민들이 눈으로 인해 겪게되는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지역가꾸기이다.

넷째,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신적 에너지로 지역활성화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의 계획부터 실시방법·추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지역활성화 운동의 본질은 시민운동의 본질과 상통하는 것이어야 된다. 과거 새마을운동도 지역활성화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체시민운동에서 제안한 지역활성화 운동은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격조 높고 종합적인 시민운동의 수준으로까지 격상되어야 된다. 예컨대 이와테현 오하사마정의 포도왕국 사업은 단순한 포도 특산물 운동이 아니다. 그들은 포도주 공장을 세우고 포도주를 재료로 한 향수·젤리 양갱과 모나카 같은 과자·불고기용 양념장까지 개발하였다. 포도주 관련 사업으로 향수공장·레스토랑·판매점과 포도주병을 담는 등나무 바구니 공장도 일으켰다. 이벤트 행사로는 매년 봄·가을 두차례 포도주와 소고기 바베큐·산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천어(山川漁) 꼬치구이 등을 즐기며 대자연의 품 속에서 하루를 즐기도록 하고 있다. 처녀들의 ‘포도밟기 경연’도 축제의 낭만의 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왕국이 관광지와 포도생산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뉴스거리일 것이다. 그밖에 화장실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운동도 삶의 격조를 높이는 시민운동이다. 전통적인 한식 건축양식을 쓴다든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디자인을 한다든지; 화장실 현판에 시구를 이용한다든지; 녹음이 우거진 곳은 화장실의 천장을 유리창으로 하여 녹음 속에 앉아있게 한다든지; 화장실 주변에 잔디를 깔고 꽃을 심는다든지; 내부를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그것에 뒤지지 않게 꾸미는 등의 기획은 분명 새마을 운동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던 위생차원의 운동과 구별이 될 것이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역경도 지역활성화 운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오판기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공해나 자연보호·UR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농촌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더더욱 필요하다. 미야기현의 오시카정은 고래잡이 마을로 유명했는데, 1988년부터 연안산업포경이 금지되면서 일대 위기를 맞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을의 이미지와 고래잡이 경험을 활용하여, (인간과 고래를 주제로 한) ‘고래박물관’을 건설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에 관련된 관광산업으로 경제적 활기를 되찾았다.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폐광이 된 탄광촌을 이용해 ‘석탄화석관’을 만들고, 철광촌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곳에 ‘철의 역사촌’을 만들어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일곱째, 지역활성화 사업은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즉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화의 안목을 갖추어야 된다. 관광촌을 만들 경우도, 불거리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고안을 해야겠다. 농업체험농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나 어른 모두가 과실재배·숫잡기 등의 체험을 하게 하며; 이천 도자기촌에서는 도자기를 직접 구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춘천같이 막국수가 유명한 곳은 막국수 도장을 세워서 메밀국수 만드는 법을 지도하고, 관광객이 만든 메밀국수로 막국수를 먹을 수 있게 해주거나 갖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촌에서는 오징어 잡이 배에 승선해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관광객의 호기심을 끄는 방법이다.

지역활성화 운동 역시 주민들의 독창적 사고를 모으면서 공동체의 운명을

생각하게 해보는 심각한 체험이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사회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뿐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 운명체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귀한 체험학습이기도 하다.

사례 [5]

서천 한산모시축제

한산 모시축제는 전국 10대 축제 중 하나로 한산모시관, 금강하구둑 관광지 일대를 중심으로 민족 고유의 전통옷감인 모시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모시축제는 특히 지역축제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관광객 중심의 테마와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시의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주요행사를 주말과 휴일에 집중 배치하였고 관광객들이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였다.

또한 그간 여성의 상품화, 효용성, 타 축제와의 차별화면에서 말이 많았던 모시아가씨 선발대회를 폐지하고, 모시제품 개발을 위한 모시패션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전국의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의 참신함과 창작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대신 마련하기도 했다.

모시패션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는 행사기간 내내 개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특히 한산모시관에서는 일본 규슈대학 예술학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인 스즈키 교수가 직접 제작하여 선보인 세계 최초 ‘모시기모노 패션쇼’가 열려 국내외 관객 1만여 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모시관련 체험코너를 선보이는 행사를 유명 백화점이 서천군과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제의를 해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이번 문화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저산팔읍 길쌈놀이와 마당극 형식을 빌어 한산세모시를 임금님께 바치는 의식을 총 6마당으로 재현한 모시진상마당극, 사물놀이, 어민들의 만선과 안녕을 기원하는 덕타령 시연, 모시새벽시장 개설, 모시제, 우수모시 품평회, 모시길쌈 경연대회(짜기, 삼기, 꾸리감기), 모시염색 시연 및 체험장 운영, 모시옷 입어보기 및 사진촬영 등 모시축제를 특성화시키는 관련 행사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행사기간에는 문화예술행사들도 많이 선보였다.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 조화된 두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드락콘서트, 초대가수 공연, 관광객들이 즉석에서 참여하는 관광객 어울마당 등에는 주민들은 물론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 연일 성황을 이뤘다.

또한 한산모시관 광장에서 벌어진 민속줄타기 공연은 외줄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묘기를 보이는 장면에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관람했다. 아울러 행사장 주위의 향토 음식점과 옛장수들의 각설이타령, 새끼꼬기, 짚공예 시연 등의 예스런 놀이는 문화제를 찾은 관중들의 막간 볼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도 금강하구둑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함께 잔디썰매타기대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등이 펼쳐졌으며 한산모시관에서는 특산물 판매장과 향토음식점 등이 운영되어 볼거리에 살거리, 먹거리를 더했다.

2년 연속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축제로 지정받음으로써 상품성과 예술성을 공인받은 서천문화제는 군민화합축제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이며 국제적인 축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는 과도기적 성격을 띤 행사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천모시문화제는 가능성을 지닌 관광상품인 동시에 문화적 유산으로 그 전통과 우수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지역주민 위주에서 벗어난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세련된 운영으로 지방화시대 서천의 이미지를 강화, 지역활성화형 생산축제로 전환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¹²⁾

금산 인삼축제

전국 5대 축제로 승격 개최된 제18회 금산 인삼축제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금산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5일간 펼쳐진 이번 제18회 금산 인삼축제는 외국인 2천 여명을 포함, 전체 35만 여명의 관광객과 2백 억원의 매상고를 올리면서 문화관광 산업축제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행사기획에 있어서 인삼이 가져다 주는 ‘건강’을 중심으로 관광객 참여형 이벤트와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구매자극형 이벤트, 고유의 전통민속을 알리는 데 축제의 초점을 모았다.

특히 신(新)사고로 현실성 있고 내실 있는 행사, 금산에서만 체험이 가능한 독특한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다. 행사장에도 역시 변화를 주었다. 주행사장과 지역상가와 연계된 동선, 즉 주변 인삼·약초시장을 중심으로 행사장의 볼거리와 살거리, 먹을거리가 연결되도록 동선을 구축했으며 개막 당일에 집중되어 있던 행사들을 상시 관람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신비의 건강여행을 떠

1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62호, 1999.6.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납시다’는 슬로건에 걸맞게 관광객이 직접 인삼과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종목을 신설했다. ‘인삼캐기여행’은 인삼도 직접 캐보고 질 좋은 인삼을 값싸게 구입해 가도록 하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백 여평의 인삼밭이 동이 나버려 예비포 8백여평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인삼캐기 여행에서는 인도대사 부부 등 외국인들도 대거 참여해, 외국인들에게 금산 인삼의 약효를 입증하기도 했다.

약썰기대회, 인삼깎기, 발짜기 등을 통해 재배과정도 체험하도록 했으며, 한방무료진맥코너는 무려 2천 여명 이상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행사기간 내내 금산농악, 물떼기농요, 농바우끄시기 등 금산만이 지닌 전통민속을 상시 운영하여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으며, 인삼의 탄생설화 마당극 및 강처사 설화 마당극도 공연자와 관람객이 함께 어울리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른 지역축제와 달리 민속공연을 관광객이 소중히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촬영시간을 따로 마련,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느라 공연내용을 놓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소한 데까지 꼼꼼하게 배려하였다. 이에 더해 인삼·약초로 만든 동동주, 삼계탕과 같은 30여종의 건강먹거리는 축제의 참맛을 즐기는 데 더할 나위 없었다.

인삼축제는 금산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시·군·구기를 게양하였고, 인삼아가씨·인삼어린이왕 선발대회, 인삼장사씨름, 족구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였다. 이밖에 참여자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촛불행진과 환상적 촛탑제작에도 참여, 소중한 추억을 안고 가는 뜻깊은 축제였다.

문화관광부에서 집중 육성하는 전국 5대 축제 중 하나라는 지역민들의 자부심은 참여의식으로 승화되었다. 폐품을 이용해 한 가구당 하나씩의 인삼초롱을 만들어 2만여개의 청사초롱을 주요 거리에 걸으며 50여개의 애드벌룬은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도 희망업체와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청소년장기자랑, 관광객 및 약령인 장기자랑, 에어로빅시연, 사진전시회 등에는 각종 단체들이 자비로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을 찾는 이들을 반갑게 안내해주었으며 인삼발전연구회에서는 인삼차를,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축제의 재미를 더했다. 외국관광객들을 위해 영어와 일어로도 행사를 진행하였고, 통역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은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기에 충분했다.

금산 인삼축제는 즐기는 축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수익증대 및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발돋움했다. 관람객들은 금산만이 지닌 독특한 이미지로 어느 지역축제보다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되었을 것이다. 해결돼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지만 축제의 끝남을 아쉬워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앞으로 거듭 발전하는 인삼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¹³⁾



6. 도농 공동체운동

이제까지 살펴본 운동은 지역내 공동체 운동이 대부분이었다. 그 범위가 넓어져 함께 공동체 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그것은 인접간의 공동체 운동이었을 뿐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공동체 운동은 공간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활동 분야·이질화되어가는 생활환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개념이다. 공동체의 확산이면서, 그야말로 국가 단위의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운동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는 서로가 여러가지 유인 요인을 갖고 있다. 농촌 측에서 보면,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도시인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도시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농촌의 장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와 접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마을정비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전통행사가 부활될 전기가 된다. 도시측에서 보면,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자연에 대한 교육기회를 주고; 고향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게 되며; 스포츠와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농림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도시생활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며; 고향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의미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맞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고향마을을 가꿀 수 있고; 재난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웃을 넓힐 수 있다(일본 국토청의 조사자료를 이상배, 1988에서 재인용).

농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공동체 운동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축적되어있는 일본의 사례¹⁴⁾와 우리 민간단체들의 운

13)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47호, 1998.10.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동들을 중심으로 선별하기로 한다. 그 유형은 크게 산업분야·교육문화분야·여가분야·고향방문·고향개발분야의 공동체시민운동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덧붙여서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하는 범위는 초기단계에서는 일정 범주를 설정하여서 일종의 자매결연 형식으로 도시의 특정 지역과 농촌의 어느 지역을 끈매는 자매결연 형식; 농촌에서 자기 고향 출신 도시인들을 선정해서 교류범위로 정하는 등으로 한정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각 지역공동체마다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 도농공동체운동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산업분야에서의 공동체시민운동은 농촌과 도시의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의미를 갖는 중요한 교류이다. 실제로 우리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도농간의 무공해 먹을거리 주고받기 운동인) 생협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운동은 1980년대부터 원주한살림·안양소협·한국여성민우회의 생협·부천 YMCA의 생협·경실련의 경농생협 등이 이미 벌리고 있는 사업이라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생협운동은 도시의 단위공동체 구성원들과 농촌의 생산자가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함으로써 공해를 추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운동이다. 이것을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면, 도시공동체와 농촌공동체를 연결하기 위해 공동체 리더가 모인 상위의 조정집단이 필요할 것이다. 생협운동의 목적은 생활재의 공동구입을 통해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도시와 농촌·가정과 사회·인간과 자연생태계·가정과 사회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교육자료로 자체학습을 하거나 강사로부터 유기농산물에서 출발해 환경공해 문제까지 학습활동을 한다. 또한 매년 산지견학, 생산자와의 만남 등을 주관하여 도시공동체 소비자와 농촌공동체의 생산자가 한 자리에서 농촌문제 등 어려움을 토론하며 서로를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이요식 등, 1992). 보다 구체적으로 활동내용을 보면, 그들은 직거래 구매활동으로 공동구입신청과 분배활동을 하며; 생산지 견학과 교육활동; 생산자·소비자 잔치, 주말농장 가꾸기; 생협활동과 관련한 소식지 발간 등을 한다. 농

14) 일본의 사례는 이상배(1988)의 책을 주로 참조하였음. 그 밖에도 도농공동체 운동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가운데 상당수는 이상배(1988)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우선 공동으로 직거래 품목을 모아서 공동으로 생협에 출하하고; 퇴비생산과 김매기 등을 공동으로 하며; 품질보증을 위해 생산물을 서로 바꾸어 검사하는 등의 공동활동을 펼친다.

산업분야에서의 공동체시민운동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노동력의 교류이다. 농번기에는 도시공동체로부터 품앗이를 해주려는 구성원들이 지원을 가며, 농한기에는 농촌공동체가 도시공동체에서 요청하는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하도록 한다. 농촌에 지원을 가는 사람들에게 '모내기 열차'를 전세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은 서로가 상호보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교육문화분야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에 대해 갖고있는 지적·문화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상호교류와 방문 등의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듣거나 책과 방송매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익히기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것이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농촌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농촌 이동교실이나 산간지역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임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 농장이나 시범농장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사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농촌 청소년들에게는 도시의 주요 공공기관이나 산업시설을 견학하게 하며, 고향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할 기회를 준다. 또한 도시의 어린이들과 같이 보내는 문화교실을 개설할 수도 있다. 그밖에 도시와 농촌이 각종 행사에 서로 초청하고 참가하는 일, 상호 방문하는 일 등을 통해 교류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교육문화적 교류를 통해 농촌은 도시에 자연과 전통문화를, 도시는 농촌에게 인공의 세련된 문화생활과 현대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자연과 노동·봉사와 공동체 정신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여가분야에서는 관광농업의 형식을 빌려와 농촌공동체가 도시공동체를 초청하는 것이다. 농촌에서는 관광수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농토의 활용·농업기술 지도를 통해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도시인들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동적인 여가가 아닌 체험하는 적극적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하여 휴식과 정서함양을 할 뿐 아니라 농촌을 이해하는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공동체적 정신을 기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운영형태는 생산수단 대여형·농산물 채취형·장소제공형 등이 있다.

넷째, 고향방문·고향개발 분야는 도시인들에게는 고향을 찾아주고 농촌인들에게는 농촌을 삶의 가치가 있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고향방문 프로그램에서는 농촌공동체가 자기네 마을 출신 도시인들을 초청한다. 부모와 자식, 친척과 친지의 상호방문, 고향출신 유명인사들의 명예 읍면장 추대, 고향소식지 우송, 홍보책자 우송, 고향 찾아보기, 설이나 추석 등에 고유민속행사나 노래자랑 등을 개최하여 함께 참가하기, 도시와 농촌의 각종 모임이나 고향의 장날에 서로 초청하기와 같은 방안이 있다.

그밖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공동체를 상대로 농촌공동체 자체가 고향이 되어주는 방법도 있다. 고향이 없어진 도시인들을 상대로 교류를 통해 이상의 고향을 함께 만든다는 취지 아래 고향회원을 두는(운영경비를 위해 회비제를 둘 수도 있다) 것이다. 도시인들에게 고향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해주며, 마을의 시설을 부락민들과 같은 자격으로 이용하게 해준다. 계절 따라 생산되는 야채나 산나물 등도 보내준다. 그 지역의 산과 별판에 있는 식물채집·곤충채집이나 낚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도시인들과 함께 서로 갖고있는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를 마을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포럼같은 것도 열 수 있다. 도시인들은 책·옷가지·가정용 기구 등을 보내주며, 자신들의 소식을 보내주는 등 가능한 대응 운동을 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사업은 도시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고향과 자연에 대한 향수를 복원시켜주며, 농촌의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농촌사람들에게는 개발의 뒷전에 밀려있다는 소외감과 UR로 피폐해진 방향을 탈출하는 탈출구가 되어줄 것이다. 도시와 농촌은 상호공생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 줄 것이다.

사례 [6]

도·농간 교류체험 학습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24교를 선정, 총 3억 6천 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1,168교(초 668교, 중 318교, 고 182교)가 응모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거쳐 310교의 프로그램이 교육부에 제출 되었다.

프로그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6명과 청소년 수련관련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0. 3. 16일 심사한 결과 124교(초 80교, 중 28교, 고 16교)가 선정되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도·농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도시지역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가 상호방문하여 학교간, 학년간, 학급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 결연과 친교활동

도·농간 또는 타 시·도 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하여 친교활동을 벌인다. 더욱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1:1 결연가정에서 민박(home stay)을 하며 서로 다른 가정의 생활에 절을 익히고 개별적인 가족방문 등의 친교활동을 통해 우애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상호 교환방문을 통한 사회 문화 체험활동

학교간 상호 방문 및 학교 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방문 지역의 자연환경 및 특색(전적지, 도예지, 철새 도래지 등)을 관찰, 견학, 조사하거나 방문지역의 문화재, 유적지 탐방을 통해 지역간 특성을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합동 수련활동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교외 수련시설, 분교장 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 수련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 우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공동 축제활동

인근학교나 타지역 학교간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가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 축제 등을 전개하여 공동 축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창의적 교류 체험활동을 통해 교실을 벗어난 다양한 학습의 장을 활용한 탐구 및 체험학습이 활성화되고 서로 다른 환경과 사회문화를 이해하여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124교의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시범 운영의 결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교육부는 이를 점차 확대 운영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소재 학교 도·농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 선정 및 국고보조금 배정 현황

학교명	국고 지원금	방문학교	비 고
옥산초등학교	400	서울 청구초등학교	프로그램 제출 선정교
중장초등학교	209	서울 은천초등학교	"
서령중학교	259	서울 양정중학교	"
웅천중학교	400	충북 청주동중학교	"
마곡초등학교	231	대전 구룡초등학교	후방문 선정교
청룡초등학교	306	대전 중천초등학교	"
고남초등학교	200	대전 샘머리초등학교	"
청라중학교	240	대전 대덕중학교	"
계	2,245		

7. 미래공동체 운동

우리의 공동체 시민운동은 당대에 끝날 운동이 아니다. 공동체 문화의 이상은 후대에까지 이어져야 되며, 공동체운동의 시점을 미래로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우리 모두가 후손들이 우리가 염원하는 공동체 사회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미래공동체를 겨냥한 공동체교육을 시켜야 된다.

미래공동체 운동의 주제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자. 첫째, 어릴 때부터 청소교육을 철저히 시키자. 우리의 청소년들은 우리처럼 공해가 심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되어있어야 된다. 우선 쓰레기는 우리들의 생활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그 자체임을 교육시켜야 된다. 쓰레기가 더럽고, 쓰레기를 다루는 것이 더럽다는 고정관념을 깨야된다. 몇 개의 인근 공동체가 연합하여 쓰레기 교실을 여는 것도 좋다. 쓰레기 교실에서 청소년들은 쓰레기의分別법·자원재활용 등을 교육받으며, 청소관계시설을 견학한다. 그밖에도 각종의 유인물과 비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폐건전지 분리수거·쓰레기 버리지 않기·쓰레기 감량화·쓰레기 재자원화 등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 그밖에도 학교에서 받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시킨다.

둘째, 자연과의 친화감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식물이나 동물과의 만남·자기 스스로가 대자연의 일부라는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가정과 학교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가 살아가는 일 등은 공동체 정신의 기초이다. 종래의 통제와 훈육지도 위주의 교육은 청소년 비행 통제에서조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공동체 단위 별로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 훈련원¹⁵⁾에 보낸다든지, 자매결연한 농촌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를 지역공동체 단위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한 지역에서 평소에 알고있는 청소년들끼리 함께 간다는 점에서 정서적 거부감이 없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끼리도 공동체 정신을 더욱 더 굳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지역별 공동체 단위의 공동행동이 편리하다. 요즈음의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거나 집 단으로 받는 각종의 교습이 많다. 같은 지역 내의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교습날짜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개인적으로 불참하게 되는 손해를 없앨 수 있다. 학원 편이나 학부모들 모두 환영할 일일 것이다.

셋째, 지역간이나 학교간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사이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다. 양쪽의 어린이들이 상호 방문하여 타지역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과 농촌생활을 경험시키고, 겨울방학에는 농촌 어린이들이 산업학습과 도시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도시의 어린이들은 농가에서 3-5명씩 나누어 숙박

15) 우리 나라에도 유스호스텔이나 보이 스카웃, 각종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하면서, 농촌의 일손이 되고 농민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과의 싸움을 듣는 것이다. 현재의 단순한 수학여행이 농촌지역을 택한다할지라도, 극히 수동적인 관광으로 그쳐버린다. 유명 숙박지에 가서 밤이나 새고, 버스 속에서는 코를 골며, 관광은 수동적으로 훑어보며 사진이나 찍는다. 이에 비하면, 상호방문과 체험학습을 위주로 한 전자(前者)식 프로그램은 공동체 의식 형성이나 그 밖의 학습 면에서도 훨씬 유익하고 적극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도시와 농촌간에 국내 유학을 하는 것도 장려할 만한 일이다. 학생들이 부모 곁을 떠나 농촌이나 도시의 다른 집에서 일년 정도 유학을 한다면, 정서교육과 독립심·인생관을 넓히며 타인이나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타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 정신의 기본 바탕을 형성하는 것이다.

미래공동체 운동 프로그램은 이 밖에도 수많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정신은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에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의 열매를 맛보게 하고자' 씨를 뿌린다는 것이다.

사례 [7]

일본의 산촌유학

일본 중북부 나가노(長野)현 야사카무라(八坂村) 인구 1천2백명에 북알프스산 봉우리로 둘러싸인 이 산골 마을엔 초·중학교가 하나씩이다. 이 학교엔 대도시에서 유학 온 학생 26명이 다니고 있다. 방학을 이용한 캠프나 자연 학습이 아니다. 아예 학적을 옮겨 온 것이다.

야사카초등학교 4년생인 고바야시(小林.10)도 그 중의 한 명. 지난해 3월 도쿄(東京)에서 전학왔다. 그는 "처음엔 부모가 보고 싶어 고생했지만 자립심을 키우고 책으로 보던 자연의 변화에도 눈을 뜨게 됐다" 고 말했다. 생활의 절반은 야사카무라가 마련한 합숙 학원에서 집단 숙식으로, 나머지는 농가에서 홈스테이로 보낸다. 토박이들과 함께 4km의 꼬부랑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엔 학원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주말·방학 때도 도쿄로 가지 않고 야외 체험 활동을 하거나 농사일을 거들고 있다. 고바야시는 "부모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면회를 했다" 며 "앞으로 1년 더 유학생생활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을 하고 싶다" 고 했다.

학생들 중 일부는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가지만 학부모나 학생 대부분은 대만족이다. 따라서 평균 유학기간은 2년 야사카무라가 도시 유학생을 받아들인 것은 1976년. '자연체험을 통해 어린이를 키운다' 는 기치를 내건 재단법인 '키우는 모임' 이 제안한 산촌(山村)유학 아이디어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채택했다. 처음엔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명으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거쳐간 학생은 7백여명에 이른다.

산촌 유학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고령자가 대부분인 마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다. 자식을 다 키운 마을 노인들은 손자뻘되는 도심지 학생의 홈스테이로 제 2의 삶을 가꾸고 있다.

다른 하나는 토박이들의 교육 문제다. 기타자와 도시키(北澤敏機)마을 교육장은 "이곳 어린이들은 수가 적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유학생들로 학교 교육이 활력을 찾고 있다" 고 말한다.

도시와의 교류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야사카무라를 거쳐간 유학생들은 모임을 만들어 매년 마을 축제에 다녀가고 있다. 산촌 유학은 현재 전국의 1백70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다. 지금까지 유학생수는 모두 7천여명. '교실 붕괴' 가 발등의 불이 되자 문부성도 산촌 유학을 장려하고 있다. '키우는 모임' 의 아키야마 마사미쓰(秋山雅光)총무 담당은 "산촌 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제2의 고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며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산촌 학교에서 '마음의 수확' 을 거두려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제3절 각 주체간의 협력방안

내고장 사랑운동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운동이지만 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활동을 위한 시설, 지식, 정보, 자원 등은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언론 및 학교의 지원 및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내적 역량을 갖춘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기능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고장 사랑운동에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가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직접 관여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서비스생산에 함께 기여하는 연합적 노력의 형태인 공동생산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동생산의 형태로 지역주민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지역이나 거주하는 동네의 방범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동생산은 주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내고장 사랑운동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진 능력과 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투입의 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부담과 주민편익의 형평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행정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인식시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더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생산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고장 사랑운동에 있어서도 지역 및 민간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생산은 하드웨어보다는 교육, 복지, 환경 등과 같이 소프트한 분야에 더 적합하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가 공동생산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자치단체에서는 시설 및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기자재 및 지식과 정보를 내고장 사랑운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위해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조례’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내고장 사랑운동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의 역할

지역공동체운동이 시민운동이라 해서 행정기관의 지원을 경원시 할 필요는 없다. 운동의 기본방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의 공사협동이 되도록 한다. 즉, 정부의 지원은 종래의 관 주도의 시민운동 또는 정부와의 격리를 강조하는 비판일변도의 시민운동을 지양하고 민과 관이 협동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보다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시민운동이 되는 촉매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지원형식에 있어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간접적 지원을 지향하도록 한다.

첫째, 시설 및 행정정보의 지원이다. 행정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기자재 및 지식과 정보를 지역공동체운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재단”을 설립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재원은 주민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의 재원동원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기관 출연의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재단(가칭)’을 설립하여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운용토록 한다. 현재 시도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시·군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재단”에서는 운동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의 보조, 연구지원 및 평가, 지도자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각종보고 및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운동의 침해사례 적발 시정 등 운동의 움부즈맨

제 5 장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 추진방안

역할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성패는 지도자의 확보 및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지도자 육성 및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설지원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직접개입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의원의 역할

지방의원은 주민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한편, 주민의 여론을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시·군 단위 주민조직에 같이 참여하도록 한다.

3. 언론매체의 역할

신문·TV·유선방송 등은 “내고장 사랑운동”에 대한 사례보도 외에 모범사례의 발굴 또는 개선방향의 제시와 같은 적극적 보도를 통해 지역공동체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역할

학교는 주민활동을 위한 시설의 제공, 연구에 기초한 전문지식의 제공 및 활동성과의 평가 등을 통하여 주민활동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지역사회에서의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내고장 사랑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도자 육성 및 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동성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각 자치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다시 말해 충청남도과 시·군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이 운동의 문제점을 밝혀, 내고장 사랑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을 검토분석하고 시사점을 얻었다.

내고장 사랑운동은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룩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주도와 주민참여의 미흡, 운동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다.

타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발굴 및 상품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중점을 두고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구의 경우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담장허물기·섬유축제·약령시·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작, 부산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참여·담장허물기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행정은 사업추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실질적으로 재원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뿐 대부분의 사업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격은 첫째, 추진방법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면서 주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시민단체나 전체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추진주체는 사회단체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와 기관, 출향인사 등을 포함하여 전체 주민을 포함한다. 셋째, 실천방안은 교육기회 강화, 홍보강화를 통해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시민생활운동 및 지역발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넷째, 기타 내고장 사랑운동을 시·군단위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상 및 홍보하며, 실천을 위한 조례 및 강령제정·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실천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타 광역자치단체와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내고장 사랑운동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추진, 조례·규칙·예산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인 지원대책 미흡,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위주의 선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상징사업 부재, 물리적인 성장뿐 아니라 주민의 정신이나 의식계발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별 역할과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외부의 지원세력은 그들대로 제각각의 역할상의 한계와 상호관계의 미숙함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고장사랑운동의 내용에는 첫째,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들 상호간의 연대감을 깊게 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여 공동체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문화운동, 둘째,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운동, 셋째, 환경의식 고양, 쓰레기 감량화, 자원재활용 등을 포함하는 환경운동, 넷째, 나이와 연령·성 등에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운동, 다섯째, 자립적 지역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활성화 운동, 여섯째,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중심으로 한 도농공동체 운동, 일곱째, 우리 후손들에게 공동체사회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미래공동체운동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고장 사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진주체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1단계로 행정기관,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조직화되고, 2단계로 공공기관, 각종단체, 기업체 등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3단계에서는 개인별 자원봉사자와 단위 지역별 주민모임 등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적 역량을 갖춘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기능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동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시설 및 행정정보 지원,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재단 조직, 지도자 육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의원은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언론의 홍보와 지도자육성 및 훈련프로그램 등 학교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단위의 활성화운동이 일반화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지원체계,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선진외국에 비교해 본다면, 충청남도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내고장 사랑운동은 역사가 짧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추진조직의 부재, 행정기관 중심의 추진 등이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어 그 만큼의 시행착오와 시간의 소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고장 사랑운동은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건의

1. 내고장 사랑운동 기본계획 수립

내고장 사랑운동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계획에는 내고장 사랑운동의 성격·개념·이념, 운동의 내용,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등 운동의 성격과 목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주민의 공감대 형성

내고장 사랑운동의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기관 주도의 운동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어 단발성이 그칠 가능성이 크고, 지속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없다.

3. 내고장 사랑운동 기금 설립

내고장 사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기금과 같이 행정과 민간단체, 주민간의 중립성을 띤 내고장 사랑운동 기금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의 성격은 원활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이라는 성격을 띠어야 하며,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지원하는 중립적인 민·관의 공동기금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센터 설립

내고장 사랑운동을 행정, 주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센터를 민관공동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의 최대 고민은 활동할 장소, 회의실의 확보, 장비의 비축장소 등이다. 따라서 민간단체와 행정의 공동생산방식을 통해 민간조직이 부족한 활동장소, 회의실,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5. 내고장 사랑운동 지원조례 제정

보령시는 “보령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운동을 실질적인 지원방안 제도적으로 규정한 조례와 규칙의 제정 없이는 운동을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내고장 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헌장”이나 “행동강령” 제정과 같은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6. 지역상징사업 선정

내고장 사랑운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행정여건, 주민정서 등을 참고로 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징사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너무 많은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없이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도 제도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징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재원동원 및 주민참여를 통해 타 사업으로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상징 사업은 각 시·군의 제일 시급한 현황과제일 수도 있고,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다.

7. 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내고장 사랑운동의 벤치마킹

내사랑부산운동은 대구사랑운동을 벤치마킹한 운동이다. 따라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도 선진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운동을 벤치마킹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하여 추진

충청남도 각 시·군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원과 전통문화가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문화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고장 사랑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내고장 사랑운동은 문화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내고장 정체성 회복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출발해야 할 것이다.

9. 민간단체와 행정기관의 파트너십 형성

내고장 사랑운동의 주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기업인 등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주민과 민간단체가 귀찮은 존재이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의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내고장 사랑운동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내고장 사랑운동은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은 내고장 사랑운동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내고장 사랑운동이 궁극적으로 민간주도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 연구단, 지방자치단체와 NGO간의 기능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민관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1999.
- 경상남도, 경남사랑운동, 1999.
- 고순철, 공동체문화운동의 필요성과 의미, 공동체문화 형성과 시민의식,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시민교육연구실, 1994.
- 공보처, 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이 새로운 지평: 세계화시대 한국시민운동의 발전 방향, 1997.
- 김경준, 지역사회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신일, 민주적 공동체의식 형성의 과제 -지역공동체 교육운동을 중심으로-, 공보처 보고서. 1993.
- 김신일·조영달, 지역공동체형성운동의 현황 조사연구, 공보처 보고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센터, 1993
- 김칠준,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 공동체운동의 전망,” 도시와 빈곤, 한국도시연구소, 1997. 8.
- 박서호,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형성방안,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공동체의식 함양방안, 1993, 대전: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 보령시, 2000보령사랑운동 실천계획, 2000.
- 송복 외, 97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평가, 1998,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근주,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쉽에 관한 연구, 1999.
- 이미나, "공동체 시민운동의 추진모형", 민주공동체 시민운동의 이론과 실제: 한국형 복지공동체이 건설, 공보처, 1995.
- 이상배, 농촌과 도시의 교류, 서울 : 나남출판사, 1988.
-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정수복, 공동체의식과 시민운동, 1995, 서울: 공보처
- 조명래, 1999a,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이해와 한국사회의 적용', 환경정의시민연대 주관 'National Trust 운동소개 및 한국사회 적용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 조명래, 1999b, '새로운 시민환경운동으로 National Trust 운동의 이해와 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 '에코 밀레니엄 국가비전에 관한 연구 워킹샵' 자료집.
- 조명래, 1999c, '새로운 시민운동, 내셔널 트러스트', 우리와 다음, 12월호(창간 준비호)
- 조명래, 2000a,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소개와 비전', 내셔널 트러스트 준비위원회 주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창립대회 자료집.
- 조명래, 2000b,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개념과 원리: 영국을 중심으로', 환경과 조경, 2월호(통권 142호).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부 록

I. 보령사랑운동

1. 실천조례
2. 행동강령

II. 대구사랑운동

1.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 규약
2. 대구사랑운동 표어

III. 내사랑부산운동

1.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규약
2. 내사랑부산운동 선언문
3. 내사랑부산운동 시민행동강령

IV. 대전사랑운동

1.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 조례

V. 예산사랑운동 세부추진계획

VI. 지역공동체운동 사례

1. 청소년 지역사랑운동 : 대한 YWCA연합회
 2. 생산자 소비자 도농공동체 건설 :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3. 21세기 지역만들기 시민운동 : 한국YMCA 전국연맹
 4. 공동체 생활문화 가꾸기 시민운동 : 흥사단
-

I. 보령사랑운동

1. 보령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키 위하여 보령사랑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사랑운동”이라 함은, 보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보령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으뜸보령정신을 세우고 보령의 경제를 키우며, 보령의 인재를 육성하고 보령의 자연·환경·문화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며, 보령사람을 인보운동으로, 더불어 잘살기 위한 시민운동이자 고향사랑 운동으로써, 모든 시민의 힘과 슬기를 모아 풍요롭고 아름다운 만세보령 행복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보령사랑운동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보령사랑운동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령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 조정
2.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의 보령사랑운동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기관·단체·기업체 대표 및 덕망있는 시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령사랑운동 주무부서 담당관,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9조(보령사랑추진실무위원회) 보령사랑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령사랑운동추진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령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2. 추진 단체간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결정사항의 추진
4. 그밖의 보령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사항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국장, 담당관, 실·과장, 사업소장,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 및 시민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령사랑운동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실천분야) 보령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한다.

1. 보령의 자연사랑운동
2. 보령의 환경사랑운동
3. 보령의 시민사랑운동
4. 보령의 문화사랑운동
5. 보령의 경제키우기
6. 으뜸 보령시민정신 갖기
7. 보령의 고향사랑운동
8. 충·효·예 정신발양
9. 그밖의 보령사랑에 관한 사항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전임강사 운용)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보령사랑운동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민모임) ①보령사랑운동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단체·기업체 대표 등으로 보령사랑운동 실천모임 (이하 “시민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한다.

②시민모임은 분야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보령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령사랑운동 실천강령

우리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유서깊은 전통문화·관광보령의 시민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손만대가 살아갈 우리 고장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령사랑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자연자원을 사랑하며, 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데 노력한다.
1.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과 들, 바다를 항상 깨끗하게 보전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1. 우리는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하는 이웃사랑을 실천 하여, 시민이 하나되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
1.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사랑하고 계승·발전시켜 보령의 문화를 꽃피워 나간다.
1. 우리는 우리고장 상품을 애용하고 사랑하며, 지역 기업을 육성하여 보령경제를 키워 나간다.
1. 우리는 항상 진취적인 사고와 질서를 지키는 으뜸 시민정신으로 21세기 위대한 보령의 시대를 열어간다.
1.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보령인이라는 자부심과 애郷심을 갖고, 고향과 고향 사람을 살아하고 위한다.
1. 우리는 충·효·예 정신이 살아있는 충절의 고장 시민으로서 미풍양속을 앙양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간다.

II. 대구사랑운동

1.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 규약

제1조(명칭) 본회는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구사랑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대구가 21세기 세계속에 우뚝서는 일류도시로 거듭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대구사랑운동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시·단위 각급기관, 구·군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단체, 언론기관과 대구권 대학교(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한다.

- 제4조(기구) ① 본회의 기구는 총회와 상임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총회는 이를 대표하는 2명의 공동의장을 두되, 1명은 민간단체 대표중에서 선임하고, 대구광역시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는 총회에서 지명하는 기관단체 대표와 본 운동의 자문을 위한 대학교수등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참여기관·단체중 사무국기능을 갖춘 기관·단체의 사무국장급과 대학교수등 10명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⑤ 사무국은 대구광역시에 두며, 사무국장은 대구시 내부국장이 된다.

제5조(임기) 의장(선출직)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① 총회는 년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총회 비회기중의 주요의결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분기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⑤ 사무국 운영은 대구광역시에서 담당한다.

제7조(역할) ① 총회는 대구사랑운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 및 주도한다.

- ② 상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대구사랑운동의 주요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③ 실무위원회는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추진분위기 조성, 실천과제의 발굴,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④ 사무국은 대구사랑운동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회의운영을 지원한다.

제8조(의결) 총회 및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무국에 신청하며, 상임위원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대구사랑운동 표어

- 참여하는 시민 젊어지는 대구
- 대구사랑 가슴마다 대구발전 곳곳마다
- 푸른대구 밝은미래 세계속의 패션대구
- 푸른대구 밝은미래는 대구사랑으로
- 세계로 미래로 함께뛰는 대구시민
- 촛불만한 작은실천 햇빛같은 대구사랑
- 분지속에 움튼열정 세계화로 불꽃핀다
- 대구발전은 대구사랑에서 시작됩니다
- 우리모두 대구사랑운동에 참여합시다
- 마음모아 대구사랑 지혜모아 대구발전
- 푸른대구 밝은미래 세계속의 으뜸대구
- 작은일도 함께하면 대구발전 큰힘된다
- 아름다운 도시 품위있는 대구
- 새천년 밝은미래 시민과 함께

Ⅲ. 내사랑부산운동

1.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시민 모두의 향토사랑과 화합단결을 바탕으로 21세기 부산재창조를 위한 내 사랑부산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를 둔다.

제2조(역할)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내사랑부산운동 추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주도한다.

1. 내사랑부산운동의 추진방향 및 과제설정에 관한 사항
2. 내사랑부산운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내사랑부산운동과 관련한 홍보, 각급기관·단체간 협조 등 전반 사항
4. 각급기관·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내사랑부산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각급기관, 시민·사회·종교·직능 단체, 대학 등(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의 대표(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4조(회장 및 간사)

- ①회장은 2인으로서 협의회에서 선출하는 민간인사 1인과 당연직인 부산광역시장으로 한다.
-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괄한다.
- ③협의회에서 선출하는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고 운영위원장과 시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제5조(회의)

- ①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②협의회 회의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협의회 비회기중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협의회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제6조(자문단 등)

- ① 내사랑부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언론사 대표등으로 언론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 ② 각급 기관중 내사랑부산운동에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기관 등은 협조기관으로 참여토록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내사랑부산운동에 관한 기획·조정·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의회의원, 언론사간부, 대학교수, 기관·단체 실무책임자급 인사 등 5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격월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필요시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특이 사안에 대하여 기관·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부산광역시 지원)

부산광역시는 내사랑부산운동의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각종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 창립대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내사랑부산운동 선언문

오늘 우리는 전후 최대의 국난과 부산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부산 21세기를 열어가기 위해 400만 시민 스스로의 힘을 합쳐 내사랑부산운동을 선언한다.

부산은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 온 자랑스럽고 빛나는 경험을 갖고 있다. 개항으로 이 땅의 근대화를 개척한 부산은 일제 하에서도 민족운동의 굳건한 맥을 지켜왔고 백척간두의 한국전쟁 중에는 조국을 수호한 보루였다. 고도성장 시기에는 산업화의 선도 도시로서 사명을 다하였고 부마민주항쟁과 6월 시민항쟁으로 이 나라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다.

하지만 지금 부산은 산업구조 조정의 실패, 도시 기반시설의 낙후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상실해 있고, IMF 경제위기 이후 전국 최고의 실업률, 부도율, 물가고로 시민들의 고통지수는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러나 무엇이 위기인가? 가장 큰 위기는 이런 부산의 위기를 감당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향토사랑의 새로운 점화와 부산 재창조를 위하여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무기력과 무관심을 걷어내고 참여형 부산 시민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시민중심의 새로운 부산발전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

내사랑부산운동은 부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시민적 삶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풍요와 21세기형 도시경쟁력을 갖춘 부산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민주체의 창조적 부산만들기 운동'이다

내사랑부산운동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째는 범시민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부산의 당면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둘째는 부산사랑의 숭고한 시민정신으로 지역 시민공동체를 확립하는 일이다. 셋째는 21세기 부산재창조를 위한 자주적 도시개혁을 실천해 가는 일이다.

내사랑부산운동의 핵심적 이념과 가치는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시민복지 우선주의 실천,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체계 구축, 창조적 부산정신의 구현, 합의주의 사회의 조성으로 한다.

우리는 내사랑부산운동이 관념적 구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활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동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전 과정에 시민 주체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시민 누구나 생활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실천운동의 원칙이 지켜지며, 관련 주체들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확산시키는 수평적 협력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앞으로 내사랑부산운동은 활력 있는 부산, 더불어 함께 사는 부산, 맛과 멋이 넘치는 부산, 푸른부산, 편리하고 안전한 부산, 세계로 뻗어가는 부산, 훌륭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산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의 위기 속에 주저앉느냐, 시민의 의지로 새롭게 거듭나 우리와 후손에게 복된 시민시대를 열어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몫이다.

우리 모두 부산사랑으로 함께하자!

우리의 힘으로 부산의 위기를 이겨내자!

희망찬 부산의 미래를 위해 다같이 힘차게 나아가자!

3. 내사랑부산운동 시민행동강령

우리는 새 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부산을 창조하기 위해 400만 시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내사랑부산운동"을 펼치면서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실천하고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산사랑운동을 시작한다.
1. 우리는 이웃을 신뢰와 정성으로 대하여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부산을 만든다.
1. 우리는 내 주변의 쓰레기를 내가 먼저 줍고, 서로 양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질서있는 부산이 되도록 한다.
1. 우리는 부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예의바른 행동을 생활화 한다.
1.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산, 바다, 강을 잘 지키고 가꾸어 후

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부산이 되도록 한다.

1. 우리는 향토문화를 소중히 계승 보존 발전시켜 멋과 매력이 넘치는 부산을 만든다.
1. 우리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세심히 보살피고 다듬어 푸른 부산이 되도록 한다.

IV. 대전사랑운동

1.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발전을 선도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사랑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전사랑운동"이란 우리고장 대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乡심을 바탕으로 대전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대전정신을 세우고 대전경제를 키우며 대전인재를 키우고 대전문화를 꽃피워 밝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자 고장사랑운동으로서 모든 시민의 힘과 슬기를 모아 풍요롭고 아름다운 대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대전사랑운동위원회) 대전사랑운동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사랑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조정
2.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전사랑운동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기관·단체·기업체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09. 05 조례 제2786호>

제9조(시민모임) ① 대전사랑운동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단체, 기업체대표 등으로 대전사랑실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한다.

② 직능별 시민모임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대전사랑운동 선결과제를 실천한다.

제10조(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 대전사랑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2. 추진단체간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결정사항의 추진
4. 기타 대전사랑운동실천에 관한 사항

제12조(기획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과학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자치행정 과장과 시의회의원, 기관, 단체, 기업체 간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 08. 10 조례 제2885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기획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획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획위원회의 회의) ① 기획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98. 09. 05 조례 제2786호>

제16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천과제) 대전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1. 대전정신세우기 2. 대전경제키우기 3. 대전인재키우기 4. 대전문화 꽃피우기 5. 밝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제18조(전임강사 운용)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대전사랑운동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서 제출)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대전사랑운동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모임등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대전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결산서 등 제출)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는 시장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 2604, 2631, 2786, 2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V. 예산사랑운동

1. 세부추진계획

1) 우리고장 충효정신 바로세우기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충효의 고장 정신고양	o 「예산정신」 범군민 홍보활동전개 -각종홍보매체 활용 : 예산소식지, 주간지, 유선방송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홍보 각종회의 및 주민교육시 적극 홍보						연중	-월1회 예산소식지 33,000부 발간배포(10회) -언론매체에 보도자료제공(60회) -유선자막방영(6회)	문화고보실	
효실천 범군민 운동추진	o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추진 (단위 : 천원)						연중	-효실천옹변대회('99.5.31) -충효예교실운영(하계방학)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99.5.8, 10.5)	사회복지과	
	사 업 명		시기	사업비						
	효실천옹변대회		'99.5월	2,000						
	충효예교실운영		'99.7.12월	3,900						
	어버이날,노인의날기념식		'99.5.10월	23,340						
	효실천을위한노인숨씨자랑대회		'99년12월	2,200						
	o 접객업소 효실천운동전개						연중	-부모님 모시고 오는 손님10% 요금 할인 참여업소 선정	사회복지과	
	계	예산	삼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17	6	12	10	4				5
	95	옹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7	10	10	11	5	7			
	o 효실천교육강화및민간단체 참여분위기조성 -각급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연중	-학생 수련활동등 각종 행사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사회복지과	
	o 사단법인 「효행장학회」 설립추진 -효장학회 발기인구성및창립총회('99.6월) -법인설립허가신청('99.11) -법인설립 및 총회개최('99.12)						연중	-효행장학회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99.7.28) -기금조성(2억원)	기획감사실	
	o '99 효도시범마을 육성						99.5 ~11	-효도시범마을선정(27개마을) -효도시범마을현판식 ('99.11.1~11.22)	사회복지과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생활수준 향상	o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단위 : 명)							연중	-매월1회 8,082명	보 건 소
	계	예산	삽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72	38	37	39	43	36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20	30	36	30	28	31			
	-목욕봉사의날 지정 운영 ·대 상 : 100명 ·내 용 : 목욕봉사 및 중식제공 ⇒예산직십자봉사대와 협조실시									
o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 상 : 63명 -내 용 : 도배, 의복, 침구류 세탁 및 수선 이발·목욕 실시										
효행자 행적 조사 및 효행록 발간	o 우리고장 효행자 행적조사 -대 상 : 군내 역대 효행상 수상자 및 전래되는 효행자 -기 준 : '99.4.1이전 효행 표창자 -조사기간 : '99.6.30한 -조사방법 : 각 기관단체 방문 효행자 명단 발췌 ⇒행적조사후 효행자 가정방문 정확한 조사 ※효행록발간 : 지역주민 언론수집등 정확한 행적조사 실시후 발간(발간비 20,000천원 추경확보)							99~ 2000	읍면별 행적조사 실시 ('99.4~10) -행적조사내용 보완조사계획 ('99.12)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재확대 운영	o 이용업소 자원봉사제운영							연중	-시기 : 매월 1회 -대상 : 관내 무의탁노인 (300명) -참여 : 예산군미용협회 53명	사회복지과

2) 禮山경제 살리기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 진 실 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내고장 상품구입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홍보팜프렛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단계 : 20개업체 -제2단계 : 20개업체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제품업체 제품홍보책자 시안제작 -추경예산 반영후 책자 제작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권명 : 예산사랑 상품권 종 류 : 2종(5,000원권 10,000원권 : 40,000매 발행액 : 450백만원 5,000원권 : 10,000매 10,000원권 : 40,000매 -참여대상 : 군산하 전공무원 -사용지역 : 관내 가맹점 농특산물 관측기획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대상 : 농·축·임협 작목반등 <p>※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소식지 게재, 유선자막방송</p>	연중 9월 (완료) '99. 12	-1단계 : 20개업체 -2단계 : 21개업체 -홍보책자 제작매부 : 1,200부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도안용역 완료 : 3,300천원 -상품권 취급가맹점 접수 : 287개소 -예산사랑 상품권 제작중 -목요장터및우수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실시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 (삼다리한과의 1개소) -뉴욕추석맛이작판행사 (예산전통웅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산 업 과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간 : '99.5~12 대 상 : 전군민 중점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군민에게 홍보하여 적극 참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계속 홍보 	연중	-예산소식지 개재 전군민 참여 토록 홍보 -읍면에 추진계획시달 전직원 적극 추진토록 조치	자치행정과 (읍면)
내고향 담배 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고장 담배 사주기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향인사, 향우회, 체육행사등 -고향 찾는 출향인사에게 고향담배 선물하기 -관광 및 장기출타시 내고장담배 지참하기 	연중		재 무 과 (실과,읍면)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 진 실 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자동차 차적 옮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99연중 실시 ○ 이전등록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에 자진이전 유도서한문 발송 -유선자막 방송홍보 -예산 소식에 게재 홍보 	연중	-타지역 차적옮기기 : 195대 41,057천원	재 무 과 (읍·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요 주말장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 '99.5~11월 -장 소 : 농협역전지점후정 -개장시기 : 매주 목요일 -판매품목 : 채소류,과일류,곡류등 30여품목 	연중	-품목 : 곡류외 4종 -장소 : 농협역전지점 후정 -개장시기 : 매주 목요일	산 업 과
농산물 아파트 이동 장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이동장터 개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 '99.1~12월 -장 소 : 아파트지역(서오,석탑,현대,신성) -개장시기 : 매월3회(1, 12, 22일) -품 명 : 사과등 24개 품 목 	연중	-서오아파트외9개소 · 판매량 : 116톤 · 판매액 : 178,137천원	산 업 과
우리고장 농산물 직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 농산물 직판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치 : 덕산면 신평리 175-1 -규 모 : 조립식패널 33.99㎡(10평) -시 설 : 판매장, 창고 -설치자 : (주)지당관광 -설치기간 : '99.5~7 	'99.5 ~7	-직판장 설치완료)세심천온천)	산 업 과
우리지역 발주공사 용역시 지역업체 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업체로 제한 지명경쟁 입찰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 : 3억원 · 전문공사 : 1억원이하 -일정금액이상 경쟁입찰로 관외공사수주시 ⇒하도급시에는 관내업체를 지정토록 계약소에 명문화 시행 ○ 수의계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사 : 1억원이하 -전문공사 : 5천만원이하 ⇒관내 미소유 면허를 제외한 모든공사 관내업체 수주 	연중	-경쟁입찰 : 37건 4,894,222천 원 (일반공사 17건, 전문공사 20건)	재 무 과

3) 우리고장 전통문화 꽃피우기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매년문화 제거군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기 간 : '99.4.20~4.29 0 장 소 : 충의사, 예산군내 일원 0 참여인원 : 25,000명 0 주 관 : 예산군, 월진회 0 행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행사 : 상두놀이등 10개행사 -당일행사 : 고공낙하시범등 21개행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인원 : 50,000명 -주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행사 : 상두놀이등 10개 행사 · 당일행사 : 고공낙하시범등 21개 행사 	문화공보실 (월진회)
추사 문화제의 내실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기 간 : '99.10.8~10.10 0 장 소 : 추사고택, 문예회관 0 참여인원 : 10,000명 0 주 관 : 예산군, 예산문화원 0 행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일행사 : 분재전시회등 4건 -당일행사 : 전국서예백일장등 2건 	10월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인원 : 10,000명 -행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행사 : 분재전시회등 4건 · 당일행 : 전국서예백일장등 2건 	문화공보실 (예산문화원)
내고장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시조경향 대회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99.4.1~12월 -장 소 : 문예회관 -참여인원 : 400명 0 세시풍속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설, 정월대보름 -참여인원 : 200명 -주 관 : 예산문화원 -종 목 : 윷놀이등 3개 행사 0 학생품물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추사문화제 전일행사시 -장 소 : 예산초등학교 -주 관 : 예산문화원 0 청소년 어울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장 소 : 문예회관, 문화원등 군내일원 -주 관 : 예산문화원 	4월 (완료) 2~ 3월 (완료) 10월 (완료)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99.4.27 -장 소 : 문예회관 -인 원 : 4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설, 정월대보름 -인 원 : 200명 -종 목 : 윷놀이등 3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추사문화제 전일행사시 -장 소 : 예산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장 소 : 문예회관, 문화원등 군내일원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예산문화원) 문화공보실 (예산문화원) 문화공보실 (예산문화원)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세 부 사업명	세 부 주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단위 : 백만원)				연중	-임존성 복원 · 지표조사 착수(99.11.1) -덕산향교보수 · 설계 및 목공사 -김한중 생가 복원 · 명사이월 추진 -삼교석조보살입상 보호책 설치 · 설계 및 기초공사	문화공보실
	사 업 명	내 용	시기	사업비			
	임존성복원	학술용역및지표조사	4~12월	130			
	덕산향교보수	대성전, 내삼문보수	1~10월	33			
	김한중생가복원	설계및목공사	1~12월	140			
	삼교석조보살입상 보호책설치	설계및기초공사	1~12	10			
	o 출향인에 고향소식 전달 ⇒예산소식지배부 : 33,000부 (월1회 : 군가구 및 출향인사, 다중집합장소) ⇒출향인에 홍보책자 송부 : 관광예산의 홍보사절역할(790명)					-출향인사 928명에 소식지, 관광홍보 팸프렛등 송부	문화공보실

4) 쾌적한 예산 가꾸기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0 시범꽃길 조성사업 추진 -위 치 : 응봉면 지석리 국도변외 2개소 -길 이 : 2.2km (단위 : km) 계 예산 신양 응봉 2.2 0.5 0.7 1.0 -종 류 : 프록스, 칸나, 넝쿨장미 -식재본수 : 24,700본 0 꽃길조성관리 -위 치 : 군내 도로변 일원 -길 이 : 254km (단위 : km) 계 예산 삼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29 22 16 27 20 18 254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23 27 18 14 19 21 종류 : 프록스, 칸나, 페츄나아, 코스모스 -식재본수 : 4500천본 0 가로화단 조성 및 정비 위 치 : 신양면 차동리 국도변동 -개소수 : 66개소(43,059㎡) (단위 : 개소) 계 예산 삼교 대술 신양 광시 대흥 10 3 5 13 4 4 66 응봉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5 8 4 3 4 3 0 절개지 녹화사업 위 치 사업량 (㎡) 식 재 본 수 (천본) 계 개나리 덩쿨 장미 연산 홍 계 10,000 224 220 2.5 1.5 국도32호(차동) 1,000 31 30 1 삼교외곽도로 1,500 21 20 0.5 0.5 국도21호(서산시제) 2,000 51 50 1 국도45호(서산시제) 1,500 21 20 1 예당저수지변 4,000 100 100	3~10월 (완료)	-길 이 : 2.2km -종 류 : 프록스외 2종 -식재본수 : 95천본	산림축산과 (읍면)							
	3~10월 (완료)	-연 장 : 264km -화 종 : 프록스외 3종 -식재본수 : 26,993천본	산림축산과 (읍면)							
	3~10월 (완료)	-위 치 : 차동리 국도변동 -개소수 : 74개소(47,254㎡)	산림축산과 (읍면)							
	3~10월 (완료)	-면 적 : 20,000㎡ -본 수 : 1,447천본	산림축산과 (읍면)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세 부 사업명	세 부 주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0 무한천 고수부지 메밀 식재 -위 치 : 응봉면 지식리 국도변 -개소수 : 1개소(6,600㎡) -종 류 : 메밀 -효 과 : 가을에 메밀꽃피는 노변조성	3~ 10월 (완료)	-위 치 : 응봉면 지식리외 2개소 -식재면적 : 11,300㎡ -종 류 : 메밀	산림축산과 (읍면)
	0 벚꽃명소거리 조성관리 -위 치 · 신양면 차동리 국도 · 터미널~신례원간 간선도로 · 예당관광지 주변 -내 용 : 뱃나무 보석 및 편익시설 조성	연중	-완 료 : 신양 차동, 터미널~ 신례원간 간선도로 -추진중 : 예당관광지 주변 -	산림축산과 (읍면)
	0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화단, 꽃길조성, 절재지 녹화사업등 중점추진	5월 (완료)	-'99. 5월 완료	산림축산과 (읍면)
	0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전국토대청결의날 운영 : 주민, 단체, 공공기관, 학생, 공무원등 -청결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전개 -행락철 자연정화활동 적극 전개 -관광지 주변 주말자연정화활동 강화 및 자연보고운동 전개 : 자연보호봉사단체 (4개단체) 책임지역 지정관리	연중	-8회 4,000천원 -2회 1,050천원 -행락지도반 편성(15개반 80명) 및 행락불편 신고센터 설치운 영 (2개소)	환경보호과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기초질서 확립	<p>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지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 깨끗한 환경조성</p> <p>o 쓰레기 종량제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봉투제작 -처리수수료(봉투판매)의 상향 조정 -1회용품 사용억제, 과태포장 안하기 캠페인 전개(대상 : 250개소) -장바구니 사용 권장 <p>o 강력한 지도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품 사용업소 점검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단속 <p>o 재활용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치 : 신양면 무봉리 -부 지 : 1,000평 -주요시설 · 압축기 1대 · 선별기 1대 · 고속발효기 1대 · 소각로 1대 <p>o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p> <p>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로 자원재활용 및 무공해 유기능 실현</p> <p>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배포 -다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사료화 지도 	연중	<p>-쓰레기봉투제작3회(1,250천매)</p> <p>-조례개정(4건)</p> <p>-예산소식지 게재(7회)</p> <p>-3,878개소 점검(283개소권고, 1개소 이행명령)</p> <p>-13건 1,200천원 부과</p> <p>-재활용품 선별, 판매 : 1,240 톤</p> <p>44,000천원</p> <p>-3회 1,100명</p> <p>-1회 500매</p> <p>-8회 790개소</p>	<p>환경보호과 (읍면)</p> <p>환경보호과 (읍면)</p>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공중 화장실 청결관리	0 공중화장실 점검 -대상 : 86개소(역, 터미널, 시장, 주유소, 휴게소등) 0 시설물 관리 -수도관등 파손 시설물 교체 보수 -안내판등 부착물 부착상태점검 0 주변 청결유지 -분뇨수거 및 소독실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0 편의시설 기능 제고 화장지, 비누, 타올등 위생용품 비치					연중	-3회 256개소 점검 -1회 20개소 -2회 32개소 -1회 16개소	환경보호과 (읍면)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	0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자에 근로기회 부여 및 생계지원 <div>(단위 : 명, 백만원)</div>					연중	-1단계 : 32,443(984백만원) -2단계 : 33,104명(1,016백만원) -3단계 : 24,537명(783백만원) -4단계 : 추진중	지역경제과 (실과, 읍면 사업소)
	구분	연인원	사업비	추진사업	비고			
	계	92,445	2,859	35개사업				
	1단계	32,445	984	31				
	2단계	33,000	1,100	35				
	3단계	20,000	600	25				
	4단계	7,000	175	31				
관광지 주변정비로 관광루트화	0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서해안 배후온천 휴양관광지로 조성 <div>(단위 : m², 백만원)</div>					연중	-기반조성공사준공(99,10,31)	도 시 과
	구분	계	제1차지구	제2차지구				
	개발면적	723,575	286,080	437,495				
	사 업 비	39,000	11,800	27,200				

부 록

세 부 사업명	세 부 주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기초질서 확립	<p>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 및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지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 깨끗한 환경조성</p> <p>o 쓰레기 종량제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봉투제작 -처리수수료(봉투판매)의 상향 조정 -1회용품 사용억제, 과태포장 안하기 캠페인 전개(대상 : 250개소) -장바구니 사용 권장 <p>o 강력한 지도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용품 사용업소 점검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단속 <p>o 재활용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치 : 신양면 무봉리 -부 지 : 1,000평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기 1대 · 선별기 1대 · 고속발효기 1대 · 소각로 1대 <p>o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p> <p>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로 자원재활용 및 무공해 유기능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배포 -다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사료화 지도 	연중	<p>-쓰레기봉투제작3회(1,250천매)</p> <p>-조례개정(4건)</p> <p>-예산소식지 게재(7회)</p> <p>-3,878개소 점검(283개소권고, 1개소 이행명령)</p> <p>-13건 1,200천원 부과</p> <p>-재활용품 선별, 판매 : 1,240 톤 44,000천원</p> <p>-3회 1,100명</p> <p>-1회 500매</p> <p>-8회 790개소</p>	<p>환경보호과 (읍면)</p> <p>환경보호과 (읍면)</p>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세 부 사업명	세 부 추 진 계 획						추진 시기	추진 실적	담당부서 (협조및추진)
	-온천수가채수량 : 9,370m ³ /일 -관광시설물 유치계획 (단위 : 동)								
	구분	계	공공시설	숙박	상가	오락	문화시설		
	계	166	7	99	43	4	13		
	1차지구	59	3	37	11	3	5		
	2차지구	107	4	62	32	1	8		
	o 덕산도립공원 개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집단시설지구이전 : 69가구 (상가 54, 비상가 15)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조성 : 관광객 및 등산객 편의제공 -남연군묘역 정비 · 위 치 : 덕산면 상가리 지내 · 사업량 : 남연군묘 입구계단설치 1식 35m						연중	-1,2차분 24세대 입주 -3차분 9세대 착공 -'99.8.31준공 · 측 구 L=244m · 관광포장 A=10,764m ²	건설과
	o 예당관광지 개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 : 전기 · 통신 주차장, 피크닉장, 진입도로, 상하수도, 화장실 토지매입(총7개사업)						'99.11 ~12	-시기미도래	(문화공보실)
							'99.4 ~12	-주차장 설치등 7개사업 73%공정	문화공보실

■ 집 필 자 ■

송 두 범(宋斗範)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행정학 박사(지역사회개발 전공)

기본연구과제 99-02

지역공동체운동의 추진실태 및 발전방안
-내고장 사랑운동을 중심으로-

발 행 인 : 충남발전연구원장 황 용 주

인 쇄 일 : 2000년 6월 15일

발 행 일 : 2000년 6월 30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7층~18층

전 화 : (042)472-1900

팩 스 : (042)472-1912

인 쇄 처 : 필성인쇄사(042-252-168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00-1 03330

<비매품>